



2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2호

(루게 364)



◆◆◆◆◆◆◆◆◆◆ 차 례 ◆◆◆◆◆◆◆◆◆◆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2
조국땅우에 밤은 깊어가도 (외 1 편).....	3
만경화	4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	5
수령님 우러러 부르는 노래.....	6
발전공의 순회길.....	7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빛나는 귀감	8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11
주체형의 새 인간 형상의 빛나는 모범	11
발걸음	17
차이점	28
한줌의 흙, 한치의 땅을 두고.....	40
온정령 옛 전선길우에 (외 1 편).....	41
금강산에서	41
귀중한 이름들.....	43
바다가마을에서	44
되박	54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다시 출판한다.....	55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생동한 화폭.....	56
묘사는 소설형상의 생명이다	62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김석주

창밖에 비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 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오늘은 어느곳에 계실까
밤비를 맞으시며
그 어느 령길을 넘고계실까
그 어느 들길을 지나가실까

그날도 그맘때 이러한 저녁
멀고 험한 밤길을 이어가셨지
쉬어서 가시였으면
비라도 그어서 가시였으면...

간절하고 송구한 우리 마음 아시고
산촌마을 농민들도 기다린다고
우리야 늘 이런 길을 걷는데
찬비를 맞지 말고 어서 들어들 가라고

불빛이 아늑한 마을을 뒤에 두시고
웃으시며 떠나시던 수령님 모습
어제도 오늘도 못잊고
낮에도 밤에도 못잊어

창밖에 비가 내려도
문득 이런 날 걸으실 수령님 생각
창밖에 눈이 와도 바람이 스쳐도
가슴뭉클 젖어오는 수령님 생각

기나긴 한평생
눈비속을 가시는 수령님
맑은 날 좋은 날은 우리에게 주시고
곳은 날 험한 날을 헤쳐가시니

락원의 강산에 행복의 꽃들이 피어도
마음속엔 내리는 백두의 눈송이
이 땅의 끝까지 사랑의 열매 주렁져도
목매여 더듬는 그 자욱자욱

아, 찬비속에 안고오신 사랑이여서
받아안는 사랑이 이렇듯 뜨거웁고
찬눈을 맞으시며 안겨주신 행복이여서
누리는 행복이 이렇듯 눈물겨운가

그래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행복에 겨워 수령님 생각

좋은 날 젖는 행복 고마운 마음
그날의 눈비 행복의 이슬로 젖어
가슴속에 끝없이 고이는것은
맑고 깨끗하게 샘솟는것은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 높이 모실 생각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 받들어갈 생각
우리의 가슴속엔
아버이수령님 생각뿐이여라

조국땅위에 밤은 깊어가도 외 1 편

구희철

밤이슬에 젖은 별들이
은하수에 실려 소리없이 흐르고
은은히 울려오는 먼 기적소리에
별을 수놓은 하늘이 가벼이 흔들리는 밤

별들이 흐른다
별들이 반짝인다
잠들줄 모르는 인민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락원의 강산우에...

아버이 수령님
우리러 높이 추대한
기쁨에 젖은 눈빛들도
수억만 별들로 빛을 뿌리는가

깊어가는 밤처럼
깊어가는 생각으로
뜨거운 눈물에 젖은 마음들이
감격에 겨워 수령님을 노래하는 이 밤

잠들수 없어
땅은 불바다 불빛의 바다를 펼치였는가
잠못들어
하늘도 별바다 별빛의 바다를 펼치였는가

기쁨의 눈이슬에 젖은 불빛이
밤이슬에 젖은 환희의 별빛이
하늘땅 가득히 차흐르는
경사로운 조선의 밤이여!

수령님 높이 모신
한없는 행복속에 밤은 깊어가고
수령님 뵈고싶고
말씀 올리고싶은 간절한 마음속에 밤은 깊어

밤하늘에 높이 닿은
분배장의 풍년 난가리앞에서
아버이수령님을 목메여부르는
처녀관리위원장은 눈물에 젖고 또 젖고

머나먼 대양의 파도우에
무거운 닻을 생각처럼 드리운
원양선단의 늙은 선장도
잠못들어 갑판을 걷고 또 걷고

류성같이 조국땅을 주름잡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사 젊은이
이 밤 북으로 천리 궤도를 달려도
마음은 수령님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어디서나
그 누구나
받아안은 그 은덕 하늘같이 커서
밤깊어도 잠못들고 생각에 잠기는가

우리 이름 별처럼 빛내주시고
우리 희망 은하처럼 펼쳐주신
아버이수령님의 그 품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하늘!

하늘같은 그 품에
그 은덕의 손길에
인민은 자주의 삶을 꽃피웠고
조국은 락원의 강산으로 번영하여라

시련도 기쁨도
인민과 나누시며
혁명도 건설도
인민을 위해 하시며

백두의 눈길을
인민과 함께 헤치셨고
포연서린 남진의 길을
인민들과 함께 걸으신
우리 수령님!

전후의 재더미를 헤치고 나래친
천리마의 발굽으로 종파놈들을 짓밟아버리시며
사회주의락원을 꽃피우신
영광의 반세기

오신 길 만리에
별을 따다 수놓아드리고싶고
가실 길 만리에
은하를 주단처럼 깔아드리고싶은 마음

수령님을 위한 인민으로
우리 이 땅에 태여났건만

어찌하여 아, 어찌하여
한평생을 인민 위해 바쳐가시는
수령님을 단 하루도 편히 쉬시게 못하는것인가

아버이 그 품속에서
빛나는 삶 누리는 인민이어서
밤깊은 이 땅에 불빛은 꺼질줄 모르고
밤깊어도 인민은 잠들줄 몰라라

저 하늘의 품에서

언제나 별들은 빛을 뿌리고
아버이수령님 사랑의 품속에
영생의 별로 인민은 빛을 뿌리리

아, 우리의 태양 **김일성** 원수님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리
영원히 수령님 받들고
영원히 수령님 따르고
영원히 영원히 수령님만을 모시리

만경화

구름덮인 땅은 설움에 차고
바다는 원한 안고 울부짖어도
남해가 오막살이 울밑에선
만경화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만경대를 못잊어
수령님 품을 그리며
만경대고향집 트랙에 핀 꽃을
남해바다가에 피운 만경화입니다

만경대와 더불어 피어나라고
만경화라 이름지어 부르는 꽃
그리워 꿈결에도 수령님 우러르는
그 마음이 어려서 붉게 피는 꽃

한송이 꽃으로 만경대에 피고싶던
간절한 그 마음이 안아온 씨앗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먼저 찾는 마음
그윽한 향기에 실어서 보냅니다

수령님 모시고 살고싶은 마음
사랑의 그 품이 그림고 그리워
씨앗되고, 뿌리되고, 꽃송이 되어
투쟁속에 피워가는 만경화입니다

비바람 아무리 모질다 해도
칼바람 아무리 사납다 해도

뿌리깊은 신념을 내려주는 꽃입니다
밝은 앞길 열어주는 희망의 꽃입니다

만경대 고향집 트랙을
남해바다 한끝까지 넓혀가는 마음
싸우는 전구와 전구마다에
 옮겨가며 안고사는 만경화입니다

새벽이슬 맞으며 공작의 길 떠나다도
붉게 핀 만경화를 바라볼 때면
그리운 새세상이 눈앞에 어립니다
수령님 그 영상이 가슴속에 어려웁니다

꽃입니다
꽃이라도
싸우다가 단두대에 올라선다 하여도
수령님 전사로 꽃피울 한생입니다

아, 꽃입니다
꽃이라도
불씨처럼 옮겨지는 혁명의 꽃씨앗
폭풍속에 피어나는 만경화입니다

삼천리 강산이 꽃바다로 설레이고
통일의 광장에 수령님 높이 모실
그 마음이 만경화로 남녘땅에 펴니다
그 마음이 만경화 향기되어 풍깁니다

내 자라난 사랑의 품이여

홍현양

들길을 걸어도
산천을 보아도
언제나 목메이는 이 마음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오곡을 가꿔가는 이 가슴속엔
자나깨나 못잊을 아버지사랑

알수 있었으랴
웃음밖에 모르던 그 시절
아버지는 있는가고
어머니는 있는가고
수령님 다정하게 물어주실 때
철없이 올리는 대답을
조국의 상처로
그처럼 아프게 새기실줄을...

혁명은 준엄하여
수령님 마음 쓰신 일 많으시었건만
보내주신 사랑의 꽃신을 신고
밤나무숲에서 매미를 쫓으며
가시의 아픔을 모르고 자랐어라

허리띠를 졸라맨 조국을
걸음걸음 안아일으키시며
수령님 눈바람을 헤쳐가실 때
그 눈비의 차거움을 모르며
해빛밝은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의 나날을 보냈거니

들길을 걸어도
산천을 보아도
나를 안아 키워주신 사랑의 자옥

수령님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농장의 주인이 된 이 손을 잡아주시며
맨발벗은 그날을 추억하여주실 때
어찌하여 목이 메여 할 말을 몰랐던가

맨발로 자란 나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수령님 심려속에 보내시던 그날엔
철부지 웃음밖에 알수 없던 이 몸
다 자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수령님 환하게 웃으실 때엔
목이 메여 목이 메여 울음을 터쳤구나

아, 눈물로 안긴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여
준엄한 폭풍속을 헤쳐오시면서도
언제나 기쁨과 웃음만을 안겨주신
잊지 못할 그 위대한 사랑이여

하늘같은 그 은정에 안겨
내가 자라
인민이 자라
조국이 자라
이 세상은 낙원으로 눈부시게 솟았거니

설레이는 땅이여
행복한 창문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이 간절한 소원만이 남아
산은 산마다 향기로 넘쳐나고
들은 들마다 황금물결 설레이누나

수령님 우리러 부르는 노래

김성조

우리러모시는 마음 끝이 없고
우리러따르는 마음 끝이 없어
하늘은 저리도 푸르고
강산은 이리도 설레는가

아버이수령님을 주석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이 시각
홍분과 격정에 차넘치는 가슴들이
터쳐올리는 만세의 환호성
굽이치는 감격의 파도
우리러따르며 끝없는
소박한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
영광의 연단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높이 울리는 행복의 노래
영광의 노래
락원의 이 강산에 넘쳐흘러라

천리 방선의 눈덮인 언덕을 걸어가며
더운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는 로투사
아버이 그 품에 안겨
첫 무장을 받아안던
그날의 그 밀림이 생각나서
목메여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고...

고역의 멍에를 끌던 그 발이랑우에
토지개혁의 봄빛을 뿌려주시던
아버이 그 사랑
해마다 만풍년의 들을 가꾸어주시며
찾아오시여 이끌어주시는
아버이 그 믿음이 목메여
한 관리위원장은 평양의 하늘을 우리르고...

다함없는 그 은혜
다함없는 그 사랑
나라없던 그날엔 눈보라 만리길을 헤치시여
설음과 원한을 가져주신 품이었고
행복한 오늘엔

위대한 령도의 그 걸음으로
찬란한 미래를 다 안겨주시는
아버이 그 품이 있었기에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은
영광과 행복에 차넘치여라

아, 행복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누리는 영광이 그 얼마나 큰것인가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인민의 끝없는 환호여!

어둡던 그날에도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믿어
짚신을 신고 따랐고
시련이 겹쌓이던 그날에도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우리러
희망에 넘쳐 준엄한 년대들을 넘어왔거니

가장 간고한 날에
수령님 우리를 믿어주시였기에
가장 어려운 날에
수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시였기에
강국의 위용을 펼치는
사회주의락원의 언덕에서
우리 부르는 노래
이처럼 뜨거워라

이 노래
만풍년의 봄을 부르는
대지우에 새겨지고
강철기지의 하늘을 물들인
철의 불노을속에 피여오르고
땅속의 보화를 찾아
천만의 시추기들이 돌고도는
지심 천리에 울리어간다

환호는 높이 올려라
이 세상 처음

주체의 조국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이 세상 처음
가장 높은 인간의 존엄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주시는 그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만 가고
그 사랑의 참 뜻을 깨달을수록
생각도 깊어가는 인민의 마음이기에
더 높이 모시고
끝없이 받들고싶은
우리 수령님!

영광의 높은 연단우에 오르시여
또다시 새 정강을 펼치시며

백시

휘황한 래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승리로 불러주시니

흐르는 세월도
수령님 계시여 빛나고
저 하늘의 해와 달도
수령님 모시여 빛나는 강산이여

주체의 한길로
자주의 새시대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
그이를 우러러 대를 이어
부르고 또 부르노라
천년을 받들어 행복하고
만년을 받들어 다함없는
충성의 노래, 영광의 환호여!

발전공의 순회길

리석

이제는 눈을 감고도
계기들의 움직임 가늠할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청음봉 없이도
발전기의 숨결을 가늠할수 있는 길이다

발전공 그대는 하루도 아닌 열다섯해를
열발자국밖에 안되는

이 순회길을 걷고 또 걸었다

오, 발전공동무여
잊지 말자
그대의 순회길은 사철 변함이 없어도
이 순회길과 잇닿은 조국의 모습은
시간마다 변하고 또 빛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빛나는 귀감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1 부)를 읽고-

김흥섭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모시고 충성의 한길을 힘있게 걸으면서 주체형의 공산주의녀성혁명가로 자라나는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였습니다.

주체의 기치밑에 진행된 우리 인민의 반세기에 걸치는 자랑스런 혁명투쟁의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영광스러운 력사인 동시에 인류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다 바쳐온 우리 인민의 충성의 력사입니다.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충성의 력사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의 빛나는 전형을 이 소설은 아름답고 숭고하며 힘있고 선명하게 형상하고있습니다.

작품은 주인공 정순이의 청소년시기를 주로 그리면서 1932년 량강구회의를 전후한 2년간의 생활을 격동적으로 담고있습니다.

작품의 마감부분에서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왕청쪽 흰구름 여러송이 피어있는곳을 향해 나직이 부르짖습니다.

《아, 장군님! 그리운 장군님!》

그러면서 그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흠모의 정에 뜨겁게 무뎛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는 1부에서 주인공의 주도적성격이며 이 소설에 일관된 사상적알맹이며 강렬한 감동의 원천입니다.

환경전개에서 주인공의 사회계급적처지와 가정생활을 진하게 묘사하면서 소녀시기부터 그리기 시작한 작품은 그가 충성의 한길에 믿음직하게 들어서는 과정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충성의 한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로정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생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입니다.》

작품은 주인공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생동한 생활형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혁명가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사회환경과 주위조건,

계급적처지를 실감있게 그리고있습니다.

작품은 주인공의 앞길에 부딪치는 일제식민지통치와 빈농민들의 기막힌 생활형편을 회령집의 가정생활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주인공의 사회계급적처지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영향은 남달리 일찌기 그를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망국의 설움을 씻어보겠다고 무장을 들고 일어섰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주인공의 집을 마을에서는 회령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난속에서도 남을 먼저 도울줄 아는 두터운 인심과 의리를 남달리 귀중히 여기는 곧은 심정을 가진 이 집의 가풍때문이었습니다.

짚누르는 빈궁속에서도 어머니의 지성으로 자라난 주인공은 나물을 팔아 한푼두푼 모아 치마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치마를 시집과 옷 한벌 못해준 울케에게 주도록 합니다.

이런 인정깊은 어머니였는데 그만 놈들의 《토벌》을 맞아 연기가 엉켜돌아가는 콩밭에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 에미는 땅속에 들어가서도 눈을 감지 않고 네나 네 오래비나 네 울케가 어떻게 원썬을 갚는가를 보겠다. 그리구... 너희들이 춤을 추며 원썬이 없는 내 나라로 돌아갈 때엔 내 녀도 함께 가련다.》

이렇게 최후의 말을 남긴 어머니는 정말 원한의 이 세상을 두고두고 보려는듯 두눈을 감지 않았습니

다. 주인공의 오빠 김기환은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고 싸우는 태봉시의 지하조직책임자이며 로숙한 혁명가입니다. 그는 지주 민태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조직지도하였으며 태봉시 광산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능숙하게 지휘함으로써 일제경찰놈들과 광주놈을 굴복시켰습니다.

작품마감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청으로 갑니다.

오빠는 주인공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정순이가 사는 구암이 《토벌》을 맞아 어머니가 희생되고 그에 앞서 울케가 체포되고 마을이 다 불탄 그런 큰 불행을 주인공이 혼자 이겨내며 오빠를 기다리는데 밤중에 오빠가 불쑥 나타나자 그는 오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팔소매를 잡아흔들며

흐느껴 읊니다.

그러나 오빠는 갈린 목소리로 울음을 그치라고 하면서 사람이 강해지자면 눈물을 깨물어먹고 살 줄 알아야 한다고 타이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겐 **김일성** 장군님의 품이 있다… 너희들을 상촌으로 가라고 하는것도 상촌이란 바로 장군님께서 꾸려주신 유격근거지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지는 장군님의 큰 사랑의 품이야.》

위대한 수령님을 뵈우려 왕청으로 갔던 오빠는 정순이가 있는 상촌유격근거지로 찾아와 밤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을 잘해라. 장군님을 만나뵈어도 일을 잘하고 만나뵈어야지! 혁명하는 사람치고 그 누가 장군님을 만나뵈고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니? 그렇지 만 한 일이 없이 만나뵈옵는다는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이와 같이 오빠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한길로 주인공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오빠가 있었기에 정순은 곧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로 들어설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울케 길너는 순박한 농촌녀성입니다. 그러나 시련속에서 성장한 그는 놈들에게 체포되어 남편의 거처를 대라는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말한마디 입밖에 내지 않고 마지막엔 원쑤들의 얼굴에 피를 뿜어던지고 절명했습니다. 길너의 장렬한 죽음도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의 교양을 받아 자라난 동생 기성이는 소년영웅입니다. 참혹한 시련을 겪은 그는 아동단반장으로서 상촌유격근거지에 대한 일제놈들의 포위에서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며 적을 유인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기성은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누나를 알아내어 이런 부탁을 간절하게 남깁니다.

《누나, 나 이제 장군님을 만났어 !》

《…우리 학교 꽃밭에 오시지 않았어. 내가 가곤 꽃밭말야…》 《장군님께선 꽃밭을 잘 가꿨다고 하시지 않아… 그리고… 내 나팔 보시더니 작다고 하시며 이제 큰 나팔을 보내주신다지 않아, 이만치 큰 걸…》

《누나, 장군님 보내주신 나팔이 오면 똘다 날쥘…》

소년영웅 기성이는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장군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만나뵈우고 안타깝게도 떠나갔습니다.

동생 기성이의 영웅적최후도 주인공의 혁명적의지를 더욱 굳게 단련시켰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

한 충성심을 활활 불타게 하였습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인 정순이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 나서 자랐고 교양을 받았기에 그토록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길에 올랐고 그 한길을 변함없이 힘있게 걸어갈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가정환경의 영향과 혁명조직의 지도를 받아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을 력점을 찍어가며 형상함으로써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런 독창성과 특색으로 하여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고 정치성과 함께 인간성이 풍부한 혁명가로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을 절절히 흠모하고 그이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가는 과정을 성격장성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과 굳게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작품은 슬기로운 주인공이 주체의 해발을 처음으로 받아안은 야학과 공청에서 주는 과업을 실현하는 첫 투쟁을 생활속에서 생동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뼈라를 뿌리는 첫 투쟁을 승리적으로 수행한후 공청조직으로부터 아동단지도를 분공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도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일일것이란 자각이 들어 열심히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합니다.

《토벌》당한 구암에 오빠가 찾아와 그에게 민족의 태양이신 장군님에 대해서와 준엄한 혁명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인젠 슬픔이기보다 이 슬픔의 바다우에 해님처럼 솟아오르신 **김일성** 장군님의 명함이 어머니 대신 포근히 그의 주위에 와서 둘러싸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유격근거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다음부터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의 발전은 새로운 높이에 오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무서운 불길과 죽음과 아우성속에서 크고 찬란하게만 들어오던 혁명이라는 말의 참뜻을 여기 상촌유격근거지에 와서 더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촌유격근거지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원일을 도와나서며 몸이 좀 추서자 자진하여 아동단사업을 맡아나섭니다.

그는 중첩되는 난관속에서 누구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다 어려운 일을 한가지씩 맡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하는것입니다.

이런 혁명가야말로 혁명을 몸으로 깨닫고 수난을 박차는 진짜 혁명가이며 피눈물나는 생활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깨닫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혁명로선과 방침을 받들어가는 주체형의 혁명가인것입

니다.

주인공이 아동단사업을 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구암에서 온 공청원 최정수도, 어제날의 야학선생인 최섭이도 혁명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어떻게 충성 다하여야 하는가를 주인공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형상은 참된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원수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인민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 삶의 매 순간과 매 시각을 어떻게 충성다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산모범입니다.

주인공은 아동단원들이 들 집에 쓸 구들돌을 나르면서도 줄곧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생각하며 지금 하는 일이 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힘을 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는 장군님께선 지금 어느곳에 계시는가? 아 장군님! 장군님은 어느곳에 계시는가?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으면서 물흐르듯하는 땀을 씻으며 구들돌을 나릅니다.

주인공의 이 숭고한 충성심의 발현앞에 소부르쵸 아사상에 물젖어 편안한 일자리를 찾던 금실이는 개조됩니다.

상촌공청에서는 정순이를 가뎡시킬데 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비록 가뎡할 나이가 안되었지만 숭엄하고 영광스러운 분위기속에서 그를 공청에 받아들입니다.

작품은 이때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 분석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행동의 세부들을 선명히 부각하고 절절한 결의를 이렇게 표현하고있습니다.

《...그 각오를 앞으로 일을 하는것으로 대답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꼭 **김일성**장군님의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기에 날마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주인공은 지하공작원으로 태봉시에 파견됩니다. 태봉시에서 그는 오직 장군님의 말씀을 자로 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며 부당한 주장들을 가려냅니다.

한때 좌경모험주의에 빠졌던 그 구역의 지하조직 책임자 한기천은 그에게 이렇게 실토향니다.

《장군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서기만 하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큰 힘을 가지고 혁명을 내밀수 있다는 진리를 동무한테서 배웠소. 바로 동무한테서 그 결실물로 보았단말이요.》

주인공은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님의 말씀관철에서 무조건성을 철저히 지키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을 훌륭히 체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순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으로, 귀감으로 되는것입니다.

유격근거지로 달려들던 원수들을 섬멸한 다음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태양이 솟는데 그 아침해빛속에서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를 받기에 혁명의 승리가 반드시 빨리 오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정순의 형상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주는 시대의 전형이며 주체형의 녀성혁명가의 진정한 본보기입니다.

주인공의 형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정갈하며 인정 깊고 의리가 있으며 우정이 두텁고 남달리 총명한 성품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녀성혁명가로 숭고하게 우러르게 됩니다.

주인공의 숭고한 성격은 장편소설다운 서사시적 화폭과 치밀한 감정조직, 힘있게 파고드는 문장과 심리세계의 분석적묘사형상수단들의 주인공에게로의 집중의 숨씨 등으로 하여 더욱 높이 부각되고있습니다.

김정순의 형상은 진실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높은 사상정신적품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인간성, 고결한 성품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영생불멸의 귀감입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그 모든것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전형, 정순의 형상은 우리들에게 가장 순결하고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명령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주는 찬란한 충성의 별입니다.

이 작품을 읽고 저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 다하리라는 불같은 결의를 다지면서 어떤 폭풍도 어떤 시련도 용감히 뚫고 수령님을 모시고 충성의 한길로 걸으리라 맹세하였습니다.

참으로 김정순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의 산본보기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새 인간 형상의 빛나는 모범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 대하여-

장영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앞에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완수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것이다.

사회성의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은 그들을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진정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가장 본질적인 과업이며 우리 당 사상사업의 중심문제이다.

따라서 임의의 문학예술작품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가 하는것도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하고있는가에 의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게 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과작으로 되고있다.

이 영화는 주체형의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고 싸워야 하며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에술적해답을 심오하게 준 현실주제의 작품이다.

영화는 작품이 제기한 이러한 사상주제적과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일하는 여기에 삶의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종자를 깊이 있게 심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워나갔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실재한 생활사실

에 기초하여 그것을 옹기 전형화함으로써 격동적인 사연들로 가득찬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공고성의 기초와 그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있는 새형의 주체형의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한 혁명적작품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이 영화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준엄한 시기였던 1957년 8월의 어느날 남포시의 선거장으로 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서군 태성리에 들리시여 만나셨던 한 유가족할머니의 생활에서 있는 실지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그후 얼마 지나서 선거때문에 남포에 나가다 강서군 태성리에 잠시 들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이 인민군 련대장을 하다가 전사했다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는 손자를 업고 선거장에서 춤추는것을 구경하고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를 보더니<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 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고어찌고 떠들어도 이제는 다 잘 살게 되었으니 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녀려하십시오.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으며 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쳐부셔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상하신 한 유가족할머니의 이 말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심장속깊이 간직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에게 바쳐오시면서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에게 더 큰 사랑을 안겨주지 못하여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인류력사가 흘러 수천년 내려오는동안 아직도 누구도 지니지 못한 가장 높은 덕성을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 사랑과 충성에 의하여 굳게 뭉쳐진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간의 불패의 통일단결, 이것은 오직 주체의 혁명위업이 실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모이다.

작품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와 그 본

질적 측면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 실재한 사실을 가식없이 그대로 그리는 것을 형상작업의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작품은 실재적 사실에 대한 예술적 전형화를 옹계 진행할 때에 대한 주체적 문제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영화문학작가들이 사실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서 자료를 기계적으로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작품의 높은 사상에 예술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실재한 시대적 전형을 예술적 형상으로 그려내기 위한 작업을 훌륭히 진행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한편의 작품에서 작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더구나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와 같이 력사에 빛나는 실재한 사실을 예술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편의 영화에 사실의 위대성을 다 그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태성 할머니에게 돌려주신 아버지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할머니의 생활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태성리 선거장에 들리셨을 때 마을 처녀들이 올린 꽃다발을 할머니의 손에 쥐여주시면서 이 꽃다발은 이 할머니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시였으며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태성리를 지나가시다 당시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던 할머니의 만머느리를 보시고는 차를 세우시고 할머니의 안부서 몸소 물어주시며 참 좋은 할머니인데 오래오래 사시라고 뜨거운 은정의 교시를 주시었다.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1975년에 있는 전국 농업대회를 지도하시던 아버지 수령님께서서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좋은 할머니인데 너무도 일찍 가셨다고 흐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으며 이 가정이야말로 말없이 당에 충실한 영웅렬사가족이라는 고귀한 칭호까지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태성 할머니의 충성심 또한 큰 것이었다. 해방전에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뛰쳐나가 해매이던 만아들을 조선인민군 련대장으로 키워주신 아버지 수령님의 은덕이 하도 고마와 《내 뼈가 흩어질 때까지 장군님의 백성답게 농사를 잘 짓겠다.》고 맹세하시던 할머니, 일식적 후퇴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어 갇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난 김일성 장군님밖에 모른다》고 웨치던 할머니, 만아들이 1211 고지방위 전투에서 련대를 지휘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에도, 비행사로 싸우던 둘째 아들이 두눈을 잃었다는 절통한 소식을 받았을 때에도 눈물 대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간 할머니였다.

하지만 영화는 그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

기계적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작품의 종자해명에 필요한 사건들만을 고르고 그것을 형상적으로 가공하여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실재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높은 사상에 예술성을 보장하여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준 비결이 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실재 사실을 예술적으로 재가공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힘을 기울인 것은 생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우리 인민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노래하는 덕성에 관한 선과 그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할머니 일가의 끝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힘의 선을 유기적으로 밀착시키고 이 두선의 부단한 교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에 관한 선을 시종 일관 작품의 중심 사건선으로 끌고 나간 것이다. 이것이 이 작품으로 하여금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유일 사상화의 요구에 훌륭한 해답을 준 혁명적 영화 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게 된 근본 알맹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단합된 화목한 붉은 대가정으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대가정속에서 혁명적 정열과 락관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어있고 혁명적 정열을 내어 일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온 사회의 철석같은 통일단결, 이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제도의 공고한 기초로 되고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영화는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나가는 불패의 통일단결의 깊은 뿌리는 인민에 대한 아버지 수령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배려, 그 은덕에 보답하려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에 뻗어 내려고 있다는 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수령님 계시여 인민이 있고
인민은 수령님께 한몸 바치네
아 대를 이어 영원히 따르리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영화는 이러한 사상주체적 과제를 형상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현실에 실지로 있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성 할머니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은덕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의 중심선에 세워놓았다. 즉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머슴을 살면서 하루에 피죽 한끼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아들딸 삼형제를 굶겨죽이고 남편마저 잃은 이 어머니일가에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맡든느리 정순이에게 남편의 뜻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협동조합관리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시고 그의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시었으며 영예전상자인 둘째아들 정철의 먼눈을 고쳐주시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에 관한 이 선이 작품의 사건선에서 중요한 맥박을 이루고있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해와 달이 다하로독 충성으로 따르려는 어머니일가의 끝없는 힘모의 선이 허다한 생활을 야기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일가의 끝없는 힘모의 선에서 가장 인상적인것은 자나깨나 아버지수령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를 축원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해내고야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다.

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받들어모실 충성심이 심장깊이 간직되어있기에 어머니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선거때문에 남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그처럼 오매에도 힘모하여마지않던 수령님을 만나뵈을 간절한 념원을 안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것이며 이른새벽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정성껏 쓸며 마음속으로부터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기쁨을 자신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있기에 어머니는 선거장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고 돌아와 《나쁜놈들이 얼마나 쏘라닥질을 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안색이 그렇게도 좋아졌겠니... 한평생 백성을 위해 그렇게 애쓰신분을...》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며 평양에 올라갔던 맘때느리가 돌아와 지금 아버지수령님께서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정책을 헐뜯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심려하고계신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커다란 시름에 잠겨 일손을 잡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일가의 끝없는 충성심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을 위한 태도에서도 감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인민이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려면 모든 농촌들에서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만을 유일한 신조로 삼고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진하여 조합의 축산반으로 나가 일하며 돼지먹이가 풀리지 않아 새끼날이가 곤란하게 되었을 때 알은 물웅덩이에까지 나가 징그러기도 잡아오고 자기는 죽을 먹으면서도 자기 집의 강냉이를 내다가 붓아서 돼지에게 먹인다.

어머니는 이렇듯 돼지를 많이 길러 아버지수령님

께 기쁨을 드릴 충성의 한마음으로 아글타글 일할뿐아니라 반당종파분자들이 축산을 못하게 하자 추호의 동요없이 그놈들과 견결히 맞서 싸운다. 반당종파분자의 지시로 조합의 줄개들이 돼지를 팔려고 할 때 자신의 한몸을 돌봄이 없이 두팔을 벌려 그것을 서슴없이 막아나서는 어머니의 형상은 얼마나 인상적인가.

《당에서는 별방 산골 가리지 말고 돼지를 기르라고 했는데 어른은 돼지를 팔라고 하니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소리가 아니고 뭐요. 그래 이게 나쁜놈들이 하는 소리와 같지 않소?》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시비하고 그 관철을 방해하는자들의 정체를 단호히 폭로하는 어머니의 이 추상같은 웨침은 비록 아는것도 적고 연설할줄도 모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당정책을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옹호관철하는 일이라면 한치의 드림도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사는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성격특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영화의 중심주인공인 어머니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끝없이 우러러 힘모하고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간에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쳐 당정책을 관철하는 소박하고도 강毅한 어머니로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그렇게 살도록 본받아야 할 생활의 거울이다.

영화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체형의 새 인간 전형인 어머니를 형상하면서 그의 성격을 형성시켜준 생활적바탕을 진실하게 밝혀냄으로서 어머니와 그 일가의 생활을 통한 힘모의 선과 아버지수령님의 어머니일가에 대한 고매한 덕성의 선을 유기적으로 밀착시켜나갔다. 영화는 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들에게서 힘을 얻으시며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일원단심 충성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령님과 인민의 혈연적인 뉴대와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이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위력한것이라는것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당의 축산정책을 심장으로 관철해나가는 어머니의 생활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것을 다만 정책적인 선에서만 전개시킨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한 물리적인 선과 밀착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고있으며 영화의 극적감정을 인간생활의 깊이까지 끌고간 성과도 거두었다.

맡아들이 전사한 어머니에게 있어서 둘째아들마저 두눈을 잃었다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둘째아들 정철의 실명을 전하는 편지를

받고 자기 집 퇴마루에 걸터앉아 먼 하늘을 망연히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얼마나 기막힌 것인가.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웅당 가질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감정이다. 문제는 그러한 감정을 전혀 가지지 않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데 있다.

영화는 바로 이러한 극적체험을 겪는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정신세계의 높이를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있으며 인간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혁명적윤리관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해답을 주고있다.

정철이가 두눈을 잃은것과 관련하여 그 운명에서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것은 그의 애인 옥성이다. 옥성이는 정철이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것만큼 그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것은 그가 어떤 사람을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는가 하는 혁명적인생관에 관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옥성이는 지성적으로는 정철이를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부모의 반대에 부닥쳐 자신의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지 못하고 동요한다. 게다가 반당종파분자들이 그를 제놈들에게로 끌려고 하는것이다. 여기서 옥성이는 부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여 나쁜놈들에게로 가느냐, 아니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참된 삶을 개척하느냐 하는 심각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그리하여 옥성이의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발전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문제는 축산기수인 그가 할수없이 축산반에서 나가야 할 정도로 사건이 발전한만큼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영화는 이처럼 윤리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서로 밀착시킴으로써 인간의 구체적인 윤리도덕적인 생활감정까지도 깊이있게 파고들어 공산주의적 인간학의 요구를 더 잘 관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새롭게 개척한 분야의 다른 하나는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고 마을을 혁명화하며 나아가서는 온 사회를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의 높이에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것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영화들은 가정과 집단의 혁명화문제를 취급할 때 주로는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자유주의, 관료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내용을 기본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집단주의와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화과정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

는데 있다.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의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아버지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야만 혁명화의 목적이 중국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혁명화에서 사회성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화과정으로 된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혁명화과정의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정과 마을의 혁명화문제를 단순히 리기주의와 자유주의 등을 극복하는 문제로 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일사상화과정으로 묘사하였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가 혁명화문제의 취급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성과적측면의 하나가 있다.

영화는 혁명화과정의 사상적내용을 유일사상화과정으로 분석하면서 그 방도에 있어서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본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형상적으로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어머니가 자식들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도록 교양하는 모습, 다시 말하여 아버지수령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만아들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면서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혁명화해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어머니는 반당종파분자들과의 투쟁에서 조금도 굽힘없이 당정책을 옹호하도록 만며느리를 고무하는가 하면 평양의 하늘을 지켜싸우다가 두눈을 잃은 시동생의 처지를 가궁히 여겨 눈물을 흘리는 만며느리를 보고 우리가 올면 미국놈들이 좋아한다고 하면서 《...전쟁에 나갔다가 오룩이 성해서 돌아오는것도 좋지만... 제 육신을 바치는 사람은 몇곱절 더 훌륭하다고 이 어린 생각한다...》고 일깨워준다.

어머니는 이처럼 만며느리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르도록 교양할뿐아니라 두눈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둘째아들도 전선에서 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속 충성의 꽃을 피워나가도록 이끌어준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당의 의도를 모르고 현실에 뒤떨어진 소리를 할 때 누구보다 걱정하면서 여러날밤을 새워 짠 무명을 팔아 라지오를 사옴으로써 그가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듣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변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한다.

어머니는 또한 옥성이가 자기 어머니의 강요에 못이겨 결혼문제에 대한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을 때에도 그가 자신의 앞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지 못하는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그에게 평양의 하늘을 지켜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웅을 욕되게 할

생각은 말라고 절절하게 타이른다.

이처럼 영화는 어머니가 자기 가정과 가까운 사람을 혁명화, 유일사상화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에 의하여 교양된 아들과 머느리가 이웃을 혁명화하고 조합원들을 교양하여 온 마을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된 혁명적대가정으로 이끌어어나가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사심없는 방조로 당의 의도를 잘 알게 되고 주체형의 맑은 피로 심장의 고동이 뛰게 된 정철은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당의 축산정책을 헐뜯는 불순분자들의 비방중상도 잘 가려듣지 못하였지만 돼지독살사건과 관련된 투쟁마당에 나와서는 결연히 일어서서 당정책을 결결히 옹호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당의 은덕을 심장깊이 지니고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도록 일깨워준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그를 보고 누가 감히 혁명대오에서 떨어진 불구자라고 하겠는가. 정철의 이런 활동에 의하여 반당종파분자들의 꾀임에 흔들리던 웅삼로인이 마침내 개조되고 옥성이라도 참된 삶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충격을 받고 자신을 혁명화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와 정철에게서 혁명적영향을 받아 자신을 혁명화하는 옥성은 자기만이 낡은 료리도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는 보람찬 길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양하여 새생활의 길에 들어서도록 한다.

영화는 사람들의 혁명화, 유일사상화과정을 보여줌에 있어서 실생활이 그러한바와 같이 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난판과 싸우는 어머니를 고무하고 정철이로 하여금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도록 신심을 북돋아주며 옥성이가 옳을 길로 나가도록 타이르고 그의 가정에 찾아가 어머니일가의 모범을 따르도록 그 부모들을 교양하는 리당위원장의 형상은 얼마나 소박하고도 생동한가. 특히 어머니가 역수로 퍼붓는 비발속으로 달구지를 물고갈 때 그 뒤에서 진탕에 빠진 달구지바퀴를 떠밀어주는 리당위원장의 형상은 난판과 싸우는 우리 인민에게 힘을 주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는 우리 당의 숨결이 그 어디에나 미치고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유일사상화 과정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사회에 이르기까지 점차 대중운동으로 벌어져 마침내 반혁명분자를 제외한 조합원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교양개조해가는 과정으로 되고있음을 예술적화폭으로 설득력있게 형상화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이처럼 가정혁명의 사상적 내용과 그 방도를 당정책적요구의 높

이에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을뿐아니라 그 형상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성과들을 시사하고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문예리론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사건들의 선택이 항상 인과적관계로 얹혀져야 하며 하나의 정황은 반드시 많은 사건을 야기시키는 계기로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그가 창조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의 이 요구를 옳게 관철한것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영화의 극조작에서 중요한 정황의 하나인 돼지독살사건장면만이라도 들어보자.

새끼 뱀 어미돼지가 반당분자들의 해독행위에 의하여 죽었다는것이 아직 판명되지 못하였던 그때로서 이 정황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축산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오던 반당종파놈은 어미돼지를 죽이기만 하면 어머니가 축산을 계속하겠다고 더는 우기지 못하리라 타산하고 자기가 돼지를 죽이게 하고서도 시치미를 뚝 따고 역정을 쓰면서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돼지우리를 늘인다, 새끼를 받는다 하는 일을 일체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놈의 이 말에 발맞추어 그 줄개들도 돼지를 죽인 책임이 어쨌다느니, 변상을 시켜야 한다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어머니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만일 돼지가 죽었다는 그 한가지의 사건에 위압되어 어머니가 일어서지 못한다면 이 조합에서 당의 축산정책은 관철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돼지의 독살사건은 어머니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에게 처음 불리한 정황으로 되고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비롯한 긍정인물들은 반당종파놈들의 그 어떤 음흉한 모략에도 휘여들지 않고 오히려 그놈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마침내 불리하게 조성되었던 정황을 급전시켜 이번에는 반당종파분자들을 단죄하고 당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무대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 정황은 부정인물이 의도하였던바와는 달리 정철이가 단연 일어서서 당정책을 옹호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선동하는 계기로 되었으며 놈들의 꾀임에 흔들리던 웅삼로인을 긍정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개조의 계기로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옥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량심과 신념이 가리키는대로 자기의 삶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영화는 또한 장면을 바꿀 때마다 대조의 수법을 적절하게 리용한 좋은 경험도 보여주고있다.

반당종파분자놀이 도에서 내려오자 《부위원장》은 긴장한 생산로력을 떼서 늪에 가서 고기를 잡고 야외술놀이판을 벌리는가 하면 그와 대조되게 어머니는 돼지먹이에 쓰려고 자기 집의 강냉이를

내다가 망질을 한다. 그런가 하면 농민들이 한창 일하는 대낮에 술추념을 한 국장놈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와서 뻔뻔스럽게도 농민들의 생활이 어찌구어찌구 하면서 당의 축산정책을 교묘하게 반대한다.

자신의 한몸을 다 바쳐서라도 어떻게 하면 당의 축산정책을 받들어나가겠는가를 생각하며 아글타글 애쓰는 어머니와 농민들의 생활을 정면에 내걸면서 당의 축산정책을 반대하는 종파분자놈의 행동선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영화는 이렇게 대조적인 공부정신을 부단히 교차시켜 폭발점으로 이끌어다가다가 드디어 반당종파놈이 어머니의 만머느리인 관리위원장을 불러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추궁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야기시키고 그것으로써도 사건을 제대로 풀지 못하여 조합폐지를 팔려는 놈들의 책동을 다시한번 대조시키고나서 드디어 조합회의에서 공부정간의 일대 투쟁을 벌리는 방법으로 그 충돌을 폭발시키고있다.

영화는 이렇게 대조적인 수법에 의한 감정축적을 조성시켰다가 그것을 폭발시키는 방법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는가 하면 매 장면들에서 생활을 분석하거나 파장함이 없이 우리 농촌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생활 그대로를 솔직하게 그리고있다. 언제나 부지런한 근로인민이라는것을 시사하기 위하여 들에 가나 집에 있으나 늘 손에서 일감을 놓지 않는 어머니, 농촌전경을 섬세하게 풍기는 생활상태의 묘사, 참으로 그 모든 화폭들은 농촌현실 그대로이다.

그런가 하면 영화적수법에 의한 생활세부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든 장면들도 적지 않다.

어려울 때마다 전선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만아들의 군복을 꺼내 련대장의 견장과 앞가슴에 단 훈장을 쓰다듬어보면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는 어머니, 만아들의 그 군복밑에 둘째아들의 군복을 차곡이 쌓아두는 어머니, 이 하나의 세부만을 놓고서도 우리는 어머니가 만아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칠 충성심을 굳게 다지는 심정을 형상적으로 감득하게 된다. 바로 그런 어머니이기에 그는 자신의 일신상에 불행이 닥칠 때는 단 한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무칠 때와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으로 둘째아들이 눈을 뜨고 돌아올 때 비로소 처음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고야마는것이다.

이 장면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늘 옆에

두고있던 어머니가 꿈만 같은 현실에 아직 익숙되지 못하여 눈을 뜨고 대문을 활 열어제끼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야아, 넘어질라》하고 열결에 말을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그 말에 《어머니, 전 이젠 소경이 아닙니다.》라고 감격에 목이 메여 대답을 올리는 정철의 모습은 참으로 진실한 생활감정 그대로이다.

영화는 이렇게 주인공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적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놓치지 않고 깊이 파고들어 섬세하게 묘사하고있는가 하면 작품의 종자를 해명하는데 필수적이 아닌 장면들을 대담하게 함축한 측면도 보여주고있다.

어머니의 두 아들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웠는가 하는 장면을 회상수법으로써라도 삽입하지 않은것이라든가, 당의 축산정책을 그토록 반대하던 반당종파분자놈들의 운명처리를 화폭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정철이와 그의 안해, 리당위원장이 렬차칸에서 주고받는 대사를 통하여 전달한것 등이 그 실례로 된다.

이렇게 이 영화는 필요한 장면에서는 생활세부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만 주제해명에 필수적이 아닌 장면은 대담하게 함축하고 비약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얼마나 뜨거우며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얼마나 굳센가를 보다 더 명백히 보여줄수 있었으며 작품구성의 전일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밖에도 이 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회의에서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소박한 대사들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씌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참으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그가 제기하고있는 사회적문제성의 심오성에 있어서나, 그 사상적내용의 높이에 있어서나, 형상적화폭의 진실성과 참신성, 작품구성의 완벽성에 있어서 최근년간 영화예술부문에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작이다.

우리는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거둔 이러한 사상예술적성과에서 그 우수한 경험을 따라배워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작품창작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발걸음

백보흠

송화료양소 회계원 박련희는 지나간 생활의 한걸음 한걸음들이 얼마나 보람찬 것이었는지 가슴뿌듯이 느끼며 니탄탄광마을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득한 《하늘의 별판》인 풍수덕고원에서는 눈보라가 창살에 찢린 맹수같이 사납게 울부짖으며 밀려다녔다. 하늘을 휘젓고다니는 눈보라의 광란에 겁을 먹은듯 탄광마을 한난계의 수은주들은 밑으로 다 움츠러들어간다.

춥고 감때사나운 북방고원의 이 성미로 하여 지금련희의 가슴은 오히려 그리운 옛고향을 찾은듯 아늑한 마음에 젖어있었다. 어쩌면 먼 옛일같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해보면 어제인듯 기억도 새로운 처녀시절,련희는 여기서 처녀측량소대장으로 지형도를 그렸었다.

지곳게 달라붙는 깔따구들에 살점을 뜯기우고 수령길 감탕물에 정쟁이를 절구면서 풍수덕의 지형도를 그리던 그때로부터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로, 측량생활과는 인연이 멀어진 룡양소의 회계원이 된 련희다.

비록 어깨우에서 측량기를 내려놓았지만 련희는 그동안 처녀측량공들의 많은 웃음과 눈물이 깃들어있는 옛일터인 풍수덕고원의 측량생활을 어느 한때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풍수덕의 지형도를 그려낸 처녀측량공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 듯싶었다. 무성한 나무와 무시무시한 흔들레판과 포악한 맹수들의 보금자리만이 있었던 이 황무지에 유연탄광과 카리비료광산이 생기고 니탄이 나올 때까지도 측량공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리라. 먼 후날에도 웅장한 건물과 광산, 언제 따위의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설계가들과 지질조사원들, 광부, 연공, 건측공들을 놓고 존경 어린 추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첫 길잡이로 나섰던 측량공들이야...

측량공들이란 지형도를 그려놓고 자리를 뜨면 그것으로 영원한 리별이 되는 듯싶었다.

그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생활이어서 측량기사인 련희는 힘을 들어 미립을 띄운 측량기술과 지식을 아낌없이 내버리고 룡양소회계원으로 되었는데 모른다. 하지만 지금 련희는 지나간 측량의 길위에 펼쳐진 아득한 니탄대지를 바라보니 자기들이 찍어간 측량의 자욱들이 얼마나 빛 있는 것인지 비로소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련희는 지금 니탄탄광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옛일

터를 찾아오고 있었다.

니탄탄광에서 지형도를 작성한 처녀측량소대장을 긴급히 찾고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련희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눈이 둥그래졌었다. 마침 출장을 떠나려던 바쁜 서술에 전화편락을 받은 룡양소 소장도

《모를 일인데, 니탄탄광에서 련희동물 좀 보내줄 수 없겠는가 사정하더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려다가 차시간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중요한 탄광인데 어서 가보우.》하고 서둘러 전하고 떠나갔었다.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룡양소 책임담당의사인 남편은 은근히 근심까지 했었다.

풍수덕니탄탄광으로 말하면 한랭전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름이 높아진 탄광이었다.

별방니탄과는 질적으로 다른 풍수덕니탄은 주민 연료로도 쓸 수 있었지만 한랭전선의 심술궂은 바람속에서 논밭의 곡식들을 보호하는 밀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 얼마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풍수덕니탄탄광사람들이 나라의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귀중한 선물까지 내려보내주셨다.

련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고 직원들앞에서 풍수덕의 측량생활을 즐겁게 회고하였었다. 그러나 이 탄광에서 10년전의 측량소대장을 찾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련희였다.

련희는 탄광사무실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옛일터를 다시 한번 쪽 둘러보았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정말 몰라보게도 달라진 풍수덕이었다.

아득히 넓고 인적이 하나 없이 적막하던 이 땅에 이제는 술한 살림집과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있고 무성한 숲자리와 진펄이었던곳에 가로세로 대통로가 띄어져서 자동차, 트랙트르들이 분주히 오고갔다.

바퀴에 쇠사슬을 친 《자주》호가 깊은 눈자국을 내며 시무실앞으로 다가왔다. 그뒤에서 트랙트르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돌격대청년들이 행진곡을 부르며 밀려온다.

갑자기 어디선가 산이 무너지는듯한 천둥같은 소리가 울리고 땅이 움썹거렸다. 뒤를 돌아보니 은빛 설광과 저녁노을이 한데 어울려 신비로운 채색을 펼친 지평선쪽에서 화산이 터진듯 불기둥과 돌모래

가 불끈 솟아오르고 혹은 떨어져내리고있었다.

련희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새어나왔다.

처녀측량공들이 표척을 세우며 다니던 그때는 이 끝없이 넓은 땅에 애오라지 보위색천막이 나뉘를 펴고있었다. 거기서 밤이면 처녀들이 우등불을 지펴놓고 수리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적을 물리치느라 노래를 부르곤했었다. 밝은 한낮에도 들리는 인적기란 측량선을 띄우기 위해 나무를 찍는 도끼소리와 측량기를 세워놓고 표척수를 부르는 처녀들의 애타는 목소리뿐이었다. 외롭고 무섭고 힘겨운 때가 많았다.

어느 날인가 단 한번 지방 신문기자가 풍수덕측량공들을 찾아온 사실이 있었는데 그는 처녀들의 생활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동무들은 영웅이요! 동무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무인지경의 땅에 인간의 첫생활을 펼쳤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동무들은 영웅이요!》하고 흥분하여 뇌이였다.

처녀들은 기뻐했으며 자기들의 생활이 세상에 소개될 신문을 기다렸다. 그러나 측량기를 떠메고 풍수덕을 떠날 때까지도 신문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길을 처음으로 걸어간 우리들을 잊지 않고있어-》

련희는 깊은 회상에서 깨어나자 마치 그날의 처녀측량공들이 옆에 서있거나 한듯 조용히 속삭이였다.

이윽고 사무실 현관으로 들어선 련희는 책임일꾼들의 방에 모두 자물쇠가 매달려있어 《기술준비실》이라는 문패가 붙어있는 첫 방문에 대고 조심스레 손기척을 했다. 응대가 없었다.

그는 방문을 빠끔히 열고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라크를 칠하여 반들반들하니 윤기가 나는 책상들에는 입자들이 없었다.

련희는 얼마동안 망설이다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톱밥난로밑에 싸늘하게 식은 채가 무드기 쌓여있고 담뱃마다 서리가 하얗게 붙어있었다. 어찌면 며칠동안 주인없이 비어있은 방 같았다.

《어찌나, 여기서 좀 기다릴까?》

련희는 문가에서 발뽕발뽕하다가 얼음살이 하얗게 오른 창문결로 다가갔다.

이때 복도쪽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서른살안팎의 키가 성큼한 청년이 찬기운을 확 풍기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뽕이리장갑을 낀 그의 한손에는 하얗게 성애가 붙린 털모자가, 다른 한손에는 기다란 도면두루마리가 들려있었다.

《주인 없는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됐어요.》

련희는 첫눈에 유순한 인상을 주는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죄하듯 어쭙은 미소를 그리였다.

《괜찮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어디서? ...》

청년은 레철있게 의자까지 권하고 련희의 하얀 양털목도리며 밤색외투를 눈여겨 바라보았다.

《송화료양소에서 왔어요. 탄광에서 찾는다고요.》

《아, 그러면 아주머니가 바로 박련희측량소대장이 아닙니까?》

《예, 그래요.》

련희는 반색을 하는 청년앞에서 무안을 타는 소년처럼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측량소대장,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옛 칭호가 《회계원》이라는 말이 몸에 배여있는 그의 가슴을 아릿하게 흔들었다.

《그렇구만요. 먼길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래일 오실듯싶어 기다렸지요.》

청년은 자기를 소개하였다. 탄광 설계기사 채동식이였다.

《가만, 그런데 방이 이렇게 차서 어쩐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청년은 손에 들었던것들을 책상우에 던지고 난로앞에서 불쏘시개를 마련한다, 재를 퍼담는다 야단스레 서둘렀다.

자기가 지금까지 밖에서 얼었던 몸은 생각지도 않고 손님의 추위만을 걱정하는 청년의 따뜻한 인정을 느끼자 련희는 불이 없어도 온몸이 후더워울랐다,

련희도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바깥쪽에 톱밥을 날라왔다.

채동식이 능숙하게 지핀 불이 어느새 욱옥 소리를 지르며 번져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제 난로결으로 어서 오십시오. ...참 측량을 하구 여길 떠나신후 처음 와보시지 않습니까?》

채동식은 난로앞에 의자를 끄당기고 뜻있게 련희를 바라보았다.

《예. 10년만이지요. 정말 그림던 옛고향을 찾아온것 같아요. 그런데 탄광에서 저를 왜 부른답니까?》

《차츰 이야기하지요.》

채동식은 한참만에 무겁게 입을 열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후끈하게 온기가 퍼지자 성애가 붙렸던 천정에서 물이 툭툭 떨어졌다. 유리창들도 즐편해졌다.

채동식은 이윽고 나무꼬챙이로 나무통에 담겨있는 톱밥을 쿡쿡 찌르면서 말하였다.

《아주머니를 보내주도록 제기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예-》

련회는 반문도 아니고 대답도 아닌 길게 떨리는 소리를 내며 동식의 얼굴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동식은 한동안 심각한 표정을 짓고 빨갛게 달아 오른 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우리 탄광에서는 얼마전에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삭도탑준공식을 아주 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님 부르지 못한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참, 별말씀을...》

련회는 발가우리하게 피어난 얼굴에 미소를 그렸다. 탄광사람들이 십년전의 측량공들을 잊지 못해 하는것을 보니 련회의 가슴에는 행복감과 안도감이 찾아들었다. 그는 문득 어떤 즐겁고 기쁜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있다는 예감을 느끼며 언지시 동식의 표정을 살피었다.

동식은 창밖에 고개를 돌리고 가라앉은 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탄광에 배치된 첫날부터 아주머니네가 만든 지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지난날 측량공들이 여기서 얼마나 수고했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이 지형도의 주인들이 녀성들이었다는것을 알게 되던 날 많은것이 생각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셨다니 정말 고마와요.》

련회는 고개를 다소곳이한채 조용히 대꾸하였다. 그는 진정 보통사람들이 쉬이 잊어버릴수 있고 생각 못할수 있는 측량공들의 숨은 노력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젊은 기사에게 존경과 고마움이 갔다.

채동식은 얼마후 도면두루마리를 책상우에 펼쳐 놓았다.

너무도 눈에 익은 풍수덕지형도가 아닌가!

벌떡 일어난 련회는 지형도앞으로 다가갔다. 녀성측량소대의 력사가 담겨진 그 부드럽게 굽이지며 흘러간 지형도의 연보라색 등고선들을 바라보자 련회는 오래동안 헤여져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처럼 가슴이 마냥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채동식은 한손으로 처녀들의 숨은 위훈을 더듬듯이 지형도를 어루만지었다.

《보십시오. 지형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합니까. 이 지형도를 들기만 하면 마치 우리의 누나들이 <여기는 길새가 사나우니 조심하세요. 여기는 진펄이 많아서 걷기가 힘들거예요.> 하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속삭이며 길안내를 해주는듯싶어 가슴이 뜨거워지군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형도가 있었기때문에 삭도탑이 설계되고 니탄개발지가 이렇게 빨리 마련될수 있었지요.》

련회는 동식의 갈린듯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이 뻘근하여 눈을 감았다. 일찌기 맛보지 못했던 생

활의 희열이었다. 지그시 눈을 감았으나 처녀시절의 꿈과 랑만이 되돌아온듯 그의 마음은 하늘로 땅으로 활개치며 날아갔다. 어느덧 련회는 탄광개발자들이 보내주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화려한 꽃다발우에 동동 떠받들린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동식의 목소리가 또다시 은근하게 울려오기 시작하였다.

《정말, 이 지형도를 보기만 하면 조국땅의 높이와 크기뿐만아니라 무게까지도 느끼게 했지요. 모든지 다 명확했습니다. ... 그런데 뜻밖에도 며칠 전에는 전혀 리해할수 없는...》

련회는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채동식의 가느다란 한숨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지형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는 동식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바로 이때 얼굴이 시꺼멓게 언 긴장한 청년 하나가 손기척도 없이 불쑥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요란한 발자국소리를 내며 동식의 책상앞으로 다가서더니 대뜸

《여보, 채기사동무... 이거 어찌자는거요. 보충설계지 뭔지 빨리 넘겨줘야 일하질 않겠소.》 하고 꾸념하듯 뇌까렸다.

《거 자꾸 우물에서 송충 달라는 소릴 그만 하려두. 며칠 좀 참소.》

채동식은 돌연히 나타난 그 청년과 무릅없는 사이인듯 통처럼 말을 건넸으나 얼굴엔 당황한 빛이 떠올랐다.

《기다리라, ... 거 뭐요, 측량공인지 뭔지...》

《중대장동무!》

채동식이 웬일인지 청년의 입에서 터지는 말을 급기야 막아버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난처해하는 기색으로 떠듬거리면서 련회를 소개하였다.

련회는 동식의 앞에서 우락부락하는 그 청년이 니탄탄광 철도건설중대 중대장이라는것을 알고 다정한 인사를 보냈다. 그런데 저편에서는 한순간 놀라는듯하다가 인차 무표정한 얼굴로 련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련회는 얼굴에 달라붙는 그 눈빛이 너무도 강렬하여 외면하였다.

《음, 나도 모르겠소...》

청년은 기분없이 중얼거리고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바람처럼 나가버렸다.

어정쩡해진 련회의 시선이 동식의 얼굴을 찾아갔다. 번개처럼 들어왔다 나간 중대장의 거칠은 행동은 한껏 부풀어올랐던 련회의 가슴에 알수 없는 불안을 끼여주었다.

《기사동무, 무슨 일때문에 절 부르셨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시겠는데 오늘은 들어가 쉬십시오. 래일

아침에 저하구 현장에 직접 가서 제기된 문젤...》

《아니예요. 현장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곧 가지요 뭐.》

련희는 저으기 떨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련희는 동식의 뒤를 따라 깊은 의혹에 잠긴채 달 그림자가 비친 어둡시근한 이갈숲속을 걸어갔다. 세찬 눈바람이 씩씩이 숲을 흔들었다.

니탄마을의 먼 변두리가 되는 이 숲속에서는 구슬픈 밤새의 울음소리만이 머리우에 내려앉을뿐 쇠판을 두드리는 금속성 여운이며 둔탁한 발동기소리와 서로 찾고 부르는 사람들의 랑만에 찬 목소리가 멀리서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갈숲속을 빠져나가자 눈발진너 저 외딴곳에 반토굴처럼 기동허리 절반이 눈에 파묻힌 기다란 귀틀집이 바라보이였다.

《저 큰집이 바로 철도건설중대 합숙입니다.》

그때까지도 련희를 찾게 된 사연을 말하지 않은 채 묵묵히 눈길을 헤치던 동식이 귀틀집을 가리켰다.

《아니, 여기에 철길을 놓는가요?》

련희는 조금 놀라며 동식을 쳐다보았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지나간 측량의 길들을 아직 잊지 않고있는 그는 지금 자기가 동계수쪽에 걸어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진펄과 진대나무가 많고 이끼와 나무풀들이 무성해있던곳, 여기서 련희는 처음으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았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련인의 첫 편지를 읽었었다. 여기로는 우편통신원도 찾아올수가 없어 한주일에 한번씩 처녀들이 겨끔내기로 삼십리길을 걸어 산중역의 역장실에서 편지를 날라오곤했었다.

련희의 애투한 그 추억을 소중히 묻어놓은듯 하얀 눈발이 그날의 진펄과 진대나무와 검푸른 이끼발들을 모조리 덮어버렸다.

얼마후에 키를 넘는 눈무지를 량옆으로 헤쳐놓은 기다란 눈골짜기가 시작되였다. 철길이였다.

《우리는 한달전부터 여기서 철길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했지요. 철도부문이 전문이 아니지만 니탄수송문제를 해결하자면 반드시 구내철길을 내야 했기때문에 달라붙었습니다.》

동식은 눈에 파묻힌 철길발침대들을 밟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진펄이 많기때문에 전투가 조련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벌써 10리길을 이어냈으니 절반은 나간 셈입니다.》

《정말 수고들하는군요. 그전날 우리는 측량을 하면서 이런 황무지에 철길이 나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련희는 먼 하늘을 보며 말하였다.

이지러진 차거운 달덩이가 눈보라속에서 숨박꼭질을 하고있었다.

동식은 마주 불어오는 바람때문인지 고개를 짓수긋하고 걸어갔다.

《우리는 삭도탑준공식을 하는 날 어버이수령님께 남은 한달동안에 철길공사를 끝내겠다는 맹세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탄광을 늘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셔두 우리들이 드린 그 맹세문을 읽으셨을겁니다.》

《동무들은 꼭 해낼거예요.》

련희는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한가득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속삭이였다. 얼마후 채동식이 걸음을 멈췄다.

련희도 뒤따라 서버렸다.

《아주머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련희는 앞을 내다보았다.

아득히 뻗은 10리 철길이 여기서 몽청 끊어져버렸다.

《제가 아주머닐 부르게 된것은 이앞에 있는 늪때문입니다.》

동식은 도면마리를 들어 통나무들과 얼음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눈밭을 가리키였다.

련희는 의혹에 찬 눈으로 사망을 휘둘러보았다. 모든것이 눈에 덮이여 어디에 늪이 있는지 알수없었다. 그전에 측량을 할 때 여기서 늪을 보았던지 기억도 아리송했다.

련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말없이 동식의 손에서 도면을 받아쥐였다. 긴장해진 그의 눈길이 동식의 전지불에 비쳐진 도면우로 빠르게 헤엄쳐다녔다.

《아니, 도면엔 늪이 없는데요.》

《예, 도면엔 늪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실지 철길을 놓자구보니까 여기가 늪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철길공사를 잠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예?》

련희는 눈이 둥그래졌다.

《우리는 늪에다 철길다리를 놓자고 술한 역사질을 했지요. 그러나 늪의 지질조건이 나빠서 끝내 그 만두고말았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내긋는 채동식의 입에서 연기같은 김이 날리였다.

련희는 쇠망치에 정수리를 되게 얻어맞은듯 머리속이 뻥하고 눈앞이 아찔했다.

한줄기 세찬 눈바람이 몰려오더니 마치 지난날의 측량의 길을 돌이켜보라는듯 차디찬 눈가루를 련희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쳤다.

《아니예요. 절대로 그럴수가 없어요.》

련회는 연거퍼 도리질을 하고 지형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높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럴수가 없겠는데 정말...》

련회는 통나무들이 널려있는 눈밭으로 뛰어 들었다. 얼음조각들을 들어보고 짝 얼어붙은 통나무들을 발길로 차보기도 하면서 높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돌아쳤다.

문득 나무통옆에 커다란 얼음구멍이 나타났다. 허리를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거무튀튀한 물이 어떤 괴물처럼 련회를 노려보며 일렁거렸다.

《정말 모를 일이군요. 높을 빠뜨리다니. 그럴수 없는데...》

련회는 신음하듯 중얼거리었다.

《글쎄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풍수덕의 지형도에는 자그마한 홈타구니 하나 빠진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어쨌든 잘못된 눈이 덮였다구 현장답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실 한겨울에 철도설계를 한 채동식은 어디나 눈이 키를 넘게 쌓여있는 조건에서 현장답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설계를 통하여 풍수덕의 지형도를 너무도 확신하였기때문에 비록 현장답사가 어설프게 됐지만 측량공들의 깨끗한 량심수에 철길을 놓는다고 믿으며 아무런 거리낌없이 설계도에 철길선을 그었던 동식이었다.

《그러니 이젠 어쩌면 좋아요?》

《아차피 철길을 눈옆으로 돌리는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채동식은 철길을 눈옆으로 돌리기 위한 보충설계도를 만들어야했는데 눈이 덮였기때문에 눈의 룹박을 전혀 짐작할수 없는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래 채동식은 지난날 측량공들이 어떤 이유로 높을 못그렸는지 알수 없으나 이제라도 눈의 룹박을 빨리 확정하려면 풍수덕의 지형습성을 누구보다 잘알고있고 늘주변의 측량자료들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지형지물의 특성을 예리하게 판단할줄 아는 측량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기에 할수없이 련회를 찾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형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설계변경문건을 내자면 지형도작성자의 수표를 받는 실무적인 문제도 제기된다고 하면서

《사실 처음엔 제가 지형도를 가지고 아주머닐 직접 찾아가려고 생각했었지만 이와 같은 사정때문에 아주머니한테 먼 걸음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고 거듭 미안스러워했다. 동식의 말소리는 바람소리에 흩어지며 멀리 꿈결에서처럼 련회의 귀에 들려왔다.

련회는 멍청하니 서서 저쪽 눈밭에 널려있는 시뻘겋게 녹이 쓴 철근들과 눈덩이가 붙은 콘크리트

벽체며 통나무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차디찬 눈물속에서 다리공사를 벌리는 광경들,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중대장의 강렬한 눈빛이 새삼스레 떠오르자 련회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가스로 참으며 되뇌이었다.

《정말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모든걸 알아보겠어요.》

늘때문에 생각이 깊어진 련회는 그날밤 자기가 어떻게 역전까지 걸어왔으며 어떻게 남행열차에 올랐고 옛 직장인 중앙측량대 현관문으로 들어갔는지 알수 없었다.

이튿날 뜨물빛처럼 시뻘겋게 흐린 하늘에서 푸실 푸실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온몸에 맞으며 또다시 풍수덕을 찾아오는 련회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오랜 세월 문건보관실 철문속에 갇혀있던 10년전의 측량야장들을 들춰보는 과정에 모든것이 석연해지자 련회는 건딜수 없는 번민때문에 아침, 점심을 번지는것도 다 잊고 풍수덕을 찾아왔다.

피발이 선 눈으로 설계도면을 불안고 씨름하는 채동식을 보자 련회의 마음은 한층 번거로웠다.

채동식은 맥없이 들어서는 눈투성이의 련회를 보고 마주 달려와서

《별써 오십니까, 이거 정말 수풀 끼쳐서 안됐습니다.》 하고 반색하며 난로결에 의자를 내놓았으나 련회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책상모서리를 짚 붙들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가셨던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동식은 침울한 련회의 표정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모든것이 명백해졌어요.》

련회는 채동식의 설계도면우에 지형도 한장을 올려놓고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채동식은 붉은 점들이 드문드문 박혀있는 지형도를 긴장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 붉은 점들이 표적을 세워놓고 측량한 지점들이에요.》

련회는 의자가름대에 이마를 비비며 앓는 사람처럼 가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새 높이 발견된 구역에는 붉은 점이 없었다. 채동식의 얼굴에 의혹의 빛이 어리었다.

《왜 이렇게 측량점들이 드문드문 찍혀있을가요?》

측량점들이 성글다는것은 그만큼 측량을 세밀히 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련회는 채동식의 의문에 거리낌없이 대답하였다.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사실 측량점을 드문드문 성글게 박은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새 늪이 발견된 동계수북쪽구역은 풍수덕에서도 가장 지형이 평탄하고 단조로와 측량점을 조밀히 박을 필요가 없는 구역이었다. 그것은 련희네 지형도의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의 높이의 차가 5미터인데 동계수북쪽구역은 지형기복의 차가 평균 1미터도 되지 않는 무연한 대지이기때문이었다. 그러니 이런 지역에서는 측량점을 조밀히 박지 않고도 지형도를 그릴수 있으며 따라서 기술규정에도 그것이 허용되고있었다.

《표적을 드문드문 박았기때문에 늪을 보지 못한 게 아닙니까?》

《물론 나무가 많으면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형이 평탄하고 나무도 무성치 않았으니 그 늪은 측량점 <1005>에 표적을 세운 측량공의 시야속에 들어있었을거예요.》

《그런데 왜 늪을 그리지 못했을까요?》

채동식은 점점 더 깊은 의혹의 심연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련희는 그 질문에 위경련을 일으킨 사람처럼 몸을 비틀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얼마후에야 듣기 방속에서 측량야장을 꺼내었다.

풍수덕의 증견자인 10년전의 측량기록문건은 채동식의 가슴을 쿵 찢었다.

측량점 《1005》를 적은 측량야장의 《날씨》란에는 《오전-눈, 오후-흐림》이라고 써여있었다.

그렇다. 련희네는 풍수덕의 측량작업을 끝내갈 무렵, 살얼음이 지고 첫눈이 덮였던 때에 이 구역을 서둘러 측량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새 늪의 얼음장을 덮어버린 눈이 먼발치에 서있는 측량공의 눈을 속일수 있었다.

《아, 그랬구만... 결국은 측량공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규정에 빈틈이 있는게 아닙니까?》

《아니예요. 측량점은 비록 드물게 박는다 해도 측량점들사이를 교차법으로 행군하면서 지형지물을 관찰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측량점 《1005》에서부터 측량점 《1006》을 향하여 직선행군을 할 때에는 새 늪을 비키게 되어있지만 측량점 《1005》에서 《1007》을 향하여 직선평행군을 한다면 새 늪을 통과하게 되어있었다.

련희는 그때 직선평행군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으나 측량야장에 《측량점들사이에 다른 지형지물이 없음》이라는 자기의 글자가 너무도 명백하게 적혀있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만약 늪을 통과했다면 아무리 눈이 덮여있어도 첫눈인 조건에서 미끄러운 얼음판을 감촉했을것이 아닌가. 살얼음이 꺼져 물에 빠질수도 있었다....이

것은 내가 행군을 조직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한다.)

련희는 10년전의 일이였지만 측량문건들을 보며 조용히 더듬어보니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었다.

떨어지는 첫눈을 보며 초조와 불안속에서 측량을 서두르던 일, 이제 풍수덕의 지형도를 안고 본부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달콤한 꿈...

또한 련희는 그때 적막한 황무지를 바라보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하여 아무런 혜택도 베풀지 않는 불모의 땅이라고 생각했었다.

여기에는 니탄마저 없으니 지질조사원이 오지 않을것이며 진펄이 많고 진대나무와 어설픈 잡관목뿐이니 농장개간지라도 될수 없고 벌목공이 기계톱을 가지고 찾아오지도 않을것이다.

(옳아, 나는 그때 풍수덕의 본산구역에서는 지하보물을 찾으러 지형도를 들고 뒤따라올 지질조사원들의 눈을 은근히 두려워했지만 이 구역에서는 누구도 우리 지형도를 시비하며 뒤따라올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지. 측량공의 발걸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는 그런 가치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바로 그때문에 일을 설치었어. 아...)

련희는 측량의 길에서 잠시 헛디딘 그 한순간의 걸음때문에 먼 후날까지 조국이 얼마나 손상을 받게 된다는것을 모른채 10년세월을 마음 편히 살아온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아버이수령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채이기 위하여 조국의 한지점도 지형도에서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늘 소대원들에게 일러주던 자기가 아닌가!

《동식동무, 제가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닐수 있을까요.》

《있을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알고보니 더 한층 측량공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눈이 떨어질때까지도 천막을 거두지 못하고...》

채동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함박눈을 맞으며 표적을 세워나가던 측량공들의 모습을 그려주듯 하늘을 가득 메운 소담한 눈송이들이 여전히 소리없이 떨어지고있었다.

《동식동무, 눈차(탄광에서 창안한 눈차는 차)만 대주면 제가 래일중으로 늪의 룹곽선을 완전히 확인해드리겠어요.》

련희는 송글송글 내뿜힌 이마의 땀을 씻으며 애원의 눈길로 동식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이제 아무 근심을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측량점들을 참고하면 우리 힘으로 늪의 룹곽을 빨리 확인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예요. 여기서는 늪이 있는곳에 대체로 위험

한 수렁발이 있기때문에 철길을 돌리자면 수렁발까지 룬곽선을 그어야 될거예요. 겨울철에 수렁발과 보통진펄을 구분하는것이 힘든 일이에요.》

채동식은 도면우에서 오래동안 연필방아를 쥘으며 생각에 잠겨있다가

《직장에서두 기다리고 아이들도 어머닐 찾겠는데...》하고 중얼거리었다.

《료양소에는 전화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비록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애들도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련희는 목이 껍 메여올라 말을 중증무이하였다.

《부탁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눈차운전수 한사람만 동원시켜주시면...》

련희의 너무도 강경한 거동에 채동식은 뜨거운것을 느끼며 얼굴을 수그리었다.

련희는 이들동안에 늪과 수렁발의 룬곽을 지형도에 그려놓고 현장에서 철길이 돌아갈 한쪽 변두리에 표식말뚝까지 박았다.

새 늪은 지금까지 풍수덕에서 제일 큰 늪이라고 한 수렁늪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었다.

련희는 닭알모양의 긴 타원형을 이룬 룬곽선안의 몇개 지점에 늪물의 높이까지 적어넣었다.

련희는 늪의 정체를 다 까밝히고 채동식의 손에 도면을 넘겨주고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질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고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쓰리고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의 구름장이 떠돌았다. 처음에는 빨리 룬곽선을 그려내야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때문에 미처 몰랐었는데 일손을 떼고보니 무엇인가 가슴에 켜기어 그대로 떠나갈수가 없을듯싶었다.

련희는 동식의 권고에 못이겨 말동무도 없는 호젓한 손님방, 부드러운 포단우에 몸을 실었으나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련희는 잠자리에서 뒤치닥거리다가 끝내 채동식을 찾아가게 되었다.

마침 보충설계도초안을 완성한 동식은 문득 들어서는 련희를 보자

《아니, 왜 주무시지 않습니까?》하고 말하고는 인차 즐거운 마음으로 수정한 설계도초안을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룬곽선을 볼 때 좀 당황했었지만 실지 따지고보니 그저 1키로미터의 철길을 더 놓는것으로 됩니다.》

련희는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새 늪까지 곧추 뻗어나갔던 철길선을 지워버린 자리가 첫눈에 띄었다. 동식은 고무지우개를 대고 그 지운 자리를 몇번 더 문지르고나서 파릿한 종이 밥들을 입김으로 훑 불어버렸다.

이윽고 련희는 진한 색채를 먹인 푸른 줄기가 새 늪의 붉은 룬곽선을 에돌아 저 수렁늪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흘러간것을 보았다.

문득 련희의 눈앞에는 곧추 뻗은 궤도를 따라 궤속으로 달리던 니탄렬차가 늪아근에 이르자 차츰 속도를 낮추며 멀리로 에돌아가는것이 아른거렸다.

드리고 만 측량의 한걸음이 궤속렬차에 제동을 걸게 된것을 생각할 때 련희는 그만 눈앞이 아득했다.

《아주머니, 몸이 편치 않았구만요. 이 며칠 너무 무리했습니다.》

채동식의 얼굴빛이 흐려졌다.

《아니예요.》

련희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고 멍하니 설계도를 내려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만약 지형도에 늪을 제대로 그렸더라면 동식동문 여기다 철길설계를 하지 않았겠지요?》

채동식은 련희의 말에 대꾸가 없이 고개를 숙이였다.

《정말 저희들의 주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한걸 생각하면...》

말끝을 맺지 못하는 련희의 입술은 일그러졌다. 그는 40미터의 늪너비로 하여 그 25배나 되는 구부러진 철길이 생긴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천근 무게로 짓눌리우는듯했다. 그것은 마치 조국땅의 한지점을 내버리고 멀리 에돌아간 자기의 구부러진 측량의 길을 그대로 그려놓은듯싶어 썩여지는 마음을 좀체로 목새길수 없었다.

무엇인가 안타까이 가슴을 드달기는 련희의 모습을 보자 동식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걸로 해서 너무 상심 마십시오.》

채동식은 늘 1미리의 작은 수치도 다투어온 측량 기사이기에 1키로미터의 철길선이 무척 큰 수자로 느껴질수 있다고 생각했다.

련희는 설계도면우에서 손끝으로 철길선을 여러번 덧그려보았다.

《동식동무, 참 철길디리를 놓다가 왜 실패했던가요?》

《늪물에 깔린 물렁물렁한 진흙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었지요.》

그 무른 진흙층때문에 철길다리를 놓자면 10미터이상의 굴착작업을 하고 특수세멘트를 몰쓰듯해야 했다. 이것은 거리에서는 비록 리익을 보지만 로력과 자재와 시간에서 엄청난 손해였다.

《품을 들이지 않고 다리를 놓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련희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두사람은 침묵속에서 오래동안 설계도를 들여다

보았다.

얼마후 련회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난로때문에 무더움을 느끼며 창문가로 다가갔다. 은하수가 남쪽으로 기울어가고있었다.

련회는 수없는 항성들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동식을 향해 돌아섰다.

《동식동무, 저...》

《말씀하십시오.》

《구부러진 철길을 볼수록 정말 마음이 별스럽군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측량공들이 남긴 지형도의 오점때문에 이 귀중한 철길건설이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심려하실가요.》

련회는 울먹거리었다.

채동식은 갑자기 의자밑이 불편해졌는지 자꾸만 불안하게 움직거리며 흐려진 얼굴로 설계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제사 련회의 고민이 무엇인지 느껴져 무거워진 머리를 젖힌 동식은 의자등에 몸을 내맡긴채 지친듯 눈을 감았다.

설계도에 줄을 긋고 점을 박는 자기의 마음이 너무도 단순하고 실무적이였다는 뼈저린 뉘우침이 일어났다.

(참으로 1키로메터의 레루의 값을 모르고 20리 남짓한 철길선을 설계하지 않았는가.)

문득 채동식의 귀에는 후날에 사람들이 이 구부러진 철길을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것이라는 련회의 목소리가 다시한번 들려오는듯했다.

자기의 설계도가 지형도의 오점을 내내 남겨놓고 측량공들의 가슴에 영원히 아픈 상처를 주게 될것이라고 비로소 생각하게 되니 그는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니탄열차를 몰아가는 기관사의 눈, 통근열차의 탄부들과 학생들과 출장원들의 무수한 눈들이 저새 늪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이 평탄한 대지에서 철길을 구부리게 되였는가를 서로 묻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설계원과 측량공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될것인가. 그들은 한키로메터의 철길을 필요없이 늘어놓은 이 기하학적인 곡선을 결코 무심히 대하지 않을것이다. 사실 구부러진 철길이 지금은 별로 손해를 주지 않는듯싶어도 《만년대계》라는 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한키로메터의 철길우에서 손해를 받게 되는 속도와 연료와 로력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자로 치달아오르는것이였다.

채동식은 자기의 비뚤어진 량심이 설계도에 비쳐진것을 보는 순간 시뻘겋 난로불이 그대로 얼굴에 들쭉워지는듯싶었다.

(그렇다. 만약 이 설계도대로 철길을 놓는다면 후날에 사람들은 지형도에 늪을 빠뜨린 측량공보다도 늪을 정복하지 못하게 한 이 설계를 더욱 꾸짖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나도 역시 지나온 생활때문에 참을수 없는 고통을 받을것이다.)

채동식은 의자등받이에 젖혔던 몸을 바로 세우고 사죄하는 눈으로 련회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윽고 책상에 팔굽을 고인채 손으로 두볼을 주물럭거리며 설계도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동식동무, 이젠 눈을 좀 붙이세요.》

동식은 련회의 발자국소리가 문쪽으로 멀어져가는것을 듣고 몸을 일으켰다.

《아주머니!》

《오늘은 좀 주무세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채동식은 고개를 숙이였다.

《동식동무.》

《아주머닌 저에게 중요한걸 깨우쳐주시였습니다. 전 이 설계도를 쉼버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의 설계대로 직선철길을 놓겠습니다. 철길다리를 어떻게 하나 손해 없이...》

채동식은 문쪽으로 다가갔다.

련회는 잠시 굳어진 사람처럼 서있었다. 얼마후에야 그는 공포인지 기쁨인지 알수 없는 야릇한 시선으로 채동식을 지켜보며 목소리를 떨었다.

《할수 있을가요?》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이제는 마음 편히 돌아가십시오.》

《고마와요. 동식동무.》

련회는 울어버릴듯 고개를 돌리고 눈귀에 손을 가져갔다.

련회는 그 밤을 지새우며 료양소 당위원회와 남편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썼다.

채동식은 그밤부터 더욱 촉박한 시간을 보냈다. 현장을 돌아보기도 수십번, 잠들수 없는 긴 겨울밤, 불같은 재촉들...

이렇게 이틀이 지나 드디어 철도건설중대 현장사무실에서 보충설계도에 대한 군중심의를 가지게 되었다.

참모부, 기술준비실성원 전원, 철도건설중대 소대장이상, 각 현장중대 중대장들이 다 모였기때문에 어지간히 넓은 방이였지만 들어설 자리가 없이 빼곡하였다.

뒤늦게 들어온 련회는 문쪼에 끼우다싶이하고 서있었다.

주석단처럼 사람들을 마주 향하여 앉은 기사장은 《철길다리》라는 표제가 붙은 설계서를 들여다보고있었다.

경량 고속도시추기기로 열개의 쌍구멍을 뚫고 거기

에 철기둥을 박아서 철길다리를 놓게 한 이 설계도 앞에서 기사장은 사뭇 긴장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설계자는 정확하고도 치밀한 계산들을 하였다. 철기둥의 양옆을 받치는 지지대를 세우는데도 열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나는 수직 수평 방향의 힘을 고려한 력학적계산이 있었다.

계산자료에 의하면 철길다리의 안정성이 콩크리트 통기둥보다 오히려 높고 수명도 역시 길다. 로력과 자재는 엄청나게 절약된다. 1메터의 굴착작업도 없으니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잘하면 한주일안으로 다리를 완공할수 있었다. 그런데 좀 까다로운것은 구멍이 작은 경량고속도시추기로 진흙층을 지나 좋은 땅이 나올 때까지 뚫어야 하기 때문에 가늘고 긴 철기둥을 써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조건에서는 모든 기둥들이 조그마한 하나의 만곡점도 없어야 할뿐더러 완벽한 90도의 수직선을 보장할 때에만 철길다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담보할수 있는것이다.

기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은 고충과 진지한 탐구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늘의 지질조건에 가장 알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기쁜것은 최대의 정밀도를 요구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로력과 자재와 시간을 절약한것입니다.》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방안이 흥성거리였다. 련회도 금시 철길다리가 일어서는듯 가슴이 울렁거리였다.

《조용하시오! 그러나 정밀도를 보장하는 문제가 그리 쉬운것이 아닙니다.》

한때 대학교원으로 있었고 공업력학에 밝은 기사장은 설계자이상으로 설계도를 잘 리해하고있었다. 그는 설계도가 요구하는 철기둥은 가늘고 길기때문에 완벽한 수직선, 더 정확히 말해서 완전무결에 무한대로 접근하는 그런 수직선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시공자들이 여간 잔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기사장은 만약 이러한 철길다리가 정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회할수 없는 무서운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그림을 그려보이면서 설명하였다.

기사장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좀 과장하여 형상적으로 말하였기때문에 련회는 다리가 무너지고 열차가 허공에 뿌려나가는 무서운 상상을 하며 오싹 몸을 떨었다.

《그렇지만 수직선만 잘 보장하면 만년기둥이 될것입니다. 왜 그런가? 중력중심 또는 중력의 균형점들에 놓인 완벽한 수직선은 자기 무게의 몇백배 이상의 무게를 받들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레대의

원리를 발견한 고대학자가 지레대로 지구를 들어올리겠다는 말을 한것처럼 아마 수직선의 중력저항력을 처음으로 계산한 학자는

<나에게 완전한 수직선만 보장해달라. 그러면 나는 가는 바늘로써도 당신의 루각을 떠받들수 있다.>하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경량 고속도시추기구멍에 의한 철길다리 설계는 바로 이런 력학적원리에 기초한것입니다. 어떻소. 시공지도를 책임진 김동무, 자신 있소?》

《어이구, 전 자릴 내놓겠습니다.》

《하하하...》

방안에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실 시추굴진을 할 때 추관을 조금도 구부리거나 비뚤지 않게 완전한 수직으로 보장하기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더우기 설계도는 연추를 매달고 수직선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현미경적인 관측을 요구하고있기때문에 선뜻 나서는 시공지도원이 없었다.

기사장이 잠시 채동식이와 설계도를 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방안이 소란해졌다.

《거 너무 까다롭구만. 차라리 대형시추길 써서 굵은 기둥을 박지 뭘 그래.》

《뽀꾸기같은 소리, 대형시추길 쓰면 이 얼음판이 견디는가. 물귀신이 되고싶어!》

《그리구 그건 모기보고 대포 쏘는격이야.》

《그렇지만 그 설계의 요구대로야 수직선을 보장해내는가말이요. 그야말로 리론적인 수직선이요!》

《설계가라는건 그저 늘 요구성이 높게 마련이야. 그저 보통기둥처럼 쏙쏙히 세우면 되겠지 뭘 그래!》

《또 촌놈의 일본새가 나온다. 이게 열차다리라는 걸 생각하라우. 심중한 문제요 심중한...》

이윽고 기사장이 방안을 둘러보며 조용하라는 말을 하자 저마끔 이야기관을 벌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기사장에게 쏠리었다.

기사장은 시공그루뽕을 조직하려고 몇사람 이름을 불러 세워놓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두 머리만 기웃거릴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하긴 설계의 요구대로 정밀성을 잘 보장하지 못하여 만약 사고라도 일어나면 시공자에게 큰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여서 그럴수 있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시추기구멍에 철기둥을 세워본 경험도 없었을뿐아니라 철길건설이 어지간히 긴장하게 된 조건에서 안전하게 높옴으로 철길을 둘러자는 의견이 다시 살아나게까지 되였다.

설계도에 매혹되였던 기사장까지도 곡선철길에 다시 기울어질듯싶어 련회는 안타깝고 조마조마하였다.

(수직선! 수직선!)

련희의 눈앞에는 측량공들이 세우는 표척이 떠올랐다.

측량공들에게는 《표척을 네 량심처럼 끈게 세우라!》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표척을 약간만 비틀게 세워도 측량수치에서 그 몇배의 오차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측량공들은 언제나 완벽한 수직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때 수직선의 명수들은 바로 측량공들이야. 나는 수백수천개의 표척을 세워보고 관측해본 측량기사다.)

련희는 어느덧 시공자의 립장에 자기를 세워보았다. 가슴이 떨리었다.

(아니야, 한번 실수를 저질러 너무도 큰 고통을 맞본 내가 무엇보다도 그 아슬아슬한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단말이야.)

련희는 도리질을 했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푸념을 하듯 칙칙거리며 새 늪을 돌아가는 니란렐차가 측량렌즈에 확대된 표척의 눈금처럼 예리하고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니야, 노력하면 될수 있는 좋은 일을 기피한다는건 무엇을 말하느냐!)

련희는 슬며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뛰어나올것처럼 쿵쿵 힘찬 박동을 한다. 그는 두손으로 가슴을 지그시 눌렀다가 종이 한장을 꺼내었다.

《동식동무, 건축적인 문제만 도와주면 철기둥의 수직선은 제가 시공자의 립장에서 책임지겠어요. 전 시추기만곡측정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수직선을 보장하기 위해선 측량공의 눈이 필요합니다.

말해주도록 제기해주세요. 련희.》

글쎄지가 동식에게 전달되었다.

그후 련희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지 못하였다. 다만 시공그루땀성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기사장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수 있었다.

다섯명이었다. 련희의 이름은 없었다.

한참만에야 련희는 기사장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동무들, 그리고 당위원회와 또 해당 료양소와도 토의하고 료양소회계원 박련희동무를 시공그루땀에 망라시키려고 합니다.》

약속이나 한듯 사방에서 동시에 웅성거리었다. 기술준비실과 참모부 성원 몇사람밖에는 거의 다 련희를 모르고있었다.

《료양소회계원은 그전에 여기서 측량을 한 녀성 측량소대장이었으며 재능있는 측량기사입니다.》

채동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저편 창문쪽에서

《가만, 그건 또 무슨 말이요.》하는 소리가 련희의 가슴에 대포알처럼 날아와 박혔다. 철도중대 중대장이었다.

《운동장같은 늪을 보지도 못한 그런 측량기살 여

기에 망라시키잔말이요? 그만들시다. 차라리 우리끼리 합시다.》

젊은 중대장은 억센 주먹으로 채동식을 후려칠듯이 노려보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늪때문에 굴뚝처럼 속을 태우고있는 사람은 바로 이 중대장인 것이다.

채동식의 얼굴이 방금 피를 뽑아낸 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그는 방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했다.

《늪을 보지 못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전만 하여도 통계수 북쪽구역은 무인지경의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측량당시에는...》

《채기사동무, 여러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에게 기술자가 모자라서 그러우?》

《물론 그래서 그런건 아니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량심이 없는 그 녀자를 믿을수가 없단말이요. 한번 쓴맛을 봤으면 됐지 또...》

련희는 더 견딜수가 없어 뛰쳐나왔다. 향방도 없이 걸어갔다. 눈무지에 얼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듬지에 소담한 흰 고깔을 쓴 키낮은 이빨나무 한그루가 앞을 가로막았다.

련희는 거기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것이 시뻘뻘하게 흐려보였다.

(중대장동문 그럴수 있어. 있구말구. 그렇다고 내가 주눅이 들거나 물려서서는 안돼! 나는 내가 빠뜨린 이 늪앞에서 바로잡은 나의 량심을 보여주어야 돼!)

련희는 멀리서 부르는 동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빨나무등어리에 비스듬히 기대었던 몸을 곧바로 세웠다.

그날부터 련희는 외투 대신 솜옷을 바꿔입고 시추랍이 서있는 늪얼음판으로 나갔다.

련희는 만곡측정기(시추기추관의 경사도와 만곡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들고 시추공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았다.

시추공들은 조금이라도 편차가 생기면 용서없이 추관을 끌어올려서 굴진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그 낯모를 아주머니의 만곡측정기를 제일 두려워했다. 그래 시추공들은 《만곡측정기아주머니》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간식, 사탕 과자와 가장 따뜻하고 편한 자리를 저마끔 내놓으면서 은근히 《타협》을 기대하였다.

시추공들을 바라보는 련희의 얼굴에는 언제나 다정한 미소가 그려있었고 두눈에는 누나와 언니의 애정이 반짝이고있었으나 조금도 타협할줄을 몰랐다.

사흘이 지나서부터 해맑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까맣게 얼고 입술이 트기 시작하자 시추공들은 《타협》을 원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에게 편한 자리와 간식봉투를 내놓았다. 나흘째되는 날에야

그들은 비로소 《만곡측정기아주머니》가 누구인지를 알고 은근히 눈시울을 적시었으며 시추기동체에 자기들의 랑심을 비쳐보면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머니에게 무엇인가 따뜻하고 살뜰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그날부터 그 는 나타나지 않았다.

련희는 그날 철기둥의 수직선을 《최종심의》하기 위한 측량검측탑을 설계하였다.

측량검측탑은 15 메터의 높이를 가지는 네면이 사다리모양의 사각수직나무탑인데 이것은 철기둥의 수직선을 15 메터의 높이로 연장한 상태에서 관측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직선은 길이가 길수록 그 편차가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검측탑을 만든다. 검측탑은 기둥기로 떠올리게 되어 있다.)

드디어 철기둥의 수직선을 마지막으로 검측하는 날이 왔다.

열음판을 까버리고 진대나무들을 걸어낸 소택기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기둥기차가 긴팔을 드리우고 서있는 작업장의 여기저기에는 불무지들이 타올랐다. 늪을 건너간 열쌍의 기둥들이 타오르는 불길속에 마치 자기의 굳은 절개를 시위하듯 번들거리며 하늘을 향해 곧추 서있는데 철기둥(늪가운데 있는 철기둥)위에 아슬히 솟은 사각 나무탑 밑에는 련희, 동식이, 중대장이 작업준비를 하고 있다.

《련희아주머니! 잘 돌봐야 하겠소.》

검측탑위에 오르게 될 련희를 두고 하는 기사장의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탄광에서는 남자측량공을 검측탑에 올려보내려고 한 것인데 련희가 강경히 나서기도 했고 또한 최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므로 더는 유능한 측량공인 련희를 말리지 못했다.

멀리 측량기가 서있는 맞은편에서 호각소리가 울리며 천천히 붉은 신호기가 올라갔다.

그들은 탑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홀날렸다.

사나운 바람이 회오리칠 때마다 뿌연 장막이 덮인 공간에서는 눈꽃이 아우성치며 맴돌았다.

련희는 그 모든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면서 한결 음한결음 툭아올랐다. 숨이 가뻔했다.

그는 몸이 휘두뚱 옆으로 기울어지며 허공으로 내리꽂히는 환각이 이는 순간 무엇이 자기 어깨를 짊어 부축해주는 것을 느꼈다. 밑에서 안전띠를 죄여 준 것이다.

《측량기사가 다르군요.》

동식이가 련희의 날렵한 동작에 감탄하여 소리쳤다. 그러나 중대장은 그 어떤 깊은 생각에 잠긴듯 고개를 수긏하고 묵묵히 사다리를 오르기만 한다.

헛디딘 한결음을 두고 그것을 씻기 위하여 아글

타글 노력하는 한 녀인의 행동앞에서 중대장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 처녀측량공들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이 사득관과 숲속을 어떻게 다녔을가... 지치고 힘들어 눈물을 떨구면서도 표척만은 똑바로 세우고 다닌 그 처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탄광사람들이 오늘 세상사람들앞에 떠받들리고 칭찬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측량공들에게 꽃다발 하나 안겨준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조그마한 실수를 지나치게 대했고 심지어 그들을 우리 탄광에 들여놓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중대장동지,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대장은 련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 아주머니! ...그동안...》

중대장은 갑자기 사다리에 얼어붙었다.

《어서 오르자요. 중대장동지!》

련희는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눈굽에서 번쩍이는 은구슬을 보며 목메여 속삭이었다.

이윽고 세사람은 탑정점에 올라섰다.

수직선 연장점을 찾아내고 표척을 든 련희를 동식이와 중대장이 웅위하듯 부축하고 서 있었다.

높은 탑우에는 소름이 끼치게 바람이 세차다. 그러나 수직선 연장점을 열심히 가늠하며 푸른 신호기가 오르는 붉은 눈벌을 바라보는 련희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기쁨의 미소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눈이 쌓여 하얗게 단장한 크고 작은 늪들, 아득히 곧게 뻗어간 철길, 그 어떤 지곳은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인처럼 서있는 삭도탑, 억센 굴곡을 이루며 길게 누워있는 저 먼 조국의 산발들...

이 모든 정들과 아름답고 사연 많은 풍수덕의 정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련희는 그만 저도 모를 감격에 목이 메어 온몸을 떨었다.

련희는 동식이와 중대장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전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게 될 이 날을 평생 잊지 않을거예요.》

세 사람은 해빛이 번쩍이는 붉은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흔들었다.

티없이 순결하고 곧은 마음으로 영원히 조국을 떠받들고나갈 그들의 맹세에 화답하듯 검측탑을 향하여 푸른 신호기가 또다시 날새의 깃처럼 나뭇기였다.

련희는 철기둥의 수직선에 맞추어 똑바로 세운 표척의 눈금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래도록 탑우에 서 있었다.

차이점

리력수

1

도에서 공장기업소 지배인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연합회의가 여러날 계속되고있었다. 지배인과 소조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토론했다. 회의장은 소조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들끓었다. 회의장 한복판에 자리잡고 앉은 국철지배인만은 연방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목을 길게 빼들고 집행부를 기웃이 넘겨다보군했다.

(혹시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게 아닌가? ...) 회의가 끝날무렵이 되어오자 마음이 더욱 초조해났다. 순서로 보아 자기네 소조원인 경일이가 벌써 토론을 해야겠는데 기척이 없기때문이었다.

(아무래도 이름을 뛰어넘은것 같은데 안되겠군.)

그는 책상맡에 넣어둔 서류가방속에서 백지 한장을 꺼내놓고 《집행부앞》하고 서둘러 큼직하게 갈겨 썼다. 자기네 소조원을 토론에 꼭 참가시켜달라는 의견을 적어내려는것이였다. 이때 사회자가 다음번에 경일이더러 토론을 준비하라는것을 알리고 휴식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렇겠지!) 그제야 국철지배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휴계실 넓은 홀은 흥성거렸다. 어디에서나 토론에 대한 이야기였다. 국철지배인은 뒤늦게 휴계실로 나왔다. 보기 좋게 이마가 벗어진 이웃 향장이 손세를 쓰며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자리를 드려주었다. 국철은 폭신한 의자에 깊숙이 몸을 실었다. 울긋불긋하게 왼쪽가슴을 장식한 락장이 풍채 좋은 그를 더욱 의젓해보이게 했다.

《이제야 모두 우리 소조원동무의 토론을 듣게 됐소. 미리 박수칠 준비들을 든든히 해두는것이 좋을 거요.》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고 누구에게라 없이 자랑했다.

《너무 자랑을 앞세우는게 아니요?》

향장이 빙긋이 웃으며 그의 마음을 슬쩍 건드렸다.

《난 여직 자랑이라는것을 못해봤지만 우리 소조원동무에 대한 자랑이라면 점심밥 싸들고 다니면서 하겠소. ... 물론 다른 소조원동무들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소조원동무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실성의 산모범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띄워주었다단말입니다.》

그는 담배연기를 깊숙이 삼켰다가 천천히 내뿜으

면서 감회에 잠겨 말을 이었다.

《소조원동무가 오기전까지 사실 나는 자기를 성 쌓고 남은 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손뼉을 놓고 있었소. 생각하면 허망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였지요.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는데야 방법이 있소? 그러나 소조원동무의 방조를 받게 되면서부터 결국 나에게 부족han것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도 지식이지만 현실을 감수하는 시대적인 안목이라는것을 절실히 느우치게 되었지요. 실제로 바다를 가로막는 방파제건설이 걸렸을 때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열정을 안겨주어 공사속도를 열배로 높이고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게 된 사실을 놓고 그것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지요.》

《아니 또 대형블록크대신에 바다속에서 수십톤 짜리 바위를 건져 방파제를 쌓은 자랑이요? 난 려관에서 어제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세번이나 들었는데 또 하겠소 허 참...》

향장이 악의없이 웃으며 췌기를 쳤다. 그러자 국철지배인은 한수 더 뻗었다.

《아 그랬던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야 세번이 아니라 열번을 들어도 손해될거야 없지요. 그렇다고 강의를 내라는 말은 하지 않을테니 안심하십시오.》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그건 한가지 실례에 불과하지요. 이제 우리 소조원동무의 토론을 들으면 알게 되겠지만 혁명소조원동무들이란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우리와는 다르단말입니다. 나는 요즘에 와서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었지요. 문제는 현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감수하는가 하는데 따라 보수와 진보가 결정된단말입니다.》

《나도 신문을 통해서 그곳 소조원동무의 기사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철도관리국장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공감했다.

《하긴 신문에도 몇번 소개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우리 소조원동무가 실지 한 일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요. 지면이란 제한되었으니가요.》

철도관리국장의 말에 국철지배인은 어깨를 더 높였다.

《토론을 듣기전에 우리 소조원동무에 대한 단편

적인 실례를 한가지만 더 소개하지요... 그가 우리 사업소에 온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소. 마침 그날 전 투계획을 토론했는 참모회의에 참가했던 그가 모든 관리일꾼들이 잠수법을 배우자는 의견을 제기하지 않겠소... 아 이거 종이 나누만, ... 하긴 내 말을 듣기보다 직접 본인의 토론을 듣는 편이 더 실감을 줄겁니다.》

처녀처럼 아련해보이는 경일이가 연단에 나섰다. 국철지배인은 그가 전에없이 돋보였다. 그는 곁에 앉아있는 항장과 철도관리국장에게 슬쩍 눈웃음을 건네었다.

(어떻소, 우리 소조원동무가...) 그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그런데 경일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앞에 불리워나온 학생처럼 머뭇머뭇하며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 물을 뿌린듯 잠잠하던 장내가 물결처럼 술렁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에 짓눌리운것처럼 궁싹거리다 겨우 머리를 들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술만 감빨았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국철지배인은 금시 연단으로 달려나갈것처럼 팔굽으로 책상을 꼭 누르고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 장내가 웅성웅성했다. 국철지배인은 경일이를 보기가 하도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거워나 안절부절 못했다. 경일이의 이마에서 번들거리는것이 흘러내렸다. 국철지배인은 제가 말문이 막힌것처럼 숨이 갑갑해나서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 국철지배인이 입안이 바싹 마른 다음에야 경일이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더니

《다른 동무들의 토론을 들어보니 저는 아직 이 자리에서 경험을 내놓을만큼 한 일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다시 차례지면 그때 더 많은 일을 해놓고 와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책어린 소리로 겨우 말을 떼고는 조용히 연단에서 물러섰다.

《응?! ...》 국철지배인은 갑자기 쇠뿔등이로 호되게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핑 돌았다. 량쪽에 앉아있던 항장과 철도관리국장도 눈이 둥그래서 국철지배인을 쳐다보았다.

(그처럼 자랑을 하던 당신네 소조원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국철은 귀전에 이런 말소리가 금방 들려오는것 같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달리는 《갱생》안에서 가볍게 몸을 흔들거리며 반사경에 비친 경일이를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경일이는 전에없이 깊은 자책과 사색에 잠겨있었다. 연단에 나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땀을 흘리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났다. 술한 사람들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입을 열지 못한것으로 보아 무슨 곡절이 생긴것이 분명했다. 사람들 틈새에 끼워서 쫓기듯 회의장을 빠져나온 국철지배인은 뒤따라 나온 경일

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성급히 말을 건네려다 그대로 차에 올랐던것이다. 경일이가 하도 자책에 잠겨있어 말을 떼기가 조심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 혹시 일신에 말 못할 사고라도 생긴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경일이에게 그런 일이란 있을리 만무했다.

(정말 모를 일이군...) 생각이 깊어질수록 국철지배인은 마음이 어수선했나 여러번 망설이다 경일이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던 경일이가 어줍게 미소를 짓고 사과하듯 말했다.

《이안합니다... 사실은 시공과장동무가 와서 하던 말이 생각나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때문에 토론을 못했단말이요?!》

아연해진 국철지배인은 경일이를 새삼스레 지켜보다 저도모르게 실소했다.

《허허... 참...》

아침에 사업소 시공과장이 방파제건설에서 편차가 생긴것때문에 국철지배인에게 결론을 받으러 왔었다. 처음 국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편차구간의 기초와 부재벽을 이중으로 보장하면 기술적으로 크게 손상이 없겠다는 말을 듣고야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설계의 요구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지만 허용될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계획대로 일을 내밀도록 결론을 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토론을 못하다니? ... 국철지배인은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하나 경일이를 꼭 토론에 참가시키려고 무척 힘써왔다. 처음에 자기가 토론하도록 되어있을것을 일부러 도에까지 찾아가서 경일이가 토론을 하도록 제기했던것이다. 자기가 그냥 토론을 한다 해도 별일은 없지만 경일이를 남들앞에 높이 내세워주고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연단에 나섰다가 그런 일때문에 그냥 물러서다니... 생각할수록 일이 망랑하고 아쉬웠다.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될줄 알았다라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그를 내세워줄걸 잘못하지 않았는가음...)

《실례의 말이지만 소조원동무네 집에 남자들만 오형제이고 만형과 둘째형이 모두 용해공이라고 하던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경일이를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이 야릇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돌렸다.

《잘못 아셨습니다. 오형제가 아니라 룡형제입니다.》

경일이는 인차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미소했다.

《그렇다면 바다우에서 하는 일을 공장에서 기계로 제품을 깎아내는것처럼 생각하는 소조원동무의 성격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난 이십년동안 방

과제를 쌓으면서 그런 일을 여러번 당해봤지만 아직 한번도 준공검사때 말을 들어본적이 없었소.»

《물론 지배인동지의 말대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볍게 한숨을 지으면서 차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경일이의 얼굴에 자책의 그늘이 더 짙어졌다.

(마음이 무겁다? ... 모를 일이군...)

《정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것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

아침에 소조종합사무실에 들어서 그간 사업정형을 대충 알아보고난 경일이는 곧장 방과제현장으로 나갔다. 끝간데 없이 넓은 바다위에 고즈넉한 안개가 짙게 깔려있었다. 싱그러운 바다바람이 부드럽게 몸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방과제편차문제를 두고 어제저녁 차안에서 하던 국철지배인의 말이 숨물치처럼 가슴에 걸렸다. 지금까지 그와 손잡고 일해온 경위로 보아 의례히 자기와 생각이 같을줄로만 믿었다. 그러나 국철은 그것을 그닥잡게 여기고있을뿐더러 자기가 연단에서 물러선것을 깐깐한 너성적인 성격으로까지 평가하고있는것이였다. 그 문제에 대한 국철지배인의 생각이 겨우 그뿐이란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그를 잘못 도와주지 않았는가... 생각할수록 마음속으로 믿어오던 기둥이 기울어진것처럼 허전했다.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허용될수 있는 일을 제 마음대로 다시 하자고 주장할수도 없었다. 그것을 그치려면 다 지어놓은 집을 헐쳐서 다시 조립을 하는것처럼 편차구간의 부재와 돌을 모두 들어내고 새로 조립을 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철지배인이 마음먹기에 달린것이였다. 편차구간에서는 한발먼저 나온 국철지배인이 포조준수처럼 측량기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측량을 하고있었다. 조립작업은 훨씬 앞에서 진행되고있었다.

《우로... 좀더... 좀더...좋소!》

오른팔을 옆으로 쪽 벌리고 방향을 가리키던 국철지배인이 천천히 허리를 펴고 돌아서다 경일이를 보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나왔구만... 방금 토론을 하고나서 측량기로 다시 측정해보던 참이요. 내 보기에는 소조원동무가 공연히 토론을 안한것 같은데 어디 직접 측량을 해보시오. 어떤가.》

그는 여유있는 미소를 띠우고 한손으로 측량기를 가리켰다.

《그 측량기로 물속을 측량할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경일이는 말끝을 삼키면서 어설픈 미소했다. 국철지배인은 아무래도 그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러는것 같아 손으로 편차구간을 가리키며 주해를

달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편차구간인데 이제도 말했지만 그대로 보강해주면 문제없소. 이것은 단순히 기술상요구의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자량은 못되지만 지내온 이십여년간의 경험으로 확고하게 담보할수 있소.》

그는 지내온 경험으로 담보한다는 말에 각별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이 옆과 바닥이 미관상 좀 빛하긴 한데 그것은 휘틀을 대고 콘크리트를 치면 미끈하게 될수 있소.》

《예?! ...》

실망한 경일이는 국철지배인을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차안에서 현장에 나가고 보고 대책을 세우자던 말에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자기가 기대하고있던 대답이란말인가? ... 경일이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오던 기둥이 넘어지면서 발밑에 디디고있는 방과제가 푹 꺼져내려가는듯했다. 그는 국철지배인과 여직 소극성이니 보수주의니 하고 날을 세워 말을 해보지 못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몹시 뒤떨어진 사업소의 형편과 낡은 잡사상과 작풍에 오염되어 열성도, 창조성도, 시대적인 감각도 모든것이 실무적으로 굳어지고 무디어진 그를 두고 일을 해나가기가 조련치 않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하자는 일이면 무엇이냐 가리지 않았다. 관리일군들이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 잠수법을 배우자고 했을 때 코피를 쏟으면서도 잠수복을 벗지 않던 국철지배인이였다. 평생 무대위에 나서 본 일이 없는 그가 관리일군들로 기동선전대를 무어가지고 무대에 나서서 경일이와 같이 쓴 선동문을 읽고 하모니카를 불었을 때 그가 실무화, 관료화 되어간다고 멀리하던 군중들이 가슴속에서 신뢰와 걱정이 끓어번졌다. 걱정의 파도는 온갖 침체를 불사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과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멀리 뒤떨어지던 사업소가 빨리 추서게 된것도 그의 이런 적극성때문이었다. 그럴수록 경일이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그를 더 힘있게 떠밀어주려고 애써왔던것이다. 그 과정에 서로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 남달리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번 편차문제를 두고 국철지배인을 새로 알게 되는것 같았다.

《아무래도 소조원동무가 정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인데 그럼 속씨원히 물속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쪽 검사해봅시다.》

경일이의 얼굴에 어린 어설픈 미소를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이 딱한 표정을 짓고 먼저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 창민이란 친구가 문제구만.》

《그 동무는 소문난 혁신자일뿐아니라 바다속의

자연을 학생들에게 더 알려주기 위해 갖가지 고기와 식물표본을 채집해서 학교에 보내주자고 조직에 제기까지 했던 동무가 아닙니까.》

《나무랄데 없는 혁신자이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일욕심이 많단말입니다. 잘한다고 받들어주지만 했더니 이제는 그 욕심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무시하는데로까지 나가고있소. 그래서 이번에도 이들이 걸려야 할 일을 하루동안에 해치우려고 욕심을 부리다 일을 저지른 모양인데 내가 사람과의 사업을 쓰게 하지 못한 탓인것 같소.》

그 말속에서는 어텐가 야릇한 감정이 풍겼다. 경일이는 창민이부터 만나보고싶었으나 마침 대휴를 받고 쉬는 참이었다.

두사람은 똑같이 잠수복을 입고나서 몸을 반쯤 물속에 잠그고 배전에 드리워놓은 사다리우에 내려섰다. 곁에서 커다란 수박같은 잠수모를 씌워주자 국철지배인이 먼저 물속에 들어섰다. 뒤따라 경일이가 두손으로 사다리를 슬쩍 밀면서 물속에 들어서자 갑자기 몸이 체중을 잃은것처럼 가벼워졌다. 순간 배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다. 잠수모의 시창밖으로 산만한 광선이 무르녹는 황록색물줄기가 위로 올라가는것이 보였다. 그는 머리로 잠수모안에 수도꼭지처럼 나와있는 공기조절변을 살짝살짝 눌러바람을 조절했다. 잠수복이 공중에 뜬 락하산처럼 고요히 몸을 받들고 서서히 밑으로 내려갔다. 신기한 풀들이 흐느적거리는 바닥이 희미하게 보였다. 마침내 그들은 동화의 세계처럼 다채로운 생물이 들끓고있는 바닥에 사뿐히 내려섰다. 갖가지 고기들이 분주히 눈앞으로 오갔다. 가늘고 재빠른 고기들이 시창을 향해 살같이 다가오다가 공기배출구에서 나오는 물방울을 따라 우르르 위로 물켜올라갔다. 한쪽에서는 눈알이 데룩데룩한 커다란 우레기와 삼치가 아가미를 풀럭거리며 흐느적거리고있었다. 단풍은 이깁나무같은 청각과 구불구불한 참미역을 비롯한 갖가지 풀들이 무성한 《금강산》이 한옆으로 길게 누워있었다. 경일이는 수영을 할 때처럼 몸을 꼭 숙이고 두손으로 물을 헤집으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망작같은 무쇠신발로 땅을 밟을 때마다 모래감탕이 풀삭풀삭 일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있던 가재미들이 감탕속에서 먹이를 주어먹으려고 까맣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국철지배인이 옆구리에 차고있던 창을 뽑아들고 돌아서서 밥상만한 놈을 막 내리찍으려는 순간 경일이가 얼른 그의 팔을 잡았다. 잠수모 시창으로 국철지배인이 눈이 둥그래서 내다보고있었다. 경일이는 미소를 지어보이면서 그의 잠수모에다 자기의 잠수모를 맞대고 크게 소리쳤다.

《지금 정착어족을 보호증식하는 주간이 아닙니까.》

《보호증식주간? ... 아 그렇지 알겠소.》

말소리가 잠수모에 진동하면서 전화소리처럼 오갔다. 국철지배인은 무안스러워 얼굴이 뜨거워났다.

(정말 고지식하군... 편차때문에 안심치 않아 그러는것도 저런 고지식한 성미탓이 아닌가? ...)

편차구간의 기초를 하나하나 검사해나가던 경일이는 중간에 와서 멎었다. 막돌을 넣고 다진 기초가 측량중심선보다 약간 기울어져있었다. 기초가 기울다보니 그 우에다 층층히 조립을 한 방파제벽에 편차가 생긴것이였다. 지배인의 말대로 수압을 제일 많이 받는 기초와 중간부분을 이중으로 보강하면 될수는 있겠지만 경일이는 기울어진 방파제를 통해서 국철지배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것 같아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사업소는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철도관리국에서 방파제마감전투를 앞둔 항만건설자들을 고무해주려 예술선전대가 내려왔던것이다. 그런데다 관리국으로부터 오래지 않아 정무원순회 우승기가 수여될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때문이였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악사들이 뿅뿅거리며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기쁜 마음을 더 흥겹게 했다. 직장들에서 일을 마친 젊은패들이 오금이 들떠 히히덕거리며 회관으로 달려들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은방울소리같은 처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귀청을 간지럽혔다. 앞에도 뒤에도 어디나 웃음과 기쁨이였다. 그들을 지켜보던 경일이는 갑자기 쓸쓸하고 외로운 생각이 서렸다. 누구도 편차문제를 두고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지배인의 말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는것을 나혼자 공연히 고심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 긴장한 마지막전투를 앞두고 이제 그 편차구간을 다시 고치자고 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될수도 있지 않은가? ... 차라리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 이들의 분위기속에 섞여지고싶었다. 선박직장앞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국철지배인이 잠수공과 선원들을 휘둥해가지고 이야기관을 벌리고있었다. 수염자리가 푸름하게 면도를 하고 새옷으로 쪽 뺐은 데다 왼쪽가슴을 만나마 장식한 여러가지 락장이 노을에 비껴 풍채가 더 의젓하고 환했다.

《... 그래서 어쩌다 잠수배에 올랐단만큼 물속에 들어가있는 친구를 고무해주려고 수화기를 들고 <창민동무요, 수고하오 나 국철이요. 기분이 어떨소?>하고 물었더니 아 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 왜 아침부터 재수없이 까불어>하고 툭 올려쪼더라말이요. 허 참... 잠수공들끼리 전화를 가지고 종종 그런 장난을 한다는걸 내가 알력이 뭐요. 그래 억이 막혀 서있다가 <아 내 정말 지배인 국철이요>하고 정색을 하고 위엄을 섞어서 말했던 말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번에는 <차 이것봐라,

제법 흉내까지 내면서… 왜 갑자기 지배인이 되구 싶어서 그래? 정 소원이라면 우리 잠수공의 명의로 봉화산호의 지배인으로 임명하고 삼발이훈장이나 하나 달아주지 어때, 마음에 들어?> 하더라 말이요 하하하…》

《으하하…》

국철지배인이 손세를 쓰며 그때 일을 방불하게 그려내는바람에 모두 배를 안고 돌아갔다. 경일이가 오기전 오랜만에 현장지도(그것도 겨우 갑판우에 오르느)를 나갔다 봉변을 당한 이야기였다. 경일이도 그 이야기를 몇번 들었다. 국철지배인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할 때면 종종 옛말삼아 그 말을 하곤했다. 이야기장단에 맞춰 앞을 지나 치러던 국철지배인이 경일이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아니 소조원동무는 온 사업소를 이처럼 기쁘게 해주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혼자 서있소? 자 빨리 갑시다.》

그는 경일이를 가볍게 떠밀며 재촉했다. 그러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편차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러는것 같은데 문제를 지나치게 일면적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니요? 내 말이 정 그렇게 미덥지 못하면 지배인의 이름으로 법앞에서 책임을 질테니 안심하십시오.》

아까 가재미를 찍으려 할 때 팔을 잡던 일까지 녀두에 둔 말이였다. 그속에는 노여움이 있었다. 국철지배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나오자 경일이는 대답하게 무거운 마음을 쫓아버리고 그를 따라나섰다.

공원은 첫시작부터 상황을 이루었다. 방파제건설이 빨리 되어야 조차장으로 집중되는 화물의 절반이상을 집배로 뽑아서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수 있다는 절절한 호소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무용의 톨동을 타고 흘러나와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국철지배인은 예술적인 감흥과 환희에 잠겨 손바닥이 깨여지게 박수를 치곤했다. 그러나 경일이는 인차 흥미가 없어졌다. 대답하게 쫓아버렸던 무거운 생각이 다시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음은 자꾸만 기울어진 방파제로 쏠렸다. 그리고 무엇인가 소조원으로서 땀땀 못하고 량심을 속이고있는것 같은 자책이 갈마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숨이 막힐지경으로 속이 갑갑해나 1부가 끝나자 종시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하늘에서 못별이 내려앉은듯 바다가기슭을 따라 웅장하게 일떠서는 제철소건설장의 조명등이 잔잔한 바다우에 비껴 명멸하고있었다. 그우로 높은 철탑꼭대기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던 용접불이 가름대에 부딪쳐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축포의 꽃보라를 이루었다. 그것은 말그대로 바다우에 그려진

장엄한 서사시적 대화폭이었다. 경일이는 자기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늘때문에 그 화폭속에 얼룩이 지는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이고 휘적휘적 방파제우로 걸어나갔다. 소리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찰삭찰삭 방파제굽을 핏으면서 경일이의 마음을 달래여 주려고 무엇인가 다정하게 속삭이는듯했다. 공연이 다시 시작되었는지 요란한 박수소리가 예까지 들려왔다. 화려한 무대가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잠시 회관쪽을 돌아다보던 경일이는 박수소리를 멀리 뒤에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편차구간에 이른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어둠속에 우두커니 서서 바다우에 새겨진 건설장의 전경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창민이였다.

《대휴를 받았던데 쉬지 않고 여기 나와 뭘하고있소?》

경일이는 의아해서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창민이는 여전히 바다우에 눈길을 멈춘채 생각에 잠겼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때문에 소조원동지가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 난 또… 토론이야 아무때나 할수 있지 않소… 그래 그 일때문에 잠수공답지 않게 이렇게 고민하고있소? 하하…》

경일이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소리내어 웃으면서 한쪽 어깨우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그러면 나왔던김에 여기 앉아서 이야기나 좀 하지요… 어떻게 된 일지요?》

그들은 방파제우에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앉았다. 창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그날아침 독보시간에 선동원동무가 신문에 난 한 나 어린 처녀차장의 수기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수기에는 《수송혁명200일전투》에서 달성하고있는 자랑찬 소식과 함께 정량보다 수백톤이 넘는 짐을 더 끌고 구배길을 오르다가 기관차가 제대로 끌지 못할 때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때도 한두번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심정도 적혀있었다. 창민이는 그 어린 처녀차장이 자기에게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고있는것 같은 자책과 충격을 안고 아침부터 일손을 다그쳤다. 다음날까지 하기로 되여있던 기초고누기작업을 그날로 끝낼 결심이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이 끝나기전에 물밑에 어둠이 기여들기 시작했다. 갑판우에서는 전화수가 빨리 올라오라고 독촉이 불갈았다. 그러나 그는 손더듬을 해가면서 하던 일을 다 끝내고야 올라왔다.

《다음날 나는 손더듬으로 한 구간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가 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부터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 잘못되면 후에 보강할셈치고 그냥 조립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있었습니다. 소조원동무가 이 문제때문에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다 내 랑심이 깨끗치 못한 탓입니다.》

그는 말을 끊고 다시 방과제가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 얼굴도 나이도 알지 못하는 어린 녀차장의 애달파하는 마음을 덜어주려는 충격에 이끌려 그대로 일을 내밀기는 했어도 그 자책때문에 모태 기고있었다.

(창민동무가 이처럼 괴로와하게 된것도 결국은 내가 그들을 제때에 돌봐주지 못한때문이 아닌가...) 지금 온 나라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충성의전투를 벌리고있으나 물밑에서만 해가 떨어지면 일을 할수가 없었다. 경일이는 한동안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오다 그만 다른 일에 몰혀버리고말았던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던 창민이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난 아까 지배인동지가 현장에 나왔을 때 제 잘못을 비판하고 편차구간공사를 다시 하도록 해줄것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동지는 그 심정은 알만하지만 방과제가 뭐 아이들 놀음감인줄 아가고 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 앞에 책임을 질테니 안심하라는겁니다.》

그의 말속에는 지배인에 대한 원망이 어려있었다. 안정성에 대해서 당앞에 책임을 진다... 책임... 책임... 국철지배인이 과연 책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란말인가? ... 그가 편차문제를 실무적으로 대하고있는 원인이 이때문이 아닌가? ... 창민이의 말을 통해서 경일이는 국철지배인의 마음속을 한갈피 더 깊이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날 창민이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신문사에서 로력혁신자들을 취재하러 내려온 기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나서 창민이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가 자기의 취재를 거절했던것이다. 처음에 취재대상을 선정할 때 창민이에 대해서 구구한 의견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국철지배인은 그가 이번엔 편차를 내기는 했어도 그 열성과 지난시기 업적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던것이다. 그런만큼 국철지배인은 머리끝까지 성이 올라 현장 사무실에 나가서 그를 당장 찾아오게 했다.

《그래 동무는 도대체 어찌자는거요. 사업소망신을 다 시키고 돌아가면서...》

국철은 엄하게 따졌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창민이가 천천히 머리를 들고 지배인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난 지배인동지가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평정한 분인줄을 몰랐습니다.》

《뭐요? 하 이친구가...》

국철지배인은 억이 막혀 곁에 서있는 경일이를 보고 허거론 미소를 지었다.

《물론 이번 일은 백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동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실무적으로 대하고있습니다.》

창민이는 옹골차게 맞섰다.

《내가 실무적으로 대한단말이지... 그래서.》

국철지배인의 표정이 갑자기 신중해졌다.

《지배인동지의 말대로 편차구간을 보강하면 그 안전성을 담보할수는 있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제 마음속에 생긴 그늘이야 그대로 남아있을게 아닙니까... 지배인동지! 부락합니다. 제발 제 손으로 이 마음속에 드리운 자책을 가시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배인동지!》

그는 지배인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면서 절절하게 말했다. 기대와 애원이 어린 눈에는 물기가 핑그르 돌았다. 그러나 국철지배인은 야속스럽게도 아무말 없이 밖으로 나왔다. 문밖까지 뒤따라나온 창민이는 멀어져가는 그를 실망어린 눈으로 지켜보다가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경일이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마음이 긴장해졌다. 발끝을 굽어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국철지배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내여 웃었다.

《난 그 친구한테서 두번째 봉변을 당한셈이군 허허...》

그 말과 표정속에는 창민에 대한 믿음과 동정이 뜨겁게 풍겼다. 역시 국철지배인다운 성미였다. 경일이는 그 성미가 마음에 들었다.

《그 자리에 기자동무가 없었이 유감스럽습니다.》

경일이는 그에 대한 경의를 안고 미소했다.

《난 소조원동무에 대한 자랑이라면 점심밥을 싸들고다니면서 하고있는데 내 체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시 않는구만요. 너무 가혹한데요.》

국철지배인은 일부러 유감스럽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혹시 내가 지배인동지의 체면을 더 생각하고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을 취소합니다. 하하...》

두 사람은 유쾌하게 웃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구만요... 시간이...》

국철지배인이 방과제 현장을 이윽히 바라다보며 시름어린 한숨을 지었다. 경일이는 그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주고싶은 충동이 세차게 타올랐다.

《어제저녁 창민동무의 말을 듣고 기중기선과 잠수배에다 촉광높은 조명등을 설치하면 밤에도 잠수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초보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가능할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시름이 어렸던 국철지배인의 눈이 확 빛났다.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공사속도를 지금보다 세 배로 높일수 있는데 편차때문에 창민동무가 것처럼 가슴아파는것을 그대로 놔두겠소. ... 가만.》

유치원앞에 이르렀을 때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자동보총》으로 《미국놈》을 사격하고있는중이었다. 두눈이 새별처럼 반짝이는 사내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고나서 한쪽눈을 질끈 감고 조준을 하고있었다. 얼마전에 국철지배인의 지시로 공무직장에서 만든 총이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된듯 천진한 미소를 짓고 그를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은 타성적으로 그 아이의 표정을 따라 자기도 한쪽눈을 쪼프리고 과녁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나 총신에서 튀겨나온 총알이 빛나가자 실망하면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야, 이녀석 총을 그렇게 겨누니까 안맞지... 자 이렇게 다리를 버티고 손을 들고... 그렇지 그렇게 똑바로 겨누고 한번 다시 쏘봐라.》

그는 어린이앞에 오금을 꺾고 앉아서 그의 사격동작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었다.

그러자 곁에서 선망의 눈으로 그의 앞가슴에 단락장을 지켜보던 아이가 앞으로 다가서며 엉뚱하게 물었다.

《아저씨, 이 훈장 미국놈 많이 잡아서 탄거냐요?》

《응? ... 응 그래, 너희들도 미국놈 많이 잡으면 훈장을 많이 탄다.》

그 말에 아이들이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그는 또 빙긋웃었다. 또... 또...

마침내 국철은 자기가 총을 들고 사격했다. 잘못지 않았다. 총을 들고 이리저리 유심히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의 얼굴에 노여움이 어렸다.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사격원리를 무시하고 성능검사를 되는데로 했군. ...》

그는 곁에 서있는 경일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조준에서 일미리 편차는 백미터거리에서 수백배의 편차를 가져오는데 이런 총으로야 아무리 유능한 저격수들이라도 적을 바로 쏠수가 없지요. 감수성이 강한 예민한 아이들에게야 무엇이나 곧바로 배워주어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다니... 아이들의 교양에 대한 관점이 삐뚤어졌단말입니다.》

그는 분개해서 얼굴이 벌개졌다.

백번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경일은 어쩐지 그 말에 지금까지 이처럼 빛나보이던 그의 앞가슴을 장식한 락장이 안개가 낀것처럼 그늘이 져보였다.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무명고지에서 저격수로 조국을 지켜싸운 그의 충성과 위훈의 표시였다. 경일이는 다른 사람들의 편차에 대해서는 그토록

명석한 견해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의 편차는 보지 못하고있는 국철지배인이 못내 안타까웠다.

3

기중기선지붕과 잠수배에서 여러개의 조명등이 어둠을 대각선으로 가르며 바다우를 대낮처럼 밝게 비쳤다. 불밑에 잔고기들이 모여들어 옥실거렸다. 이따금 깊은 물밑에서 물방울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갑판우에 모여선 사람들이 기대와 불안이 어린 초조한 표정으로 물속을 굽어보고있었다.

《어떻소?》 전화기곁에 붙어서 긴장하게 물속을 지켜보던 국철지배인이 송화구에 대고 소리쳤다. 여러날 바다바람에 목소리가 갈렸다.

《잘 보입니다.》 수화구를 통해서 경일의 말소리가 갑판우에 퍼졌다.

《잘 보인다! ... 좋소... 뭐 바닥에 내려서겠다구?! ... 알겠소.》

안도의 빛이 어렸던 국철지배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어떻소? ... 뭐 불을 더 내리워달라구? ... 가만 있소.》

국철지배인은 기중기우에서 직선으로 내리비치던 조명등을 수면우에 바짝 내리웠다.

《자, 이제는 더 내리울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응? ... 왜 대답이 없소? ... 여보시오. ...여보시오. ...》

국철지배인이 애타게 소리쳤다.

그때 갑자기 수면우에 드리웠던 조명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고무풍선처럼 터졌다. 사방에서 전마선들이 그리로 모여들었다. 꿈틀거리는 파도에 그만 전구끝이 물에 닿아서 폭발했던거것이다. 그러나 경일이는 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있는 줄을 통 모르고있었다. 중간을 지나 내려올 때까지는 물속이 대낮처럼 밝더니 바닥에 내려서자 차츰 희미해지다가 갑자기 암흑세계로 변하고말았다.

(또 실패란말인가?)

경일이는 온몸이 파란지처럼 나른해졌다. 사흘 동안 물밑에서 꼬박 지내다싶이하면서 조명등 실험을 해왔던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배에 설치되어있는 발전능력과 설비를 가지고서는 깊은 물밑에까지 그 빛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창민의 가슴에 밝은 빛을 안겨줄수 없단말인가? ... 국철지배인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마음속에 드러운 가책을 가지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그의 말소리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경일이는 자기의 심장이 그대로 조명등이 되어 빛을 내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웠다. 레시바에서는 애타게 찾는 국철지배인의 갈린 소리가 계속 고막을 찢었다. 그러나 경일이는 가랑잎처럼 말라든 입술을 감뻘뻘 종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여러날 규정시간을 초과해서 물속에 들어가있 은 탓으로 경일이는 온몸이 나른해지고 열이 났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고있는 국철지배인과 실망 하고있는 창민이의 얼굴이 눈앞에 얼른거려 자 리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야 되겠소. 앞 으로 탐구를 계속하느라하면 차츰 새로운 길이 나서 겠지. ... 하여튼 형편을 봐가면서 창민동무의 제 의를 해결해보도록 해봅시다.》

경일이를 위로해서 한 국철지배인의 말이였다. 조맹등으로 물밀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신 심을 가졌던만큼 그 빛이 제대로 되지 않자 먹었 던 마음이 흔들리고있었다. 기술적으로 만들어주 지 못하면 그대로 물러설 자세였다. 만약 그가 편 차앞에서 그대로 물러선다면 그의 앞가슴을 장식 한 수많은 락장이 빛을 잃게 될것이 아닌가. 그의 앞가슴을 장식한 국가표창은 포연과 불길을 헤쳐 온 그의 충성과 위훈의 거울이며 그 거울속에서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과 래일을 내다볼수 있도록 그것을 가리우고있는 그들을 가셔주기 위해서도 기술적으로 안받침해주어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국철지배인처럼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오랜 일군들이 먼 후날 자기가 걸어온 혁명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시대의 량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이 대답할수 있도록 그들 을 도와주라고 우리를 믿고 파견해주시지 않았는 가... 깍지긴 두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침대에 누워 서 천정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던 경일이는 자 기를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켜주던 대학 도서실의 기술장서들과 참고서적들, 키를 넘는 학 습장들을 머리속으로 더듬어나갔다. 기억력은 다 시 실습과 생산로동의 나날에 축적했던 경험과 지 식의 갈피를 들추면서 탐구의 길로 줄달음쳤다.

《방해되지 않겠소?》

국철지배인이 빙그레 미소를 짓고 방으로 들어 왔다. 그러나 전에없이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비껴있었다. 합숙앞을 지나다가 여직 불이 켜있는것 을 보고 들어온것이였다.

《소조원동무가 저녁에도 밥을 몇틀 뜨다가 말았 다고 취사원들이 몹시 걱정을 하던데 너무 무리하 는게 아니요?》

그는 경일이가 원하는 의자에 무겁게 몸을 실으 면서 근심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경일이는 그 진정에 가슴이 뜨거워났다.

《걱정을 끼쳐서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설마 넘 어지기가 하겠습니까.》

경일이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호기있게 말했다. 그러나 국철지배인의 얼굴에 어린 그들은 가셔지 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경일이를 지켜보다가 무

겁게 한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창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내가 지배인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소 조원동무는 우리 사업소에 온 날부터 내내 이 고 생인데 그렇다고 때식마저 넘겨서야 되겠소.》

시름에 잠긴 그의 목소리는 경일이의 가슴을 불 로 지지는듯했다.

(내가 때식을 설치하는것이 국철지배인의 가슴을 이렇게까지 아프게 해주었다말인가...)

경일이는 진정이 습배인 그의 말과 표정에서 꾸 밍없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가슴후텅게 느껴졌 다. 고마웠다. 죄스러웠다.

《그러면 래일부터 밥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 다.》

경일이는 어떻게 하나 그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일부러 명령을 복창하는 전사처럼 몸을 바로잡으 면서 큰소리로 대답했다.

《허허... 좋소. 그래야지.》

그제야 국철지배인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 웃음이 그의 표정과 잘 어울리지 않았 다. 자기가 때식을 건네는것만이 아닌 다른 시름 을 안고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속에 잠겼다. 책상우에서 탁상시계가 조심스럽게 시간 을 새기며 돌아갔다. 국철지배인이 천천히 담배를 피워물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우리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돼가는것 같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말과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까 무전실에서 해상관측소 전파를 받았는데 앞으로 바다날씨가 오래동안 사나와질것 같소.》

《예?!》

경일이는 긴장해버렸다. 그제야 국철지배인의 얼굴에 그들이 비친 까닭을 알수 있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바다날씨가 사나와지기전에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방파제조립을 내밀자 는거요. 잘못 어물거리다는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지 못할수 있 소. 그러자니 창민동무가 제기한 일이 가슴에 결 리누만.》

그는 피롭게 한숨을 쉬면서 천천히 창밖으로 머 리를 돌렸다. 경일이도 생각이 깊어졌다.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 리기 위해 편차구간을 보장하고 그대로 내밀겠다 는 결심이였다. 그것은 또한 조맹등에 더 기대를 가질수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경일이는 당장 그 에게 기술적인 대담을 줄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지배인의 결심을 일면적으로 지지해줄 수도 없었다. 경일이는 지배인의 눈길을 따라 멀 리서 깜박이는 등대불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려는 지배인동지의 결심을 나도 지지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창민동무의 제의를 물속에 그대로 물어버린다면 그 동무는 한평생 그 가책때문에 괴로움을 안고 모대기면서 두고두고 지배인동지를 원망할 것입니다. 나도 지배인동지가 남들로부터 그런 원망을 듣게 될 일이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조용하면서도 절절했다. 국철지배인은 여전히 창밖에 눈길을 보낸채 나직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을 달리 해본 일이 없으며 나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소. 그런데 어쩐지 이번만은 처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데 괴롭구만...》

그의 말속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어려있었다. 측은했다. 경일이는 동정과 인정에 치우치려는 마음을 모질게 막았다.

《지배인동지와 내 생각이 서로 달라져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다. 국철지배인의 손가락새에서 서리서리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담배연기가 그들의 마음을 한데 감싸주려는듯 합쳐졌다 흩어졌다 하며 머리를 감돌았다. ...

국철지배인이 돌아간후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경일이는 밤가는줄 모르고 책상우에다 참고서적을 한가득 펼쳐놓고 마주앉아서 열심히 탐구의 길로 줄달음쳤다. 물밑에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 그 가능성과 기술적인 조건은? ... 긴장해진 두뇌가 비상한 속도로 운동하면서 연필줄을 타고 새로운 착상이 종이우에 흘러내렸다. 날이 섣달이 되어오자 열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정신이 그물거렸다. 기력이 쇠진해지면서 코잔등에 뽀시시 땀방울이 맺혔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참씩 눈을 감고 안정한 다음 다시 연필과 계산자를 쥐곤했다. 그러다 저도몰래 깜박 잠이 들었던 그는 지배인과 방과제우로 걸어가다 복판이 찢 갈라져 량끝에 서서 애타게 부르며 소리치다 놀래서 깨어났다. 마음이 산란했다. 멀어져가는 방과제끝에서 손을 흔들며 안타깝게 소리쳐부르던 지배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듯했다.

그는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팔짱을 낀채 방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다시 책상에 마주앉았다. 그러나 꿈에 본 방과제가 눈앞을 가리워 그대로 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종시 전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바다를 잠재우고있는 잠룡한 안개가 몸에 걸묻어 돌아갔다.

편차구간에 이른 경일이는 꿈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전지불로 그곳을 총총히 비쳐보고나서 여기저기 발로 굴러보기까지 했다. 움직일리 없었다. 그런데

도 어쩐지 방과제가 더 기울어진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이때 방금 자기가 걸어나온쪽에서 류달리 밝은 전지불이 아롱거리며 곧추 달려오고있었다. 경일이도 그쪽으로 전지불을 돌렸다. 마침내 두 불이 합쳐졌다. 창민이었다. 경일이를 찾아 합숙까지 갔다가 전지불을 보고 달려오는길이었다.

《소조원동지, 이걸 좀 봐주십시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고 온 전지를 경일의 앞에 불쑥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들고 전지불로 유심히 비쳐보던 경일이는 《응!》하고 두눈이 확 빛났다.련결부분을 모두 납으로 돌려때고 반사경에도 물이 습새지 못하게 밀봉을 한것이였다. 점촉단추를 누르자 창살같은 불줄기에 어둠이 헤적하며 갈라졌다. 그것은 밤새 경일이가 모대기며 찾던 착상과 일치한것이였다. 고마왔다. 자기를 도우려고 이것을 가지고 밤새 모대기였을 그의 마음이 가슴후덥게 안겨왔다.

《될것 같습니까?》

불안과 기대가 어린 눈으로 경일이를 지켜보던 창민이가 초조하게 물었다.

《고답소. 날이 밝기전에 빨리 시험해봅시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휘봉해오고있었다. 그들은 작업장에 처매둔 잠수배로 나는데 달려갔다.

먼저 잠수복을 입으려다 경일이에게 떠밀리워 갑판우에 남게 된 창민이는 마음을 조이며 바다속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번뜩이는 불빛이 보이더니 차츰 희미해지다가 진한 기름같은 어둠속에 잠기고말았다.

(또 실편가? ...)

마음이 초조해났다. 경일이가 거센 숨을 쉬는것처럼 이따금 잠수모배풍구에서 나오는 공기가 부글 부글 끓어오를뿐 사위는 잠잠했다. 창민이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경일이를 갑판우에 남겨두지 못한것이 못내 죄스러웠다. 자기의 마음속에 드리운 그늘을 가져주려고 애써오는 그를 볼 때마다 남몰래 뜨거운것을 삼켜온 창민이었다. 물밑에서 끓어오르는 공기를 지켜보던 창민이는 문득 그가 사업소에 와서 처음으로 잠수를 하던 때의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국철지배인이 잠수배에 올랐다가 창민에게서 전화로 봉변을 당한 그무렵이였다.

갓 사업소로 온 경일이는 모든 관리일군들에게 잠수법을 배울것을 제기하고 자기가 앞장섰다. 관리일군들앞에서 그가 시범적으로 잠수를 한다가에 모두 호기심이 나서 배에 올랐다. 잠수란 별게 아니다. 자기가 먼저 해볼테니 다 같이 배우자. 그는 태연하게 말하고 물속에 들어섰다. 창민이는 그가 자주 배에 올라와서 잠수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두고 이것저것 묻기에 잠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것으로 믿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제법 물우에 머리를 내놓

고 덩실덩실 걸어나가더니 갑자기 공기를 내뿜으면서 물밑으로 갈아앉았다. 그런데 얼마후에 물위에 불쑥 솟아올랐다가 거창한 거인이 바다위에 네팔개를 짝 벌리고 누운것처럼 벌렁 나가넘어졌다. 그제야 그가 잠수에 생판 처음이라는것을 알고 국철지배인이 급해맞아 그를 당겨다 잠수모를 벗겼다. 불과 몇분사이에 경일이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퍼렇게 질렸다.

《아니, 그건 누굴 놀래우자는거요?》

국철지배인이 버럭 소리를 쳤다.

경일이가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창민이는 지금도 그때 지배인을 지켜보던 그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준절하면서도 동정이 어린 눈빛이었다. 그는 그 눈빛으로 국철지배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국철지배인은 고개를 숙이고말았던 것이다. ...

《여보시오. 어떻습니까?》

창민이 참다못해 소리쳤다.

《됐소. 아주 훌륭하오. 성공이요. 성공!》

경일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송화구에서 울려왔다.

《그래요? 야, 이거, 누가 없나?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는 안타까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걱정마오. 내 곧 올라가겠소.》

이어 경일이가 물위에 불쑥 솟아올랐다. 그가 배전에 드리워놓은 사다리위에 올라서자 창민이가 얼른 달려가서 두손으로 잠수모를 힘껏 비틀어벗겼다.

《어떻습니까?》

그는 전화로 들은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 잠수모를 든채 다우쳐 물었다.

《동무의 이 창안이 잠수작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열쇠로 되었소.》

《예?!》

창민이는 그의 말이 더욱 믿어지지 않아 눈을 꿈벅거렸다.

《동무가 만든 이 전지처럼 촉광높은 전등에다 방수장치를 해서 수중등을 만들자는거요.》

《수중등이라구요?》

《그렇소. 전등에다 유기유리로 덮개를 해 씌우고 그속에다 반사경을 설치하자는거요. 그런걸 물밑에다 가로등처럼 걸어놓으면 다시는 손더듬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물밑도 영원히 어둠을 모르는 충성의 전투장으로 될것이요. 그렇지 않소?》

황홀해서 그의 말을 듣고있던 창민이가

《소조원동지! 이 소식을 지배인동지한테 빨리 알려주자요.》

하고 기뻐 어쩔줄 모르고 돌아갔다.

《그렇게 하기로. 지배인동지도 동무가 이런 훌륭한 창안을 한걸 알면 대단히 반가와할거요.》

경일이는 믿음에 찬 눈으로 오래도록 그를 지켜보았다.

경일이는 공무직장선반기와 작업대앞에서 이틀밤을 꼬박 새웠다. 눈에는 피발이 서고 입술에는 좁쌀같은 물집이 졌다. 그러나 그는 팔소매로 이마의 땀방울을 훔치며 부지런히 선반공의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지금 한창 기본작업과 편차를 고치는 일을 함께 밀고나가느라 애쓰고있을 국철지배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 마음이 초조해졌다. 그날 밤 합숙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지는것때문에 것처럼 피로와하던 그가 수중등설계를 보더니 마침내 두가지 일을 함께 밀고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던것이다. 경일이는 서로 달라졌던 생각이 같아진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그럴수록 그는 기술로써 국철지배인의 결심을 안받침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렬해졌다. 마지막 부속이 기대에서 떨어지자 뜨거운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작업대앞으로 다가가서 다시 일손을 다그쳤다. 해질무렵 설계대로 수중등조립이 끝나자 그것을 안고 단숨에 현장으로 달려온 경일이는 발목을 잡힌것처럼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편차를 고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줄로 믿고 것처럼 초조해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장하고 우에다 콩크리트를 치려고 휘틀을 돌려대고있었다.

《누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경일이는 영문을 알수 없어 누구에게라 없이 다우쳐물었다.

《지배인동지가 그러지 누가 그러겠소.》

누군가 불메인 소리를 했다. 지배인에 대한 불만이었다. 지배인이 이런 지시를 하다니? ... 그러면 편차구간을 고치자고 한것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에서 나온 빈말이었던말인가? ... 경일이는 배반당한 분한 생각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지배인실에 갔다올 때까지 잠시 일을 멈춰달라고 부탁한 다음 수중등을 잠수배에 가져다놓고 지배인실로 달려갔다.

《마침 왔구만, 그러지 않아도 찾아가보려던 참인데 수고했소.》

혼자서 책상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국철지배인이 자리를 권하고나서 태연하게 하던 일을 마저 끝낸 다음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공무직장에 한번 나가본다 하면서 종시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하던 일은 어떻게 됐소?》

《다 됐습니다.》

그의 태연한 표정이 흥분된 경일이의 마음에 부채질을 했다. 그러나 그는 리성으로 흥분을 꼭 누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책상위에 올려놓은 두손을

취였다 뒀다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던 국철지배인이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러고보니 나는 결국 창민동무나 소조원동무의 제의를 모두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말았소.》

《어떻게 된일입니까?》

《해상관측소에서 다시 통보가 있었소. 일본령해를 휩쓸고있는 태풍이 곧 우리 나라 령해에 미친다는거요. 그런데다 철도관리국에서 <수송혁명200일전투>과제를 한달반이나 앞당길것을 결의하고 우리더러 거기에 발을 맞춰달라는 연락이 왔댔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니 더는 다른 생각을 할수 없게 댔소.》

그의 말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풍겼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결심에 그들이 지고있는것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안타까웠다.

《당앞에 다진 결의대로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는것은 우리의 드립없는 신념입니다. 그렇다고 편차구간을 그대로 물속에 묻어두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편할수가 있습니까?》

국철지배인의 꺼실꺼실한 눈섭끝이 꼬리를 들었다. 그는 경일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마디에 힘을 주며 말했다.

《소조원동무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데 재삼 말하지만 그 안전성에 대해서 당앞에 정치적생명을 걸고 담보하겠소.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지배인이 이 자리에 필요하겠소.》

그는 굵힘 없이 자기의 신념을 주장했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는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풍겼다. 그러나 경일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치적생명은 영원한것입니다. 지배인동지는 그 안정성에 대한 담보가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응?...》

국철지배인은 갑자기 말문이 굳어졌다.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어렸던 얼굴이 벌개지면서 눈섭이 푸들푸들 뒀었다. 경일이는 격해지려는 마음을 늦추고 나직이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당앞에 다진 결의날자를 보장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과 충성심으로 보고를 올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개졌던 국철지배인의 얼굴이 이상스레 이지러지더니 량미간에 후치질을 한것처럼 발고랑같은 주름이 움푹 패었다.

《그래 소조원동무 생각에는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 같소?》

《아는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고있습니다.》

《뭐요?》

순간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맞부딪쳐 불이 지끈 이는듯했다. 그럴수록 경일이의 말과 표정은 더욱 강경해졌다.

《지배인동지는 사격을 할 때 일미리의 편차가 백메터거리에서 수백배의 편차를 가져온다는 사격원리는 알고있지만 마음속에 생긴 자그마한 편차가 시대앞에 지니고있는 자기의 량심과 그 앞가슴에 단 락장에 큰 그늘을 지우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배인동지는 다른 사람의 편차에 대해서는 명석하게 보고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생긴 편차는 보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동정만 하고있습니다.》

경일이는 저도모르게 말소리가 열기를 띠고 높아졌다. 국철지배인은 벌겋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 자리에다 보장을 하고 콩크리트를 치면 눈에 띄우는 편차는 가리워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편차와 그들이야 어떻게 가리워지겠습니까.》

그의 눈은 타는듯이 이글거렸다. 그러나 말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 가볍게 떨렸다.

《지배인동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물밑에서 사회주의지상락원을 떠받들고 그것을 꽃피워나가는 우리 3대혁명기수들의 량심은 측량기가 아니라 충성심으로 재여야 하며 어버이수령님께 올리는 충성의 보고에는 털끝만한 편차와 그들이 저도 안됩니다.》

깊은 동정이 어린 눈으로 국철지배인을 지켜보던 경일이 갑자기 그의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폭젓은 목소리로 절절하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저는 지배인동지가 혁명의 무기를 잡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 피흘려 싸우고있을 때 유치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지배인동지가 시한탄을 안아내면서 방과제를 쌀을 때 해빛밝은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인동지의 앞가슴을 장식하고있는 그 락장속에서 지배인동지가 발휘한 충성과 위훈을 보고 그것을 거울삼아 자기의 마음을 비쳐보고있습니다. 때문에 지배인동지 가슴에 단 락장은 단순한 국가표창이 아니라 후대들의 마음을 비쳐주는 티없이 맑은 충성의 거울로 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앞에 다진 결의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지배인동지는 그 거울에 그들이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뿌리가 내린듯 꼼짝않고 앉아서 책상 위에 두손을 올려놓은채 그 위에 고개를 떨구고있던 국철지배인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머리를 들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터질것 같은 충격과 걱정의 파도가 지동지듯하면서 흉벽을 쿵쿵 두드렸다. 그는 자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어떻게 주

저앉았으며 경일이가 무슨 말을 더 하다 어느새 나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불을 토하는것 같은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서 계속 뜨겁게 들려올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에서 망각된 가장 귀중한것을 깨우쳐주려고 피타게 가슴을 두드리는 절절한 호소였다. 그는 지금까지 경일이가 자기를 떠밀어주려고 것처럼 애써오는것을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러는것으로만 알고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뜨겁고 고마웠다. 그러나 경일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게 된 락장속에 갇든 위훈과 충성을 계속 빛내어주려고 것처럼 애써온것이였다. 국철지배인은 경일이의 이런 깊은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콩크리트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자신의 무지와 몽매가 한없이 저주로웠다. 자기는 지배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소조원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안았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러고도 감히 자기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 당당하게 걸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착오인가.

《음...》 그는 자책으로 미여질것 같은 가슴을 안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저주했다.

이때 손기척도 없이 방문이 벌럭 열리면서 현장에 나가있던 기사장이 달려들어와 흥분된 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소조원동무가 수중등을 안고 지금 막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고있습니다.》

《뭐요?...》

국철지배인은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다 도중에 전기가 방출되거나 수압에 전등이 폭발하는 날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억지로 남겼다. 기사장의 그런 표정에 국철지배인은 더 불안했다. (수중 폭발!) 조명등을 실험할 때 그것이 폭발하던 일이 눈앞에 되살아오면서 온몸이 식어드는듯했다. 그런데도 과악이 없는 수중등을 안고 위험속으로 들어가다니? ... 잠시 생각에 잠겼던 국철지배인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한달음으로 잠수배에 달려갔을 때 마침 한손에 태양같은 수중등을 든 경일이가 물속에 몸을 잠그고 배전에 드리워놓은 사다리우에 내려서서 잠수모를 막 쓰려는 참이였다.

《서시오. 안되오.》

국철지배인은 무작정 경일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

다. 두사람은 말없이 마주보았다. 뜨거운 눈길을 타고 신뢰와 존경, 믿음과 경이의 마음들이 가슴속깊이 흘러들었다.

《물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어둠을 가셔내기 위한 전투인데 소조원인 내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배인동지 안심하십시오.》

경일이는 태연하게 미소했다. 그 웃음은 모든것을 자각하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온 심장과 넋을 다 바쳐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사람만이 지을수 있는 숭고한 미소였다.

국철지배인은 그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있는 귀중한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만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가슴을 꿰게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열정, 그런 량심, 그런 충성심으로 현실을 감수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였다. 국철지배인은 그 웃음에 이끌려 말없이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일이가 엄하게 말리는바람에 잠수복을 들고서서 안타까와하던 창민이도 서둘러 그것을 입기 시작했다. 세사람은 한꺼번에 잠수했다. 경일이가 수중등을 들고 앞장섰다. 국철지배인과 창민이가 뒤따랐다.

수중등은 태고연한 어둠을 밀어내고 물밑을 대낮처럼 밝혔다. 강렬한 불빛에 놀랜 동화세계의 온갖 생물들이 확실거리며 갈팡질팡했다. 그속을 지나 방파제앞에 이른 국철지배인은 수중등에 비친 방파제벽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다. 방금전까지 당앞에 정치적생명을 걸고 안전성을 담보하겠다고 한 편차가 현미경으로 보는것처럼 확대되어 보였다.

국철지배인은 기울어진 방파제를 통해서 그늘에 가리워져있던 자기의 마음속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듯했다. 그제야 국철은 경일이가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가 해놓은 일이 적거나 방파제에 생긴 편차때문인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생긴 편차때문인것이다. 또한 경일이가 수중등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애써온것이 단순히 이 편차를 바로잡고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늘을 가셔주기 위해서였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고맙소, 소조원동무!)

국철지배인은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을 담아 조용히 이르며 경일이를 쳐다보았다. 시창으로 환하게 미소를 짓고있는 그의 얼굴이 들여다보였다. 그 미소를 통해서 그의 말소리가 들려오는듯했다.

《지배인동지, 위훈이 새겨진 마음의 거울은 언제나 충성으로 밝게 빛나야 합니다.》 라고...

한줌의 흙, 한치의 땅을 두고

김윤철

무거이 고개숙인 황금이삭들이
끝없이 설레이는 두렁길 우에
나는 가슴 몽클 뜨거워 서있노라
얼마나 풍요한 이 나라 대지인가
그 얼마나 귀중한 나의 농장별인가

이 땅의 한치한치를 두고
이 벌의 한줌한줌 흙을 두고
이 땅, 이 벌을 피로써 지켜낸
영웅들을 그러보는 후더운 마음이어
내 가슴 뜨겁도록 차오르는 생각이여

미제의 불아가리 가슴으로 막은 병사
팔벌려 그러안은 피에 젖은 그 한치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주신 그 땅
넘치는 고마움에 알알이 영글고
감사의 인사로 이삭들이 고개숙인
황금의 한빛으로 설레이던 벌이었다

세기를 두고 깊숙이 박혀있던
지경돌이 없어진 들에서
판개수도 은혜로운 사랑에 넘치고
살찐 둥글황소의 영각소리도
은혜에 목메인 행복의 노래로
지평선에 은은하던 그 벌이었다

정녕 영웅의 가슴에 뜨겁던
조국땅의 그 한치, 그 한줌한줌 흙은
백두의 준령을 넘나들던 투사들의
투쟁이며, 희망이며 청춘의 전부였던
우리의 조국강토 그대로였고
새 조선의 영원한 봄이었기에

영웅은 그 한치우에 붉게 피지 않았던가
영생하는 충성의 꽃으로!
한줌한줌 그 흙을 적시지 않았던가
영원히 식지도 마르지도 않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피로!

아, 그토록 귀중한 이 땅의 한부분에
나의 충성 새겨가는 발자국 찍혀거니
대지우에 설레이는 금나락이어
너는 다만 만풍년의 기쁨을 실어서만
이토록 정답게, 이토록 뜨겁게
나를 불러주는것이 아니구나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한치한치 온 나라에 펼쳐지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은혜로
천만이랑들이 뻗어내린 이 땅
혁명선렬들의 피가 젖어있는 대지에
나는 진정 해마다 씨앗을 뿌려서만
만풍년을 가꾸는것이 아니거니

준엄한 시각이 나를 부를 때는
서슴없이 피뎌는 심장도 바치여
위대한 어버이사랑, 그 은혜를 받들어
한줌흙에 억만톤의 나락을 익히고
조국의 한치우에 초석으로 뿌리내려
사랑하는 강토우에 영생하리라

...오, 무거이 고개숙인 황금이삭들이
끝없이 물결쳐 설레이는 대지여
한초한초 충성의 삶으로 빛내여갈
사랑하는 농장벌의 한치한치여
뜨거운 붉은피로 지켜갈
목숨보다 귀중한 한줌한줌 흙이어!

온정령 옛 전선길우에 외 1 편

림종근

팔담에 내린다던 하늘의 선녀들이나
구름우에 머리든 만물상 천선대찾아
웃으며 떠들며
춤추듯 걸어가는 휴양생 처녀들아
너희들보다 앞서 령을 넘은 사람들이 있다

깎아지른 절벽아래 한줄기 오솔길
전화의 날 포탄상자 이고간 너인들
지금도 안개속에 보여오는듯...
쏟아지는 원쑤의 총포탄 헤쳐
거침없이 흘러가던 남강마을너인들의 발자욱
그우에 피어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몸보다 무거운 포탄상자 포개이고
너인들은 하루에도 몇번이나 넘었던가
잠간이면 볼수 있어도 그 시간이 아까워
마음속에 간직해둔 만물상 천선대...
처녀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누나

진정 적탄에 피흘리면서도

밝게 웃던 그 미소
길센의 들국화로 곱게 피었느냐
아, 오솔길 어디에나
너인들의 숨결 어려있나니
말없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힘이
금강의 아름다움속에 어려있구나

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답게
불소나기 총포탄을 한가슴으로 헤치며
싸우는 고지에도 쉽없이 달려간 너인들
마침내는 행복의 대렬이 따라섰구나
포화속에서도 아끼던 금강의 아름다움속에
억년세월 변함없는 행복이 꽃피었구나

단풍잎이 고와서 사람들이 오르는가
물이 맑아서 처녀들의 얼굴 저리도 고운가
아, 충성의 붉은 피 아낌없이 바쳐가며
조국을 지켜낸 영웅전사들의 숨결이 어려있어
우리 행복 우리 기쁨 절경속에 피고있음을
금강산은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말해주고있구나

금강산에서

금강산 상팔담에 올라
하늘아래 산천을 바라보면

바자처럼 둘러선 영웅고지들-
이 강산을 삼키려던 원쑤 미제 족친

월비산, 351고지들

진정 끝마다 봉이마다 영웅들의 뉘이 어려있구나

뜨거운 마음안고 상팔담을 내리는 발걸음

기묘한 산봉우리 보고만 가기 아쉬워

어린애처럼 소리쳐 불러보고야 한굽이

은하처럼 흐르는 물결 구슬인가싶어

하얀 손을 담가보고야 또 한굽이

황홀경에 취해 오르며 본 금강산

내리며 다시 보니 가슴이 불타누나

다시 보자 구룡연아, 옥류담아

아, 위대한 수령님 만세 높이

미제를 쳐갈기던 용사들의 모습

저 병사바위 군상으로 솟았느냐

전사들의 서리발총창 만이천봉이로 솟았고

하늘땅에 메아리치던 돌격의 함성

구룡연의 우뢰같은 폭포소리로 되었느냐

말 좀 하려무나, 만산에 붉게 타는 단풍잎아

너는 영웅전사들의 피가 물들어서나

말 좀 하려무나, 구울며 소리치며

나를 따라 내려오는 개울물아

너는 용사들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이 어려

이리도 맑고 깨끗하냐

진정 제 한몸의 상처는 입을수 있어도

수려한 이 강산에 상처는 입힐수 없어

한목숨 웃으며 바친 영웅들

그들의 뜨거운 마음 산천에 엮혀있구나

천지조화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던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어 싸운

영웅전사들의 충성의 뉘에 떠받들리어

이리도 아름다운 금강산, 금강산아

나는 내리면서야 더더욱

너의 아름다움 다 알수 있었구나

아, 너는 진정 오르며 보기보다

내리며 보기가 더더욱 아름답구나

귀중한 이름들

허성훈

이름이 무엇인가, 손잡고 물어도
웃으며 웃으며 가버린 동무들-
공사의 어려운 고비를 도와
찬비속에 밤새워 콘크리트를 다져주고
남겨놓은 말은 한마디
전기가 더 빨리 나오기만 바란다고...

주소만을 알려달라, 따라가며 물어도
너무도 무정하다 나무리에도
얼굴을 붉히며 사라진 처녀들-
크고작은 철근을 맞들어 이어놓고
날새처럼 사라지며 남긴 한마디
승리의 보고를 더 빨리 올리자고...

저마끔 자기의 일터와 초소에
아름찬 과업이 있어 겨를이 없건만
자정넘은 한밤에 새별 지는 이른새벽에
말없이 찾아와 일손을 받들어주고
말없이 사라진 혁명의 전우들-

대화력발전소- 웅대한 기념비에
바친 땀이 없어야 무슨 사는 멋이라고
가슴이 끓어, 피방울이 튀어
불속에 뛰여든, 말없이 뛰여든
불타는 심장들이여

건설장의 한점 불꽃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만대에 빛내이며
대비약의 우뢰가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며
불바다로 끓어번지는 다함없는 충성,

그 마음과 그 열정이
합치고 엉키여
억만크바의 불로 타서
발전소보이রা가 저리도 눈부시게 일어서고
저 푸른하늘 한복판에
은빛지붕이 번듯이 들리는것이 아니냐

잠도 휴식도 뒤에다 밀어놓고
웃음도 노래도 미래 위해 꽃피우며
충성의 한길에 땀불처럼 타오르는
그 심장들이 더없이 사랑스러워
다시 보고싶은 얼굴들이여!
부르고싶은 이름들이여!

아, 이 발전소가 세차게 전기를 뿜을 때
퍼져가는 전기의 빛발속에서
정성어린 구조물에서
온 나라가 보리라, 아름다운 얼굴들을
읽으리라, 충성의 길에 영원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사들의 이름을!

바다가마을에서

조준현

여름밤.

흰 달빛이 열려진 창문으로 흘러들고 프락 꽃바자 그림자밑에서는 수수꽃다리의 밤향기에 취한 귀뚜라미가 《귀뚜라미...》하고 물고있었다.

가끔 그 울음소리가 어떤 소음에 놀라 문득 그칠 때면 사업소쪽에서 방파제를 두드리는 파도의 설레임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려왔다.

붕- 하고 부두에 정박한 원양운반선의 기적소리가 그에 이따금씩 화음을 짓군하였다.

그러나 파도의 설레임도 선박의 기적소리도 여름밤의 정적을 더하여줄뿐 조금도 깨뜨리지는 못하였다.

달빛이 좋아 방안의 그림자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는 귀뚜라미를 놀래울가 저어하는듯 물부리를 조심스레 채털이에 두드리고나서 다시 깊숙이 빨아들인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푸른 연기는 푸른 달빛과 이상한 조화를 이루며 아득한 먼 옛날의 무수한 사연들과 어제오늘의 생활들을 더듬게 하였다.

다만 철우만이 밝은 달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미소하고있었다.

그에게는 지금 세계가 무척 단순해보였고 자기의 앞길은 바로 저 달처럼 밝고 찬란한것이어서 달만을 바라보고싶었고 나머지 다른 모든것에는 전혀 관심을 돌리고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팔을 벌리면 구리표면처럼 반반하고 짙은 달을 손에 잡을것 같기도 했다.

그렇것이 그는 끝내 소원하던 원양어로공이 되어 오늘 만선기를 휘날리며 첫 배를 타고 돌아왔던것이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이 나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긴 철우가 어창이 넘치게 고기를 잡아싣고 돌아왔던것이다.

그러니 조용한 여름달밤에 추억을 자아내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언뜻 스치는 바람결에 꽃이파리가 설렁대고 그 서슬에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똑 그치었다.

사위는 정적속에 잠겨 다시 울릴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네가 원양어로공이 되어 어창이 넘치게 고기를 잡아싣고 왔단말이지.》

아버지는 벌써 세번째 이 말을 하였다.

《그래요. 또 물고기를 실컷 먹게 됐어요. 가공직장에서야 아마 그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바쁠거예요.》

철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적이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애, 네가 소원대로 어로공이 되어 인민들에게 실컷 먹일 고길 싣고왔다는것이 어쩐지 이 밤에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구나.》

《어로공이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해볼만한 청춘의 활무대라 할가요...》

철우는 응석받이처럼 천진란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암 좋구말구. 하지만 난 아직 다 몰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돌연 이상스러워졌다. 철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을뿐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의 어조가 심각해지자 녀동생이 옷방으로 올라오고 어머니도 문턱가까이 다가앉았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구? 참 애들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쓰라렸던 지난날을 옛말하며 산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하냐!》

어느새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멎고 여름밤의 사위는 깊은 정적속에서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듯하였다.

이 땅에 해가 났으나 밝지를 못하고 웃음이 있으나 즐겁지를 못하던 침울한 세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열한살때의 일이어서 마치 풍화작용에 바위가 모래알로 되듯이 나의 기억력도 세파의 작용에 적지않게 희미해졌겠으나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은 아마 거의 기억하고있는것 같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갈가마귀떼모양으로 떼지어 초가지붕우를 낮추 떠돌던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젖은 모래불을 썰던 파도의 음울한 설레임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나의 고향마을은 도새(동풍)가 모질게 자주 불군하였는데 그런 날이면 멍든 얼굴파도 흡사한 퍼런 파도의 포말이 프락의 한가운데까지 날아와 마치 비내리는 날처럼 땅과 지붕과 쪽배의 낡은 널판자들이 축축해지군하였다.

물론 이런 날씨가 일년내내 계속되는것은 아니었으나 웬일인지 나에게게는 맑은 날씨란 단 하루도 있어본것 같지를 않았다.

그런 자연의 탓 때문인지 우리 마을은 어느때나 술을 깨지 못한 주정뱅이의 부석한 얼굴처럼 침울하였다.

빛이 바랜지 오랜 초가지붕들은 고역에 시달린 어부의 피기없는 이마처럼 항상 땅을 향하여 드리워있었고 그밑에 달려있는 창문들은 초점 잃은 눈동자처럼 한번도 명랑하게 생기를 띠고 활짝 열려본적이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우리 마을이 바다가에 자리를 잡고있는 탓에 자연의 징벌을 받는것이라고 못내 원통해하였다.

그러나 어느날엔가 갑자기 따스한 계절풍이 일기 시작하고 맑은 날씨에 해가 구름속에서 나오고 창문들에 아이들의 얼굴이 비칠 때조차 마을이 조금도 활기롭지 못함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였다.

우울하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고향의 어부들은 모두 한판에 찍어낸듯이 텅수룩한 머리를 수그리고 다녔고 여윈 긴 팔과 눈시울은 무겁게 드리웠고 람루한 옷속에서는 앙상한 뼈마디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럽게 움직이었는데 거기에서는 금시 기름을 치지 않은 기계의 마찰부분에서 소리를 내듯이 어떤 괴이한 소리가 날것만 같았다. 그들은 애초 날 때부터 그러했는지.

이 모든 주위의 무겁고 침침한 공기는 아무리 깨끗한 동심이라 한들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침울한 마을과 가정이 싫어졌으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가 도래굽이에 자주 몰려나가고곤 했다.

거기에서는 시원한 바다바람을 맡으며 자유로이 날으는 갈매기를 바라보노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약돌을 물위에 던져 그것이 공처럼 툭툭툭 튀어가는것을 재미있게 바라보며 웃음을 지을수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 들어오면 다시 기분은 무거워지곤 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울적한 기분을 바다가에 나가는것으로 잊으려 하였으나 때때로 혼자 있을때면 무엇때문에 그럴가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계급사회의 깊은 모순을 열한살의 철부지사교로 어찌 해명해낼수 있었으랴.

그러던중에는 나는 바다가가 아니라도 마을을 벗어나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붙이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우리의 처지에서 학교에 다닌다는것은 문자그대로 하늘의 별따기라는것을 의식하고있었으나 나는 마을을 떠나는것이 그저 즐거웠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속에서 유쾌한 생활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던것이였다.

내가 풍다리연필을 갈피에 끼운 공책 한권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와 함께 학교 붙으러 가는 날 우연히 트랙에서 만난 보세선주님은 멀찌감치 서서 비단조끼호주머니에 드리운 금시계줄을 흔들며 놀라운듯 말하는것이였다.

《아니 배놈의 주제에 아들의 공부까지 생각해넌군.》

아버지는 땅을 내려다보던 머리를 더 수그렸을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보세선주님이 옆으로 지나갔을 때 아버지는 머리를 들며 마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듯이 나직하게

《아버지가 배놈이라고 아들도 배놈이 되라는 법은 없지...》 하시면서 나에게 시선을 돌려

《동해야, 너 공부 잘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알겠느냐.》 하고 갈린듯한 어조로 간절하게 타이르는것이였다.

《응 알겠어.》 하고 나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나는 실은 아무것도 몰랐던것이다,

그때 나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희미한 개념조차 없었으며 아들을 그토록 공부시키려는 아버지의 소원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몰랐던것이다.

다만 보세선주님이 길게 찌든 눈을 사납게 번뜩이며 《배놈의 주제에...》 하며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싫증나는 마을을 벗어난다는 한가지 리유로 즐겁게 학교 붙으러 갔었다.

한동안 나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풋볼도 차고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학교에 재미를 붙이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후에 나는 학교라는곳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유쾌한곳이 못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웬일인지 고양이낮작같은 왜놈교원의 얼굴이 보기 싫어났고 키낮은 교실이 참을수 없이 답답해났다.

호화로운 꽃보자기에 그만큼이나 호화로운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일부러 반쯤 흘려가며 처먹는 부자집 자식들을 볼 때면 마음이 서글퍼졌으며 잘사는 집 자식들은 해 잘 비치는 양지에 앉히고 구차한 집 애들을 음지쪽 구석에 자리를 정해줄 때면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뿐이랴,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간에 부자집 애들에 대해서는 금강이요, 연예회의 주인공 공이요 하면서 언제나 빛이 나는 자리에 내세워주었지만 가난한 집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품행이 좋아도 그런 자리에 내세우기는 고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엉터리없는 구실을

불이면서 몰아주곤하였다.

내자신도 처음에는 자기 기분의 변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해저문 운동장을 혼자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면서 울적한 마음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부지중 나의 입에서는

《쳇 아무데 가도 다 마찬가지야.》 하는 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재미없는 교실에서 왜놈교원의 메마른 설교를 듣느니 차라리 도래굽이에 나가서 돌이레지로 우레기를 낚거나 생복을 잡아서 구워먹으며 갈매기와 파도가 화음으로 부르는 바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훨씬 더 나의 마음을 끌었다.

그리하여 나는 며칠후에는 처음처럼 다시 도래굽이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첫날에는 누구도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저녁에 바다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 서며

《너, 학교에 갔다왔나?》하고 물었을 때 머리를 끄덕거리며

《네, 학교갔다 왔어요.》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였지만 그 자식들이 어찌다 뜻을 저버리게 될 때면 마주보기 무섭게 사나와져 매를 들곤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가 무서워 거짓말을 하였던것이다. 다음날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좀 뻘뻘치 못하게

《갔다왔어요.》하고 진성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서 밤늦도록 거리를 방황하다가 아버지 잠든 다음에 들어갔다.

나는 그 다음날에도 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 하므로 속으로 못내 고민하였다.

학교에 가자니 부자집 자식들만 고와하는 왜놈교원이 밉살스러웠고 가지 말자니 아버지의 거만한 얼굴과 커다란 주먹이 무서웠다. 나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딱한 처지에 놓인 자신이 스스로 가공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실토해야 할것이니 다음날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으나 아버지를 보면 그 다짐은 가뭇없이 사라지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아버지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여느날처럼 다정스레

《너 학교에 갔다왔나?》하고 묻는것이 아니고 부엌에서 8부바줄토막을 주어들고 올라오더니 말한마디 없이 나의 잔등을 후려치는것이였다.

《아이구 아버지》 놀람과 아픔으로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날카로운 비명이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던것이다.

나를 치는 아버지의 시선은 나를 보는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보는듯한, 내가 늘 보아오던 다정한 눈이 아니라 전혀 남의 눈이였다.

나는 바줄토막보다 그 남의 시선이 더 무서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하고 처음보다 더 크게 고함을 쳤다.

《아니 여보, 왜 이러시우.》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허둥거리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려 헛되이 애쓰며 가느다란 팔을 허공에 저었다.

영양부족으로 몸져 누워있던 어머니의 얼굴은 더 한층 해쓱해졌다.

《저리 비키우.》

《왜 이러시우 말루 할 일이지.》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하여 옷자락에 매달렸을때 예야 아버지는 마지막 한개를 더 힘껏 내려치고는 바줄토막을 부엌에 내던졌다.

《말해봐. 왜 학교에 안가고 도래굽이에 나와 어물거려.》

아버지의 무죄망치로 내려치는듯한 거친 목소리가 이어 울렸다.

나는 구름노전에 코를 박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구슬피 울었다.

아파서 온것이 아니라 까닭모를 설움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아버지는 학교가 어떤곳인지 몰라요) 하고 속으로 원망하였다.

학교 가기 싫은 자기의 그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아버지가 야속스러웠다.

억울한 생각이 밀려와 누구를 붙잡고 목놓아 하소연하고도 싶었다.

《말해봐. 왜 도래굽이에 나갔나말이야.》

아버지는 황소숨을 내쉬며 줄곧 같은 말을 되뇌이였다.

나는 학교가기 싫은 그 심중의 사연을 하소연하고싶었으나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하여 설움에 몸달기며 침묵하고있었다.

《정 대답을 못하겠어.》

이번에는 목소리조차 남의것 같았다.

《애야, 어서 대답하려마.》

어머니는 나의 어깨를 흔들며 애원하였다. 가냘프게 떨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마치 가정의 불화가 앓아누운 자기자신때문이거나 한듯한 기분이 풍기였다.

나는 어머니가 불쌍하여났다.

《다신 안그럴래요.》

나는 얼마후에 이렇게 내키지 않는 대답을 하였

다.

그렇게라도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 더 무서운 변이 생길것 같았기때문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지.》

아버지는 다짐을 받았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머리를 끄덕이었다.

《다신 그랬단 봐라, 눈물을 닦아.》

아버지는 손을 털고 돌아서서 어딘가 구멍 뚫린 천정 한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밤 벽쪽에 돌아누운 아버지는 몸을 자주 뒤채며 잠이 들지 않았는데 가끔 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것을 들었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가 눈물을 삼키는 소리라는것을 곧 알아차렸다.

나를 때리고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는것을 알았을 때 나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가득히 고이였다.

아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왜 그렇게 모질게 때려야 하는지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아버지의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듯하였으며 그 눈물방울이 나의 입술로 흘러들어 짙은 맛을 주는듯한 감촉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나는 자면서도 흑흑 느끼고있음을 스스로 의식하였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나는 부지런히 학교에 다녔다.

물론 달이 갈수록 학교에 대한 싫증이 더하여갔으나 늘 뱀같은 8부바줄토막이 떠올라 그것을 참곤 하였다.

아버지는 내가 학교에 잘 다니는것이 기뻐서 저녁이면 피곤도 잊은듯

《우리 동해가 제법 어른이 됐거든.》 하고 할줄 모르는 통담도 하였다.

아마 내가 말이 적어지고 더 울적해진것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어른이 되는것으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어머니만이 나의 눈치를 살피면서 앞으로 좋은 일은 없으리라는 예감으로 머리를 설레설레 젖곤하였다.

어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남의것 같은 무서운 시선과 8부바줄토막도 어찌지 못하게 된 내가 단호히 학교를 그만두게 된 그런 날이 돌아왔던것이다.

어느날 학교에서는 가을철환경위생을 강화한다면서 매 학생들에게 실내화를 지참할것을 요구하였

다.

나는 우리 가정형편에서 실내화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선생의 꾸중을 듣고도 며칠후에야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였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엌에 내려가서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우리 가정의 가보라해도 파언이 아닌 장화의 목을 칼로 자르는것이였다.

아버지의 뜻을 짐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니 여보,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장화를 없애면 당신은 뭘 신고 바다에 나가겠수.》 하고 말리려 하였다.

아버지는 두번째것도 마저 자른다음 이상하게도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애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내 두발은 다 얼어빠진대두 상관없소.》

나는 세군데나 댄 자리가 있는, 그러나 더없이 귀중한 아버지가 손수 장화로 만든 실내화를 들고 학교에 갔다.

그런데 복도에서 실내화를 바꿔신던 나는 선주아들 경패자식의 천치같은 목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피 고기썩은 냄새야. 저리 비켜, 그것도 실내화라구.》

나는 그 자식이 장화로 만든 나의 실내화를 녀두에 두고 말한다는것을 알았다.

혹시 장화에서 고기냄새가 풍겼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썩은 냄새난다고 코를 싸쥐는 그놈의 행동에는 업신여기는 티가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새끼 더 죽끓으니.》

나는 주먹을 흔들면서도 앞으로 달려가는 경패자식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놈은 늘 신고다니는 물소가죽단화를 그대로 발에 끼고있었다.

나는 까닭모를 반발심으로 《흥》하고 랭소하며 실내화를 신지 않고 교실에 들어갔다.

오후 학과가 끝났을 때 왜놈교원은 다른 애들은 다 돌려보내고 나만 교실에 남도록 지시하였다.

나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기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는데 아닐세라 왜놈교원은 나의 등을 밀어마당쪽으로 돌려세우더니 교장네 개우리를 치라는 것이였다.

나는 영문을 몰라 머리를 쳐들며

《무엇때문에 내가 교장네 개우리를 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왜놈교원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벌쭉 웃었는데 들쭉날쭉한 누런 이발이 드러났다.

《선생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나쁜 아이는 버릇을 고쳐주어야 해. 왜 실내화를 안신었어.》

그런데 실내화를 신지 않은것은 나혼자만이 아니

지 않는가.

나는 그 불공정을 까밝히려 하였다.

《경패자식! 실내화를 안신었습니다. 그 자식도 나와 같이 개우리를 쳐야 해요.》

나는 학교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던만큼 속에 품은 말을 서슴없이 뱉었다.

《뭐 경패?》

왜놈교원은 놀랍다는듯 병신처럼 입을 하 벌렸는데 보기 흉한 누런 이발들이 또 드러났다.

《이자식아, 경패와 너와 어떻게 갈을수 있단말이나. 그 애 아버지는 배와 돈을 많이 가지구 금줄시계를 찬 부자이구 또... 그런데 너는 뭐냐, 거리지나 다름없는 배놈의 새끼가 아니냐. 냉큼 잔소릴 말고 개똥을 쳐!》

그놈은 나를 밀쳤다.

나는 눈에서 금시 쏟아지려는 눈물을 왜놈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옆으로 꺾 돌렸다. 그때 울지 않으려고 꼭 깨문 혀끝이 지금도 아파나는듯하다. 심장도 그때 그 순간처럼 세차게 고동친다.

금줄시계를 찬 놈은 죄를 저도 죄가 안되었고 보호를 받으나 가난한 사람은 수모를 받아야 하는 눈물겨운 차별대우가 나를 더는 견딜수 없게 하였다.

나는 더는 더러운 학교에 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왜놈의 발치에 침을 탁 뱉고 돌아섰다.

아버지의 남의것 같던 무서운 시선과 8부바줄로 막이 나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동요를 일으켰으나 그것은 결심을 가질 때의 짧은 한 순간이었고 다음에는 자신으로도 알수 없는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학교정문을 뛰쳐나오면서 다시는 악마같은 소굴로 머리를 들이밀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시원하였다.

그러나 한순간의 울분이 지나가고 마을이 가까와짐에 따라 나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배놈의 주제에 아들의 공부까지...》

하던 보세선주놈의 목청이 귀가에 되살아나며 수그렸던 머리를 더 무겁게 드리우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을 마치였다.

우리는 어찌하여 남들처럼 잘살지 못하는가,

구차하지 않으면 보세선주놈이나 왜놈교원 같은 것들이 업신여기지 않을텐데...

아무 근심없이 한창 뛰놀며 공부해야 할 열한살의 소년은 이렇게 혼자 고민하였다.

부자집 자식들은 내 나이면 아마 사탕을 줄랐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처지는 나로 하여금 성인의 사고를 가지게 했던것이다.

나는 이제 어머니의 병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나고 아버지가 더 부지런히 고기를 잡아 보세선주네

빛을 갇아주면 우리 가정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것이며 창문밖으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가면 왜놈교원이나 보세선주놈도 우리를 지금과는 달리 대할수 있으리라는 순박한 희망을 품었다.

(우리도 더 노력하여 잘살아보자.)

나는 우선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리라 걱정하였다.

(어머니까지 일어나 세식구가 벌면...)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바다가 도래굽이에 나가서 무엇이든 잡아서 약값을 마련하리라 생각하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

아버지의 낡은 작살에 번들번들 낱을 세우고 쪼박그물로 다래끼를 기웠다. 집에 있던 낡시대끝에 참대를 회초리처럼 깎아 더 길게 이어놓았다.

수경은 이미 쓰던것을 물이 새들지 않도록 골탄을 녹여붙였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 몰래 진행하였다.

다음날에 나는 학교를 가는 시각에 문지방을 넘어서 헛간밑에 걸터둔 아버지의 낡아빠진 농립을 눈섭밑까지 내려쓰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다래끼를 어깨에 메고 수경은 하나밖에 없는 옷호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향해 떠났다.

낡은 농립을 쓰고 다래끼를 멘 나의 모습은 고향 어부들의 모습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며 어찌먼 키가 작은것으로 하여 더 처량해보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리를 될수록 빨리 벗어나려고 머리를 수곳하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양주공장굴뚝의 그림자가 가로건너간 신작로를 지나고 어업조합의 콩크리트담벽을 돌아섰을 때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도래굽이가 바로 지척에 보였다.

흰 파도 설레는 도래굽이는 나의 정든곳이며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유일한곳이었다. 여기서는 낡시대를 드리우고 우레기나 열기를 낚을수 있고 라잠수로 생복과 섭을 뜯어서 모닥불에 노랑게 구워서 뜨거운것을 이손저손 옮겨쥐며 먹을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럴 정황이 못되었다.

나는 녀에마냥 첫바위를 뛰어넘고 두번째 바위에돌아 문어굴앞에 이르러 낡은 농립을 벗어던지고 파란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지러운것 없이 맑고 투명한 하늘은 나의 마음을 끝없이 유혹하였다.

오랜 친구인양 갈매기들이 희디흰 날개를 퍼덕이며 머리우를 배회하다가 머나먼 수평선쪽으로 날아갔다.

갈매기털 하나가 물위에 떨어져 거품처럼 물살에

감돌았다.

나는 갈매기가 부러워났다. 갈매기를 벗삼아 동화에서처럼 수평선너머로 날아가보고싶었다.

그곳에는 싫증나는 우울도 가난한 사람을 깨우리를 치라고 업신여기는 법도 없는 훌륭한 고장이 있을듯싶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든 누런 얼굴이 떠올랐을 때 나는 머리를 가로 흔들고 수경을 꺼내어 바다물에 한번 적시고 안정처럼 눈에 썼다.

이어 배속깊이 해초냄새풍기는 바다바람을 마시고 나서 파도속에 뛰어들었다.

나는 이미 도래굽이의 비밀을 날날이 알고있던 터이므로 내가 잠수해 들어간 세번째 굽이는 생복이며 검은 섭이 첫눈에 보였다.

생복은 조용히 접근하였다가 불의에 잡아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놈으로 하여금 바위에 불을 여유를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위에서 바위를 깨내듯이 생복껍질을 두드려마사야 하는것이다.

섭은 이와 다른 점이 있다.

바위에 붙은, 일견 연약해보이는 뿌리는 손쉽게 뜯어낼수 있을듯하나 아무리 힘센 거인의 손아귀로도 어찌지 못한다. 거기에는 칼끝을 한곳에 대고 재빨리 돌려야 하는데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

그에 비하면 해삼잡이는 땅짚고 헤엄치기라 할수 있다.

해삼은 전혀 방비대책이 없이 바위틈이나 풀덩굴 밑에 앉아있는데 어장만 좋으면 열매죽듯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도래굽이에서는 무진장한 어물을 손쉽게 잡아낼수 있을듯하나 실은 그 하나하나를 잡아내는데는 피나는 노력이 들어야 하는것이다.

아다실이 사람은 아가미로가 아니라 폐로 호흡하게 되어있으므로 물속에서는 1분도 견디기 어렵다.

따라서 밤알만한 생복을 하나 따내는데도 때로는 물속으로 무려 몇번씩 잠수해 들어가야 하는것이다.

내가 다래끼속에 절반쯤 우레기며 생복, 섭 등 속을 채우기에는 참으로 살점을 깎아내는 노력이 들었다.

물밖으로 나올 때면 두다리는 놓이는곳을 모르게 휘청거렸고 심장은 가슴에서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세차게 고동치는듯하였다.

《그래도 점심전에 한축 더 해야 돼.》

나는 모래불에 몸을 던지고 관자노리의 피줄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다.

점심참이 되었을 때 나는 파도에 밀려난지 오래되어 바짝 마른 마뽕이며 듬북이줄기들을 모아 불을 지펴놓고 섭 두개와 해삼, 생복 하나씩을 구워서 요리하였다.

그것으로 빈 창자를 채우기는 어방없었으므로 나

는 섭살을 될수록 오래오래 씹은 다음에 삼키곤 하였다.

바다가 일기는 오후면 어김없이 바람이 터진다. 그에 따라 파도가 높아진다.

나는 오후에는 더 힘겨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저녁해빛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는 수면우에 얹게 피어나고 장치란놈이 물우에 솟아올랐다. 떨어지는 《침병》소리를 들었을 때야 나는 물으로 나와 몸을 말리고 옷을 입었다.

나는 서둘러 백사장을 따라 어시장으로 떠났다.

나는 걸으면서 생복 하나는 얼마를 받을것이며 섭과 해삼은 또 얼마를 받아야 하며 우레기와 열기 한마리값까지 타산해보았다.

모두 합치면 약 몇천은 지을수 있음직하였다.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 힘겹게 잡은 수확인만큼 응당한 대가를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나는 자못 기분이 좋아져서 모래속에서 사금파리를 하나 주어 물우에 힘껏 던졌다.

그것은 마치 탄력있는 고무공처럼 수면우에서 일곱번을 통통... 뛰다가 물속에 사라졌다.

그런데 나는 도중에서 지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의 앞 얼마 못치며 방금 어장에서 돌아온 목선 한척이 계류석을 내리고있었다.

나는 첫눈에 아버지가 타는 배라는것을 알아차리고 걸음을 멈추었다.

파도소리를 제압하며 되거리장사군아낙네들의 째는듯한 목청이 혼잡을 이룬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슴푸레 들려왔다. 아버지는 바로 보세선주님과 마주서고있었는데 머리는 폐의없이 어딘가 선주님의 발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주인님, 앓아누운 마누라가 벌써 몇끼를 넘겼기에 이 고기를...》

나는 그제야 아버지 손에 몇마리의 고등어가 쉼오리에 꿰여있음을 보았다.

《그런즉 내 몰래 술한 고기를 훔쳐갔겠군.》

옆으로 길게 찢진 보세선주님의 눈 흰자위가 저녁빛에 불처럼 번뜩거렸는데 가슴에 드리운 금시계줄도 바로 그렇게 번뜩거렸다.

《아니올시다. 오늘 처음...》

아버지 손에서 고기꺾미가 가볍게 떨리고있음을 나는 눈으로 보았다기보다 몸으로 느꼈었다.

《처음이면 좋아. 그러나 그런 나쁜 버릇을 가르쳐주면 안돼.》 하더니 보세선주님은 아버지손에서 고기꺾미를 나누쳐 따라나온 승냥이같은 개앞에 던져주는것이였다. 개는 코를 몇번 벌름거렸을뿐 입에 대지도 않았다.

《이보시오, 그래 앓는 사람 못먹게 개주는 심보

가 어디 있소.》

누군가 옆에서 분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하였으나 파도소리에 나는 듣지 못하였다.

《물고기주인은 나야. 물고기를 먹겠으면 돈을 내란말이야 돈을!》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돌아섰는데 눈에는 틀림없이 눈물이 피었으리라 생각하니 당장 그리로 뛰어가고싶었다.

뛰어가서 보세선주놈앞에 주먹을 내보이며 《이보시오, 그대 사람이 개만도 못하단말이요.》 하고 항변하고싶었다.

그리고 물고기로 말하면 잡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이니 주인도 우리 아버지이지 결코 당신일수 없다고 불공정을 까밝히고싶었다.

그러나 앞으로 몇자국 옮기던 나는 곧 주춤하고 멈춰섰다.

학교에서 공부하고있어야 할 내가 낡은 어른의 농립을 눌러쓰고 고기다래끼를 멘 비참하다 할 자기의 물골을 본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노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것이였다.

8부바줄로막이 상기되었으나 그것은 이제와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나는 아버지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는 자각으로 에돌아 거리의 뒤골목길로 걸어갔다.

그때의 나의 심정은 이제 약 몇천만 사면 이 모은 불행이 깨끗이 가실듯만싶었다.

시장안은 벌써 웅덩이그렇하였고 외등이 선 구석쪽에 몇명의 로파들이 앉아있었는데 그들도 이제는 퍼놓았던 물감이며 고추가루 등속을 주섬주섬 거두고있었다.

나는 시장 첫어구 낡은 연극광고가 붙어있는 게시판 밑에 자리를 잡고 앞으로 지나가는 로파들에게 《물고기를 사주세요 네, 물고기를요.》 하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난생 처음 해보는 말을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놀랐다.

로파들이 지나가고 이어 어스름속에서도 유한부인임에 틀림없는 좋은 옷차림에 피부색이 흰 아주머니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앞으로 다가왔다.

《아주머니, 물고기 사세요.》

나는 처음보다 더 자신있게 말하였다.

《젊은 장사치군.》

유한부인은 허아래소리로 거드름을 부리며 들고있는 돈지갑을 맏시있게 한번 돌리더니

《그래 어떤 고기들이요. 물은 낡지 않았소?》 하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상대방이 어른처럼 대해주자 바로 내자신도

어른처럼 처신해보고싶은 생각이 났다. 그것은 아이의 물건이라 하여 값을 무턱대고 깎아낼수 있기 때문이였다. 그리고 될수록이면 내가 이 부문에 경험도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도 필요하리라 타산하였다.

《참 아주머니, 보면 모르오.》

나는 제법 굵은 목소리를 냈다.

《팔팔 뛰는 우레기에 이 왕섬은 아직 바다물이 마르지도 않았소.》

《기름진 이면수는 없수?》

《이면수?》

나는 목안을 굵어내며 마른기침을 몇번 뱉었다.

다래끼속에 이면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저 없다고 말하면 유한부인은 분명 엉뚱아져 가버릴것이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큰 랑패였다.

흐린 하늘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는 비방울이 마음을 더욱 초조케 만들었다.

나는 고향어부들이 하던 말본새들을 모조리 상기해가면서 재빠른 어조로

《아주머니, 이면수는 뭇 첫물을 갖다 드릴테니 오늘은 이 우레기를 가져가오. 우레기잔등살은 이면수코등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소.》 하고 가장 경험많은 배사공할아버지의 어조로 말하면서 빌붙었다.

《흥, 그래도 난 꼭 이면수코등을 먹고싶은걸.》

유한부인은 내가 빌붙자 더욱 재세를 부리며 업신여기듯 턱을 건들 쳐들고 머리를 돌려버렸다.

그러면서도 자리를 뜨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워 전혀 부자연한 웃음까지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뭘 그러오. 그럼 내가 양보해서 이면수 한마리 값에 우레기 두마리를 놓지요.》

《흥》 하고 상대방은 코방귀를 뀌면서 신경질적으로 돈지갑을 딱 소리 나게 닫아버리는것이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나는 자신이 어른처럼 처사하려던 애초의 생각이 가뭇없이 잊어버리고 낡은 농립을 벗어던지며 애원하였다.

《아주머니. 어머니가 앓아서 약 사려고 그러는데 좀 동정해주세요.》

《아니, 이건 아직 어린애가 물고기장사를...》

《그래요. 어머니가 죽어가고있어요.》

나의 목소리는 내자신에게도 몹시 측은하게 들리였다.

상대방은 그래도 응하려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그럼 세마리를 놓겠어요. 이건 좀 너무하지만.》

유한부인이 나의 약점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전혀 헐값으로 빼앗기 위해 계교를 부리고있음을 알지 못한 나는 이렇게 말려들었다.

《좋아.》

유한부인은 짐짓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하며 돈지갑을 열었다.

《어머니가 앓고있다니 안됐구나. 아직 어린것이 물고기장사판에 끼이다니. 옳다 받아라 이면수 한 마리에 우레기 다섯마리만 놓아라. 난 그이상 더 받지 않겠어.》

《우레기 다섯마리요?》

《왜 싫느냐?》

《그런 법이 어데 있어요.》

《애, 싫으면 그만둬. 난 그래도 네가 불쌍해서》

유한부인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

《저따위것들에게 동정심은 필요없다니깐.》

《아주머니.》

나는 이렇게 유한부인을 불러세웠다. 그리고 곧 후회하였으나 나는 결국 이면수 한마리값에 우레기 다섯마리씩을 넘겨주어야 했다.

이것은 처음 타산과는 너무도 엄청난 차이였다.

까닭모를 울분과 억울함이 일시에 가슴에 차올라 부지중 땅이 꺼질듯한 한숨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땅에서 덩구는 낡은 농립을 눌러쓰고 비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유한부인이 큰놈으로만 골라가고 남은 자자부레한 우레기와 섭 등숙을 내려다보는 나는 락심으로 하여 날이 어두워지는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갈래갈래 찢어진 무거운 구름덩이들이 비방울을 뿌리며 어디론가 쫓겨가듯 흘러가는 모습은 마치 나의 처지와도 같았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야야, 내 걱정은 말고 공부나 잘하거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 내가 어머니의 깨저들어간 눈을 오래동안 들여다보는것을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가냘픈 어린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학교에도 못갈 처지였고 약한척 지을 가능성도 없었다.

어머니병을 고쳐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던 나의 희망은 그대로 수포가 되어야 하는가?

어딘가 시장어구쪽에서 축축한 땅바닥을 디디는 발자국소리가 났을 때 나는 물속에서 쪼오리를 보았을 때와 같은 새로운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며 그 쪽을 돌아보았다.

《물고기 사세요.》

발자국소리가 나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어둠속에서 허수룩한 옷차림의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물고기를 사라고 웨치지 않았다.

구차한 사람에게서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이 명백하였던것이다.

나는 두번째 절망에 잠겨 더욱 짙어가는 어두운 하늘을 원망의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어느쪽에선가 불어온 싸늘한 저녁바람에 머리우에서 낡은 광고의 찢어진 조박이 애처로운 소리를 지르며 파르르 떨고있었다.

허술한 사람이 나의 앞에 왔을 때 나는 별로 관심도 돌리지 않고 갈피없는 제생각에 그대로 잠겨있었다.

《여보슈, 물고기 세마리만 주구려. 돈이 이뿐이 돼서...》

그 사람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물고기를 사겠소.》

나는 어째선가 통명스럽게 반문하면서 계속 어머니의 생각에 골몰하였다.

《예, 앓아누운 마누라가 벌써 몇기채...》

나는 흠칫하고 몸을 떨며 머리를 돌려 목소리임자를 마주보았다.

바다바람에 튼 거뭇한 얼굴, 짙은 눈썹, 언제나 철문같이 꼭 닫혀있는 두터운 입술, 거친 목소리 틀림없는 아버지였다.

나는 손에 들고있던 물고기다래끼를 땅에 떨어뜨렸다.

(선주놈에게 고등어를 빼앗기고 이리로 오셨구나.)

매일 수천수만의 물고기를 제손으로 잡으면서도 시장에 와서 아들의 물고기를 사야 하는 불우한 나의 아버지!

무거운 8부바줄토막으로 모질게 매를 치며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듯 간절히 소원하던 그 아들이 물고기장사군이 된것을 보지 않을수 없게 된 나의 아버지.

나의 눈에서는 견잡을새 없이 두줄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그러슈?》

《흑...》

《?》

마침내 나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속에 울렸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 저예요.》

나는 낡은 농립을 벗어 내동맹이치면서 아버지의 두무릎을 끌어안았다.

《저를 그렇게 몰라보세요.》

《아니 너 동해가 아니냐?》

《그래요, 동해예요.》

표현키 어려운 침묵이 두 부자의 가슴을 허벼내렸다.

똑똑... 계시판 널판자지붕에 떨어지는 비방울소리...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공책은 어찌고 여기 와서 고기다래끼를 끼고 앉았느냐.》

함마같은 아버지의 주먹이 나의 잔등을 쳤다.

나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치었다.

《이 자식아, 그래도 너만은 공부하여 수모를 받지 않고 살기를 바랬더니 여기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물고기장사를 해.》

아버지의 목에서는 어느날 밤 8부바줄토막으로 나를 치고나서 돌아누워 눈물을 삼키느라 이상한 소리를 내던 그런 소리가 연해 들려왔다.

아들을 와락 품에 안은 아버지의 육중한 몸이 부르르 떨렸다.

손에서 돈일이 락엽처럼 바람에 흩날렸다.

《이 자식아, 누가 이따위짓을 시키드냐. 말 좀 해라.》

《우리도 잘살아 경배자식이나 왜놈선생한테 수모받지 않고 살고싶었어요.》

나는 흐느낌으로 토막토막 끊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럼 학교에서도...?》

《아버진 학교가 어떤곳인줄 알기나 하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면 수모를 받지 않는줄 아세요.》

아버지는 8부바줄토막으로 나를 무섭게 때리면서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 수모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으나 학교에서 있는 일은 다 몰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느때 누구에게나 하소연하고 싶었던, 장화로 만든 실내화사건과 그밖에 눈물을 머금으며 목격했고 허끝을 깨물며 참아왔던 그 많은 사연들을 하소연하였다.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눈물인지 비물인지 씹없이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하고있는 나역시 그러하였다.

그리고 마감에 나의 견해, 아버지가 더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고 어머니병이 나으며 우리도 잘살수 있으리라는것을 덧붙여 밝히었다.

커다란 손바닥으로 묵묵히 얼굴을 훑치던 아버지는 돌연 어성을 높이며

《이 자식아, 그래 우리가 못사는게 내가 부지런하지 못한때문인줄 아느냐.》 하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없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놈아, 부지런하면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

아버지는 소금물에 절은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윽하여 못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돈있는 놈들이 교묘하게 다 빼앗아가기때문에 애써 노력해도 잘 잘수 없다는데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하긴 아직 너는그 깊은 내막을 다 리해 못할게다.》 하면서 다시한번 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나는 돌연 눈이 웨쳤다.

《아니, 나도 그 내막을 알아요.》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금 유한부인과의 관계를 상기하였던것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유한부인이 이면수 한마리값에 우레기를 다섯마리씩으로 빼앗아가던 그 경우도 포함된다는것을 나는 리해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때 아버지는 《그것 봐라. 이 세상은 그렇게 돼먹은거야.》 하고 더욱 확신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던 나의 희망이 얼마나 천진한 것이었던가를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는 잘 살수 없으며 따라서 돈가진 보세선주나 유한부인같은 인간들이 있는한 천대를 면할수 없음을 또한 리해하였다.

그리고 더욱 우울해진 아버지와 자신을 돌아보면서 비로소 마을이나 사람들속에 배회하는 우울증이 결코 자연의 탓이나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잘 사는 놈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치지않고 등쳐먹고 천대하기때문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람루한 두 부자가 비가 짹짹 쏟아지는 진창길을 물참봉이 되어 걸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눈물겨운 정경이었다.

뒤쪽 먼 산너머쪽에서 우뢰가 울었다.

아버지는 내 손에서 고기다래끼를 빼앗아들고 말없이 생각에 잠겨 걸었다.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사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새롭게 따져봤으리라하는것만은 단언할수 있다.

내자신도 바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걸었던 것이다.

《웁지, 바로 걸렸군.》

돌연 앞에서 들리는 커다란 목청에 우리는 흠칫 놀라 머리를 들었다.

바로 몇걸음 앞에 보세선주놈이 한손에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숭늉이같은 개의 끈을 쥐고 서있었다.

문득 나는 언젠가 어른들에게서 보세선주놈이 배들어온 뒤면 배군들이 고기를 몰래 가져다 팔지 않나 하여 어시장에 나와본다고 하던 말이 상기되었

다. 저놈이 그래서 나온게 아닌가.

《어디 갔다와?》

아버지는 묵묵히 대답이 없었다.

《어디 갔다오냐말이야.》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였다.

보세선주님은 대답없는 아버지가 더욱 수상쩍은
듯 고기다래끼를 보더니

《옳지, 물고기로군.》 하면서 다가왔다.

《이건 내가 잡은게요.》

내가 참지 못해 내쫓았다.

《개놈자식, 거짓말 말아, 거러지같은 네것들께
무슨 여유가 있어 팔 고기까지 있겠다구. 아까 고등
어를 빼앗아냈는데 기어이 내 눈을 속여 훔쳐냈구
나.》

내가 격분하여 입술을 떨고있을 때

《무엇이라구?》

아버지가 머리를 번쩍 들며 고함을 질렀다.

《이 고길 도적질했다구?》

《아니면 뭐야.》

고기다래끼를 든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
니 《엑》 소리와 함께 다래끼가 보세선주님의 면
상으로 날아갔다.

《이놈아, 돈이 있다구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도
적 루명을 씌우면 되는줄 아느냐. 배놈은 버려진줄
아느냐. 이놈아, 버려지도 밟으면 꿈틀거려.》

보세선주님은 손에서 개를 풀어놓았다.

승냥이같은 개는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나는 돌맹이를 주어 개면상을 힘자라는것 쳤다.
개는 면바로 맞고도 달려들었다.

《저놈을 쳐죽일래. 쳐죽일래.》

나는 다시 돌맹이를 찾으며 같은 말을 외우고 또
외웠다.

《쳐죽일래.》

내가 돌맹이를 들었을 때 개는 꼬리를 늘어뜨리
고 주인놈의 사타귀로 도망쳤다.

나는 승리자마냥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함마같은 주먹을 부르쥐고 보세선주님
앞으로 다가가고있었는데 얼굴에는 우울이 없었
다! 눈이 빛났다.

그 발건은 나를 몹시 흥분시키었다.

(아니야, 결코 우리 아버지는 본래 우울한 사람이
아니였어. 보세선주님때문이야. 저놈에게 천대받아
우울해졌어. 쳐죽일래, 쳐죽일래.)

나는 손에 쥐었던 뽕족뽕족 모가 난 돌맹이를 힘

껏 내던졌다.

우뢰가 가까이 다가왔다

짜르릉! ... 번쩍! ...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사위는 대낮처럼 환히 밝
아졌다.

《귀퉁 귀퉁...》

꽃바자그림자밑에서는 귀뚜라미가 여전히 쉽
이 울고있었다.

달도 그 위치에서 그 빛으로 빛났고 방파제를 때
리는 파도소리도 봉- 울리는 원양운반선의 기적소
리도 모든것은 여전히었다.

그러나 철우에게는 웬일인지 모든것이 조금전과
는 다르게 보이는듯하였다.

《네 말대로》

아버지는 타버린 담배꽂초를 털어버리고 물부리
를 호주머니속에 넣으면서 말했다.

《네 말대로 평범한 어로공이 평생의 소원이었구
그 소원을 성취할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

하지만 세상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직업을 택할
너희들의 그 권리가 배꼽이 떨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것은 아니라는것을 너도 잘 알거다.》

《그래요.》 철우는 수긍하였다. 《그걸 모르는 청
년들이 있을라고요.》

철우의 어조는 처음과 같은 응석받이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암 그렇구말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간의 존엄
을 주시여 그 권리도 차레지게 되었다는것을 모르
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너희 청년들은 이렇듯 명
백한 진리를 때로는 잊는 때가 있거던. 그것이 응당
한것처럼, 마치 태양의 빛을 받는것을 응당한것으
로 여기듯이.》

《그래요.》 이번에도 철우는 수긍하였다. 《참,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우리들의 소원이 쉽사리
성취되는 이 제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너무
행복하여...》

아버지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피어났다.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말아라.》

달은 더 밝게 비치고 《귀퉁, 귀퉁》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영글어만간다.

철우에게는 귀뚜라미가 마치 아버지의 옛말을 잊
지 말라고 귀뻐하듯 《귀퉁 귀퉁》 하고 우는것같았
다.

《귀퉁 귀퉁 귀퉁...》

되박

최종성

우리 집에는 대를 물려오는 되박이 있다.

되박이래야 지난날 그 무슨 싸전같은데서 쓰는 그런 나무되박이 아니라 흔히 농촌에서 보게 되는 잘 영근 박을 절반 타서 맞춘 되박이다.

그것이 할머니가 시집오던 그해에도 있었다고 하니 아마 수십년도 넘은 세월에 우리 집살림살이를 지켜보았으리라!

할머니의 손에 다스려지고 또 어머니의 손을 거쳐 오늘에 이른 되박!

하 오랜 세월 가난과 눈물에 절은 되박은 금이 간데다가 이가 빠져 보기가 흉하다.

어느날 쌀공급을 받아가지고 쌀독을 채우던 나의 안해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그 되박을 들고 저혼자 킁킁 웃더니 《어머니, 이거 내버리자요. 공상스럽게…》 하고 어머니의 무릎앞에 내놓았다.

아무 말도 없이 되박을 한동안 쓸어만지는 어머니의 눈가에는 알수 없는 물기가 어려도는것이였다.

무슨 일로 저러실가!

《나 죽은 다음엔 몰라도 내가 살아있는동안은 그냥 뒤흔려두나.》 하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리였다.

《…저 사람 누이가 여섯살나던 해였다. 자래를 앓아 떨어진 감꽃같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애가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와 하는 말이 <엄마, 앞집은 이밥을 해먹어요. 어머니 밥할줄 몰라요. 나 장물이라도 좀 타주세요.> 하고는 자리에 드러눕는데 애 손에는 누가 먹다가 버린 사과속이 쥐여있었다. 그것이 너무도 애처로와 이 되박을 들고나가 쌀을 한 되 되여서 꺾가지고 왔다. 그런데 누운 애가 기척이 없기에 잠이 들었나 해서 보니… 숨이 없었다. 글썽 그것이 이 되박으로도 될수 없는 쌀 한줌이 없어서 이 어미가슴에 그다지도 모진 못을 박고 죽을줄이야…》

나의 가슴속에는 무엇인지 모를 뜨거운것이 꼭

차올라왔다.

되박으로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였을 어머니!

되박에 저렇게 금이 간것처럼 어머니 가슴에도 금이 갔으려니, 그래도 되박에 간 금은 께맸지만 어머니가슴에 간 금은 께맸수도 없었으리!

《어머니, 제가 미쳐…》 안해는 고통으로 눈을 찌으며 말끝을 먹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치원마당에서는 어린것들이 교양원의 손풍금 소리에 맞춰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춤을 추며 돌아갔다.

해맑은 얼굴에 별빛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들, 꽃잎같은 입술에 웃음이 남실거리는 저 어린것들이 춤고 배고픈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랴!

그 어린것들의 유희를 내려다보는 나에게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다음과 같은 교시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새로 자라난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본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알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행복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지주, 자본가들의 간악한 착취와 압박을 받던 부모들의 지난날을 잘 알고있다.

먹을것 입을것 모든것이 넉넉하고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는 우리의 생활에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복이 그저 웅당한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저 어린것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꽃피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배고파하는 사람도 없다.

애들은 어머니배속에서 떨어지자부터 밥먹을 권리를 가지며 나라에서는 다달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쌀을 공급해주고있다.

누구나 일하고 배우고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고마움과 은혜로움을 그렇게는 다 헤아리지 못한다.

이 수필의 제목으로 된 문제의 그 되박이 지금 우리의 생활에 별로 요긴한 생활도구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눈물겨운 사연이 깃들어있는 되박을 볼 때마다 우리 생활에 넘치는 행복에 대해서 가슴뜨겁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한끼 되쌀도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어 담았다가는 되쫄고 쫄았다가는 다시 담던 어머니의 손때묻은 그 되박으로 다달이 받아안은 희디흰 쌀을 우리의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되여볼 때면 나는 왜서인지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다.

...해저무는 저녁에 끼니가 없어 쌀을 꾸러 갔다가 빈 되박을 들고 풀이 죽어 들어오던 어머니의

모습도 그대로 눈에 삼삼!

밀창이 드러나 아무리 훑어야 되여볼것이 없는 빈 쌀독만 굶던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가슴에 젖어 드는듯...

가난과 한숨을 되박으로 되며 눈물속에 살아온 어머니! 빈 쌀독을 굶을 때 어머니의 가슴도 그렇게 굶히고 아팠으리라!

그러나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늘의 우리의 풍요한 생활을 느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 해주신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아무리 되고 또 되여도 다 될수 없는 우리의 넘치는 행복을 두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는 가난과 한숨을 되며 살아온 어머니의 지난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넘치는 우리의 행복을 더 높이높이 쌓아가리라!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다시 출판한다

최근 문예출판사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다시 출판하게 된다.

장편소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력사적인 그날의 화폭과 지난날 토성랑이라 불리우던 보통강반의 빈민촌에 현대적인拉克원의 거리를 일떠세워주시는 사랑의 걸음걸음을 감동깊게 그려보이고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거리를 마련하여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을 커다란 서사시적화폭속에 담아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평양건설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건설구상과 그이의 현명한 명도를 받들고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의 기적 《평양속도》를 창조하는 빛나는 로력투쟁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꽃피워가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토성랑에서 나서 자란 리상철, 안오월 등 주인공들이 어떻게 참된 로동계급으로 성장하여가며 청춘을 값있게 빛내여가는가 하는것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첨예한 투쟁, 이 과정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대주의 등 낡은 사상이 창조의 격류속에 여지없이 부서져나가는 과정, 새 인간들의 탄생과정들이 깊이있는 생활묘사와 진실하고도 개성적인 성격형상으로 펼쳐지고있다.

소설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와 로동속에서 맺어지는 고상한 애정률리도 잘 그려져있다.

이렇듯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우리 사업과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서 독자들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 믿는다.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생동한 화폭

-중편소설 《락동강》에 대하여-

류만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인민군용사들은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원수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쌓아올렸다.

주체의 혁명위업수행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우리의 혁명문학은 그 화폭의 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면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적극 반영하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중편소설 《락동강》(엄단웅)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옹계 구현하여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작품창작을 위한 예술적탐구과정에서 우리 혁명문학이 이룩한 자랑스런 결실의 하나이며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힘있게 구가한 생동한 예술적화폭이다.

작품은 서울을 해방한 이후부터 락동강도하전투에 이르기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최경민대대장이 지휘하는 인민군 한 구분대의 투쟁로정을 집중적으로 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인민군용사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대중적영웅주의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다양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은 몇몇 병사들의 영웅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적영웅주의에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허다한 영웅성과 용감성은 그들이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니고 있는 자기들의 성스러운 의무를 철저히 자각하고 있으며 그것을 빛나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입니다.》

대중적영웅주의는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며 그들의 중요한 성격적풍모의 하나이다.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본질적특징으로 되는 대중적영웅주의는 언제나 구체적인 인간과 그 생활속에서 표현되며 또 개성적으로 그려질때에만

커다란 사상정서적충격과 감동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락동강》에서의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는 그것이 지휘관들의 이신작적의 모범, 높은 요구성과 전사들의 자각성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확고한 계급의식의 발현과 남녘해방의 숭고한 의무감과의 통일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과 구체적인 내면세계를 통하여 생동하게 구현된데 그 특성이 있다. 그리하여 작품에서 주인공 최경민대대장으로부터 한 전사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인민군용사들의 모든 성격을 관통하며 힘있게 울려나오는것은 숭고한 영웅성이며 크고작은 모든 사건들과 세부들도 다 그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구가하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는것이다.

중편소설 《락동강》에서의 대중적영웅주의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평범한 인민군용사들의 성격에 대한 심오하고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인민속에서 나온 수많은 우리영웅들의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웅의 형상을 그린다고 해서 진기한 사실, 전설적인 비범한 인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태도로써는 우리의 영웅들을 옹계 묘사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있는 고상한 사상과 신념, 그들의 꾸밈없는 소박한 행동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영웅들이 될것입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의 성격을 형상할 때 그가 어떤 시대, 어떤 처지, 어떤 계급적태대에서 자라난 인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영웅들은 다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그들의 자제들이다. 영웅을 그린다고 해서 그 어떤 진기한 사실, 비범한 인간을 찾는것은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올바른 리해와 관점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하여서는 사실주의적전형을 실현할수 없다.

우리의 영웅들을 옹계 그리자면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였으며 그들의 자제들이었

던 주인공들의 사상과 감정, 내면세계를 사실 그대로 그려내야 하는것이다. 그래야 영웅적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고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훌륭하게 일반화할수 있다.

《락동강》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과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어제날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으로서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개성화함으로써 대 성격에 체현된 영웅성을 깊이있게 그려내었다.

주인공 최경민을 비롯한 대 등장인물들은 각이한 출신과 경력을 가지고있다. 어려서부터 광산노동과 머슴살이, 사나운 바다우에서 갖은 설움과 고역을 맛보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부름꾼으로, 급사로 구박속에 살아온 사람도 있으며 해방 후 당일군으로, 교원으로, 고종과 대학의 학생으로 지내던 사람도 있다.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있는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심으로써 비로소 참된 삶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였다.

작품에서는 각이한 환경에서 자란 그들의 이러한 생활경력과 함께 그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대 인물들의 성격의 개성적특징을 뚜렷이 제시하고있는 것이다.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높은 군사실무능력, 확고한 자기 신조, 엄격한 요구성과 규률,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대대장 최경민, 절도있는 동작과 정중한례절과 언제나 간단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군인다운 풍격을 갖추고있는 군사부대대장 전창길, 군인생활보다 사회생활이 더 몸에 뱀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문화부대대장 김성태 등 대대와 중대의 지휘관들은 물론 원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에 복받쳐 때로는 군사규률을 어기기는 하나 고향에 대한 열렬한사랑과 투쟁의욕에 불타는 분대장 강호범이며 락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리종활, 분대의 좌상이며 초급선동원인 라명훈과 분대의 막내동생으로 치부되고있는 열여덟살의 장문학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얼마나 개성적인가!

어제날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였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웅적인민군용사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내면세계,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태어난 고장과 자라난 환경도, 걸어온 생활로정도 각이하고 생김생김과 취미, 성격도 서로 다른 주인공들의 영웅적성격속에 자리잡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감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혁명가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

를 진실로 감명깊게 보여주려면 그러한 혁명정신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것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작품에서는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성의 바탕에 깔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과의 련관속에서 깊이있게 그려내었다.

전 전선을 지휘하시고 온 나라를 돌보셔야 하는 것처럼 긴장한 때에도 락동강도하를 앞둔 한 구분대에 친히 전화를 거시여 탁월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사들을 승리에로 고무하시며 포가 매우 긴장한 조건에서도 전사들에 대한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으로 선견대의 임무를 맡은 한 대대의 도하를 위하여 련포군이 아니라 사포군의 지원을 명령하시는 장면을 비롯하여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이 감동적으로 그려져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그 어느 한 대목에서가 아니라 이야기줄거리의 전개와 발전의 전과정에서, 크고작은 모든 인물들의 사상과 감정, 활동의 중심에서 일관하게 그림으로써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히고 주인공들의 영웅성의 바탕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항일투사인 련대장 오현무를 비롯한 작품에 그려진 모든 인민군용사들이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크나큰 긍지와 행복에 가득차있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그이의 명령관철을 위한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바쳐갈 확고한 신념에 넘쳐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원쑤와의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던것이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오현무련대장이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싸우던 그날의 그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이며 대대장 최경민이 사단 선견대로서 생명의 위협까지 각오해야 하는 무거운 임무를 두고 그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전략적방침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꼭 해내겠다고 대답하는것, 그리고 문화부대대장 김성태가 최후의 순간에 전쟁이 끝나면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열병식에도 같이 가려던 크나큰 소원을 못이룬 그안타까운 마음으로 열병식에서 자기의 몫까지 합쳐 《김일성장군 만세!》를 더 불러줄것을 간절히 부탁하는것이며 강호범과 리종활이 남녘땅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이 가닿을 그날을 그토록 열망하면서 억세게 싸워나가는것 등은 인민군용사들의 가슴속 소중한곳에 고이 간직된 충성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빛나는 화폭들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열렬한 충성심은 모든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핵을 이루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인민군용사들의 뜨거운 충성심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면서 충실성에 기초한 영웅적성격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우선 최경민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전투 임무수행에서의 높은 책임성, 군사규정과 규률에 대한 강한 요구성,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신작칙의 모범은 중요한 측면을 이룬다. 주로 대대장 최경민, 군사부대대장 전창걸, 문화부대대장 김성태를 통하여 제기된 이러한 문제들은 그자체의 묘사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생활적기초를 밝히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되고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대장 최경민의 경우를 놓고보자.

련대작전참모로 있던 그가 대대장으로 갓 임명받고 남진하는 대대를 따라잡았을 때 첫인상은 대원들의 사기도 좋고 투지도 높았으나 규률과 질서가 다소 문란한것이였다. 이것은 일부 지휘관들과 전사들에게 있어서 전투환경이라는 객관적조건에 의한 《불가피》한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전창걸에 의하여 어느정도 묵인되어온것이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경민은 전사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것과 함께 그러한 요구성의 높이에서 이신작칙하는 모범을 보인다.

주인공 최경민의 성격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작품의 줄거리는 그의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칙의 모범이 어떻게 대대를 영웅적위훈으로 이끌어어나아가는가 하는 문제와 통일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에서는 최경민의 형상을 통하여 지휘관들의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칙의 모범은 인민군용사들에게서 표현된 대중적영웅주의의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는것을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모든 전사들이 항상 지휘관인 동무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전사들은 전투에서 동무의 낮빛을 보고 힘을 얻어 용감해질수도 있고 혹은 동무의 낮빛을 보고 사기가 떨어질수도 있소. 따라서 지휘관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전사들이 믿을수 있고 그들이 마음놓고 의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기둥이 되여야 하오...》

언젠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오현무련대장에게 들려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대로 최경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그의 생활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신조로 되였다.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경민의 이러한 생활신조가 어떻게 투쟁과정에서 훌륭히 실현되며 전사들을 영

웅적위훈으로 불러 일으켰는가 하는것을 대대에 부임하자바람으로 큰길가에 정한 숙영지를 이동시키며 구분대장회의에서 좀 해이된 군풍기를 바로잡으며 강행군을 지휘하는 등 기본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특히 대도로상의 요충지인 피암동에서 적퇴로를 차단할 임무를 받고 8 시간안으로 120 리행군을, 그것도 30 분이나 앞당겨 훌륭히 보장한것은 그의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칙의 모범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는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모든 일에 지휘관이 앞장서며 전사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였기에 부상자리가 도져 동통이 심해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오히려 지친 부대를 앞장서 이끌었으며 병원에서 《도망》한 강호범과 리종환을 엄격히 타일러 병원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사단의 선전대대임무를 맡고 이 어려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그의 내면세계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부대안에 그 어떤 사소한 무질서와 해이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군사 규범과 규률을 철저히 지킬 줄 알며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하는 최경민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인민군지휘관의 형상을 진실하게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의 형상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무비의 영웅성은 강철같은 규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며 바로 지휘관의 이신작칙의 모범, 높은 요구성과 전사들의 자각성이 옹결 결합됨으로써 참다운 영웅주의가 발현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인민군지휘관들의 이러한 성격적특징을 보여주면서 최경민의 성격을 보충하고 풍부히 하는 인물들은 군사부대대장 전창걸과 문화부대대장 김성태이다.

부대 당일군인 김성태는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강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는 일군이다. 그는 어려운 강행군때에는 전진하는 대오속에서, 진지굴설의 간고한 작업시에는 고지우에서 전사들과 함께 행군하고 일하며 언제나 정치사업을 선행해나간다. 뿐만아니라 그는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지의 전사들에게 물을 길어다주며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따듯이 돌보아주는 어머니다운 품성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좀 텅텅하기는 하나 전창걸 역시 군인다운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적극적인 일군이다.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이들의 성격은 일상생활과 행군, 전투에서의 모범을 통해서 특히 302 고지전투에서의 김성태의 장렬한 최후와 반땅크습격조의 앞장에 선 전창걸의 자기희생적인 투쟁을 통해서 생동하게 형상되였다.

비록 이러저러한 부분적인 성격적약점이 있기는 하나 최경민, 김성태, 전창걸은 다 서로의 부족점을 보충하고 우점을 풍부히 하면서 전사들을 영웅성으로 불러일으킨 인민군지휘관들의 미덥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그리는데서 지휘관들의 높은 요구성과 이신작적의 모범, 전사들에 대한 육친적사랑의 감정을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매 전사들의 영웅적성격의 발현을 개성적으로 다양하게 그리었다.

그가운데서도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와 높은 계급적자각에 대한 깊은 추구는 주인공들의 영웅성과 애국적감정을 특징짓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전사들의 비참한 과거생활에 대한 묘사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고향을 남녘땅에 둔 강호범분대장이 어려서부터 머슴살던 과거생활과 적후투쟁과정에서 불쌍한 아버지의 희생을 목격하게 되는 과정은 전사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때문에 원쑤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자비하고 전투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었는가를 형상적으로 확인해준다.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높은 계급적감정과 함께 그들의 숭고한 리상과 념원,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랑만은 또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내적요인으로 깊이있게 형성되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혁명가들의 정치적신념과 강요한 의지만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적인 심리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락동강》에서는 매 인물들이 가지고있는 리상과 포부, 념원을 그들의 지난날과 현재, 미래와의 련관속에서 진지하게 그려내었다.

어렵고 힘든 때, 생활과 투쟁의 매 순간은 물론, 준엄한 전투를 앞둔 때 강호범의 생각은 원쑤들을 죽이고 고향마을과 남녘땅을 기어이 해방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마을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아름다운 리상과 잇닿아있었다. 리종환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원은 갈라졌던 혈육들의 상봉을 절절히 바라던 마을사람들의 당부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생각과 결부되어있으며 농민출신인 림태복의 경우에는 해방후 차례진 아름다운 행복에 대한 추억과 결부되면서 온 나라가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날을 앞당길 투쟁의 결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남다 쉬는 짬에도 참대로 악기를 만드는 장문학이며 초급선동원 라명훈 등은 다 아름답고 소박한 리상과 포부를 가진 생동한 개성으

로 전형화되었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는 매 전사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 구체적인 계급적감정과 생활적인 리상, 포부를 그림으로써 바로 이러한 성격적바탕으로부터 그들의 영웅성은 가장 높고 심오하게 발현될수 있었다는것을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주인공들의 이러한 사회계급적 및 생활적바탕과 그들의 내면세계에 자리잡고있는 리상, 포부 등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제시되어있기에 우리는 강호범과 리종환이 병원에서 《도망》하고 대오에서 떨어져서 부상당한 몸으로도 기어이 부대를 따라오는 것이며 사랑하는 아버지와 안해와 어린 딸을 놔들에게 잃고 때로는 분노를 참지 못하기도 하며 때로는 혼자의 슬픔을 묵새기면서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 영웅성에 불타는 정신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바로 이들이 병원에서 《도망》하여 부대를 따라서면서부터 락동강을 도하하여 302고지에 강호범이 공화국기발을 꽂기까지의 전로정은 그대로 소박한 보통사람들의 영웅성이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는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일관되어있다, 또한 락동강도하전투에서 발휘된 모든 전사들의 용맹성을 비롯하여 상처의 아픔보다 임무를 수행 못하고 쓰러질 걱정을 먼저 하며 부상자리를 대원들 몰래 싸매고 마지막까지 싸우는 김봉수중대장, 불뽕은 중기관총을 어깨우에 떠받들고 내리쏘는 적기를 무섭게 노려보며 바위처럼 버티어 선 림태복전사, 땅크습격조에 망라되어 영용하게 싸우는 림태복, 장문학의 영웅적위훈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영웅성이 그렇듯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안겨오는것은 결코 그 어떤 진기하고 요란한 사건이 묘사되었기때문은 아니다.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였던 강호범, 리종환, 림태복, 라명훈, 장문학... 들의 생활과 전투정황속에서 표현되는 사상, 감정, 심리를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있게 파고들으로써 《락동강》은 매 전사들의 성격속에 체현된 영웅성을 심오하게 밝혀내었으며 인민군용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이루는 대중적영웅주의를 작품전편을 통하여 힘있게 구가할수 있었다.

중편소설 《락동강》은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을 창조하고 그들이 높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를 생동하게 그리는데서 또한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린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을 취급하는 영화라고 하여 그저 전투하는 장면만 많이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생활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취급하는 영화에서도 마땅히 사람들의 생활을 그려야 하며 전쟁의 시련속에서 사람들의 혁명의식이 어떻게 발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전쟁주제영화를 만들 때에 많은 군사장비를 내놓고 전투하는 장면을 그럴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의의있는 생활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생활을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이며 특히 전쟁을 그린 작품에서는 전투장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그려야 인간을 보여줄수 있고 그의 사상, 감정, 심리를 생동하게 그려낼수 있다.

전쟁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서의 《락동강》은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는 물론 전투나 행군장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으로 그려내며 그 사상에술적능력이 있다.

물론 전쟁주제작품에서 전투장면이 설정될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중편소설 《락동강》에는 피암동전투며 락동강도하전투를 비롯한 여러 장면의 전투가 반영되어있으며 120리강행군을 비롯한 행군장면들도 설정되어있다. 작품에서는 전투와 행군장면을 그리면서 결코 그자체의 재현에 그친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의의있는 생활을 보여주는데 형상적초점을 돌리었다.

락동강도하전투의 준비와 그 진행과정 하나만을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성격을 보여주는 다양한 생활묘사로 충만되어있다.

대대장 최경민의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이야기며 리중환과 림태복의 편지사연, 락동강도하준비를 위한 채별장에서의 이야기며 1 중대대렬검열에 대한 일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한 대대 군무자모임장면, 락동강도하전투에서 발휘된 뜨거운 동지애에 대한 이야기 등은 다 주인공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의의있는 화폭들이다. 그가운데서도 강호범의 배낭에 깃든 사연은 얼마나 진한 생활적경위와 인간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생활일화인가.

물론 지난시기 전쟁주제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배낭이나 보따리에 대한 일화들이 적지않게 설정되었던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강호범의 배낭에 깃든 사연이 풍부한 생활적정서로 강하게 안겨오게 되는것은 그것이 단순히 그의 농

민적인 소박성, 생활적인 소원을 보여준 거기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작품에서는 앞부분에서 이 배낭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락동강도하를 준비하는 시기 련대장 오현무에 의하여 이야기를 지휘관들앞에서 다시금 반복하여 보여줌으로써 심오한 문제성을 제기하고있는것이다. 즉 지휘관들은 언제나 단순한 군사실무적립장에만 서지 말고 모든것을 계급적눈으로 보고 항상 정치적으로 사고하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의 정당성을 모든 지휘관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전사들의 귀중한 생각과 꿈과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그들을 혁명동지로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였다.

생활에 대한 이와 같은 의의있는 형상, 감동적인 묘사는 대대장 최경민의 높은 요구성을 보여주는 한 생활세부를 놓고도 이야기할수 있다. 대대의 실정을 료해하기 위하여 대대구분대장회의를 소집한 최경민은 여기에서 구분대장들의 옷차림, 신발, 목달개에 관심을 돌리며 부족점에 대하여 엄격히 추궁한다. 작품에는 이와 같은 생활세부가 두번 반복되고있는바 한번은 최경민자신이 극도로 피곤하여 쉬려고 눕는 순간 자신의 어지러워진 구두를 보고 다시 일어나 외모를 단정히 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것은 락동강도하를 앞둔 1 중대에 대한 대렬검열때에 그들의 깨끗한 목달개며 단정한 외모를 보여주는 장면에서이다. 일정한 시간적간격을 두고 그려진 이러한 생활세부는 최경민의 대원들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그 요구성의 높이에 자신이 앞장서려는 강의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휘관의 높은 요구성으로 하여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선 부대의 면모를 보여주는데서 커다란 형상적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는 이처럼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전투 그자체가 아니라 살고 숨쉬는 산 인간들의 생활을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그 생활속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사상, 감정, 심리를 섬세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감동적으로 그려내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성격이 그렇듯 개성적이며 그들이 발휘한 영웅성이 그렇듯 감동적으로 안겨오게 되는것도 바로 그 어떤 크고 요란한 전투장면이나 진기한 사건으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표현되는 내면세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울려나왔기때문이다.

중편소설 《락동강》은 인간성격과 그 생활에 대한 진실하고 생동한 묘사와 함께 또한 사건처리와 갈등설정을 비롯한 일련의 예술적형상에서 새로운 탐구를 보여줌으로써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

주의를 집중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작품은 락동강도하전투를 전후한 시기를 그것도 한 대대의 투쟁로정을 반영하고있는것만큼 사건은 크지 않고 시간으로도 매우 짧다. 그러나 작품에는 당시의 시대적환경과 전투분위기가 생동하게 재현되어있으며 생활이 매우 풍부하고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다. 이것은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릴데 대한 주제적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이다.

즉 작품에서는 줄거리를 사건적인것으로만 엮거나 피상적으로 스쳐지나간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림으로써 인간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병원에서 《도망》하여온 강호범, 리종활을 맞이한 장면이라든가 대대구분대장회의를 보여주는 장면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작품에서는 또한 적과의 대치상태에 있는 인민군대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 갈등의 직접적대상으로서 원쑤들을 등장시키고 그들과의 첨예한 관계에서 보다는 주로 인민군용사들 내부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전쟁현실을 반영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갈등의 설정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인민군용사들의 비할바없는 정치사상적우월성, 충천한 멸적의 투지를 강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그들의 승리의 불가피성과 영웅주의를 뚜렷이 보여주는 반면에 원쑤들의 정치사상적저열성과 멸망의 필연성을 형상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특히 작품에서는 그 엷음새진전의 전과정에 적련대장 민병렬의 선을 강호범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운명선과 치렬하게 대치시킴으로써 갈등의 첨예성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발현되는 인민군용사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예리하게 드러내었다.

또한 작품은 중편적용적에 맞게 사건을 적절히 선택하고 함축할데 가서는 함축하면서 생활을 깊이 파고든 측면이라든가 묘사에서 랑만적색조와 서정이 진하고 그 표현이 간결한 점, 그리고 세부묘사가 참신하고 생동하게 주어진것 등 일련의 긍정적측면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중편소설 《락동강》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심오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근로자들과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전쟁관점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며 우리의 혁명적인 전쟁문학을 발전 풍부화시키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뿐만아니라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여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러한 실정은 우리의 혁명문학으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근로자들과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반제혁명사상과 혁명적인 전쟁관점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작가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주제로 한 혁명적인 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함으로써 근로자들과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반제혁명문학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묘사는 소설형상의 생명이다

김재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라 엄격하게 선택되고 예술적으로 가공된 생활세부들은 그것을 기쁨지게 가꾼 묘사의 힘에 의해서만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만말할수 있다.

묘사의 목적은 생동한 화폭을 창조하는데 있다.

아무리 잘 꾸미고 길게 엮었다 할지라도 독자들이 눈앞에 화폭을 그려볼수 없으면 그 묘사는 실패한것이다.

묘사의 뒤에 서있는 사물과 현상이 현실이상으로 감수되고 오래동안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묘사는 성공한것이다. 얼마전에 읽어본 중편소설 《해빛아래》(하정희)의 한 세부묘사는 지금도 나의 눈앞에 선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인공의 초상묘사가 있다.

《작업반총화모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을 했다가 된서리를 맞은후 최신애는 확실히 달라졌다. 자그마한 그의 입은 늘 고집스럽게 꼭 다물어져있었으며 생긋생긋 웃을 때마다 살갗 맑은 불에 패우던 그 귀여운 볼우물도 더는 볼수 없었다. 그리고 눈은 늘 무엇에 좀 놀라거나 한것처럼 울렁해있었는데 그것은 흡사 무엇인가 알수 없는 물건을 앞에 놓고 쪼아먹을것인지 아니면 그만둘것인지 알지못해 노려보고있는 꽃병아리 눈과도 같이 의문에 가득차있었다.》

이것은 어느 작업반총화모임에서 끼니별로 모이를 줄수 있도록 설비를 개조할데 대한 발기를 내놓은 주인공 최신애가 작업반장을 비롯한 몇몇 보수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쳐 일시 고심하게 됐을 때의 초상묘사이다.

이 묘사에서는 수심에 잠긴 주인공의 얼굴모습과 표정까지 보이며 그것으로 하여 그의 심리세계의 변화가 어떤가 하는것까지도 느낄수 있다.

자그마한 입이 늘 고집스럽게 꼭 다물어져있었다든가 울렁한 꽃병아리 눈과도 같이 의문에 가득차있었다든가 하는 묘사를 통하여 최신애가 사업에서

락심하지 않고 기어이 과학적인 닭관리기술을 받아들이고야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앞으로는 사리를 따지면서 매사를 침착하게 처리해나갈것이라는 그의 사상정신세계를 화폭적으로 밝혀내고있다.

또한 이 묘사에서는 《생긋생긋 웃을 때마다 살갗 맑은 불에 패우던 그 귀여운 볼우물》을 끌어들이므로 독자들이 오늘의 한순간에 그늘진 최신애의 얼굴뿐아니라 언제나 때묻지 않은 깨끗한 충성심과 순박한 천진성, 활달하고 락천적인 그의 성격을 이해할수 있게 하여 벌써 형상창조의 심도를 보장하고있다.

묘사수법에서는 비유법과 대조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 문체적특성을 개성적으로 살리였다.

바로 이 소설은 이와 같이 화폭적인 생동한 묘사로 작품을 아담하게 꾸민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진진한 흥미를 끈다. 그리하여 결국 주인공 최신애는 가금업부문에서 과학적인 기술관리체계를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훌륭히 관철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가금전사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였다.

인물묘사에서는 대상의 특징을 표상할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간단히 주어 독자들이 그 인물의 윤곽을 잡은 다음에도 곧 그의 내면세계에 끌려들어가도록 묘사구성을 짜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대상의 특징에 대한 뚜렷한 표상도 없이 이것저것 지루하게 묘사해서는 장면을 그릴수 없으며 산만성과 조잡성을 면할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묘사는 절대로 서술로 되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그 인물이나 대상, 사물을 전달확인하여 개념을 주는데 그친다면 그것은 서술일것이다.

심리묘사는 인간성격의 내면적특징을 직접적으로 밝혀내는 힘있는 수단이다. 진실한 심리묘사는 오래오래 독자들의 머리에 남기도한다.

1930년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멸의 혁명정신을 밝혀낸 장편소설 《청년전위》에는 주인공 광림이와 명희와의 사랑관계의 절정부분에 다음과 같은 명희의 사색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심리묘사가 주어

지고있다.

《광림에 대한 그리움이 솟을 때마다 명희는 자신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내가 웬일일가. 그를 보기만 하면 왜 얼굴이 달아오르고 부끄러워질까? 어리석기도 하지. 나도 이젠 당당한 공청원이 아닌가. 혁명을 위해 피흘리는 이 마당에서 댄 생각을 가질수 있담.

우린 어떤 개인적사랑보다도 혁명적인 동지에 그런 사랑이 필요하지, 참 난 부질없는 처녀라니까. 다시는 댄 맘을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때뿐이었지 광림이만 만나면 봄별에 녹는 눈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곤하였다.》

우리는 이 속대사를 통하여 명희가 광림이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는것 그리고 그 혁명적사랑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를 설명없이도 명백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부합된 혁명가들의 동지적인 사랑이야말로 가장 참되고 고상한 사랑이며 영원하고 행복한 사랑이라는것, 이런 애정을 지닌 청년전위들의 사상정신적 아름다움을 스스로 따라 배워야 한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사색과정을 진실하게 묘사하면 그 인물의 내면세계를 직접 들여다볼수 있으므로 성격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장이 없이 환경에 어울리고 주인공의 성격발전과 세계관형성단계에 맞게 진실하고 생동한 사색과정을 그린 심리묘사는 독자대중들이 주인공이 처한 환경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그대로 감수하며 거기에서 큰 힘을 얻는다.

그때는 벌써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동안 잊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화폭으로 되는것이다.

인물의 초상, 심리묘사와 함께 환경묘사도 형상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환경묘사라고 하면 인물을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한 묘사 즉 사건정황, 기물, 동물, 풍속, 자연풍경 등에 대한 묘사를 말할수 있을것이다.

환경묘사의 기본요구는 전형성, 진실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묘사도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진실해야 한다.

진실성은 진리에 있고 자연과학적인 정확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환경묘사의 목적이 인간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있는만큼 수법들을 이에 복종시켜야 한다.

잘된 환경묘사는 벌써 전형적인 성격을 이해할수 있는 기초로 되며 주제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생활이 전개되는 장소의 표상과 시대적인 개념을 힘있게 안겨준다.

우에서 레로 든 중편소설 《해빛아래》의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은 환경묘사가 선택되고있다.

《두갈래 길이 나있었다.

한길은 밋밋한 언덕으로 뻗어오르고 다른 한길은 들을 지나 맞은편 골짜기로 사라졌다.

최신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수 없어서 망설이다가 길옆에 트렁크를 내려놓고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닭알공장으로 가는 모이차나 닭알차가 지나가지 않나 해서였다. 그러나 길우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조금전 버스에서 내릴 때 차장은 이 길로 가다가 물으면 된다고 했건만 물어볼 사람이 없는것이다.

신에는 난처해서 단발머리칼을 바람에 흘날리며 갈림길어구에 서있었다.

(모르면 다 이런거야! 제눈을 갖고 제가 갈 길도 가릴수 없는거야.)

이제는 길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섰는수밖에 없다.》

이 환경묘사는 매우 잘된 묘사이다. 왜 그런가?

사람이란 활동하는 매순간 매우 광범한 자연환경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환경묘사를 잘하려면 끝이 없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광범한 자연환경, 복잡다단한 사회환경속에서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따라 엄격하게 선택한 환경과 여기에 주인공의 성격을 특징짓는 속대사를 안반침한 묘사수법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성격의 규정성과 심리세계를 잘 펼쳐보이고있다.

그리하여 최신애가 어떤 사회적바탕을 가진 사람이며 그의 세계관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게 하였다.

바로 이 환경묘사는 두갈래의 길에 대한 세부를 끌어들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장면을 선정함으로써 모르면 움직일수 없다는 즉 알아야 앞으로 전진할수 있다는 작품의 종자에 대한 상징을 암시한것이라든가 주인공이 활동하는 장소적표현, 닭알공장으로 가는 처녀가금업전사라는 시대적개념과 사업상위치 등을 환경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묘사가 진실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선히 안

겨온다.

한번만 끌어들이면 열, 스물을 련상케 하는 째인 환경묘사는 실로 그 의의가 크다.

그러자면 수많은 대상가운데서 작품의 주제사상과 인간성격과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것을 포착하고 골라잡은 대상의 특징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특징을 붙잡아 묘사해야 할것이다.

이밖에 기물, 동물, 자연, 사건정황, 풍속, 세태 등의 묘사도 여기에 복종되어 종합적으로 하나의 생동한 화폭을 형성해주도록 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보충하여 더 이야기하고싶은것은 묘사기교에서 언어문제이다.

단어는 항상 그것이 그뒤에 서있는 사물과 현상을 표상할수 있는 개념을 형성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의 본질을 특징짓는 단어는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명확하고 생동한 어휘를 선택해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의 형상창조문제는 결국 작가가 언어의 능수가 되였는가 못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화폭적인 묘사는 언제나 인민적언어의 보물고에

서 나온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씹을수록 맛이 나고 읽을수록 감동적이고 들을수록 부드럽고 귀맛이 돋구어진다.

언어를 소유하지 못하면 무딘 도구를 쥔 목공과 같다. 설제가 아무리 훌륭하다한들 가공이 잘되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서야 좋은 집을 짓지 못할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함축성있는 세부묘사,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기는 철학적인 묘사, 세련된 언어의 활용 등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묘사형상수준이 높아야 다양한 양상과 생활의 풍부한 음색이 살아나도록 작품을 창작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 전투적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이 형상창조에서 이런 문제들을 참고하여 크나작으나 그 작품 하나하나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의 교과서로 더 잘 이바지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랄뿐이다.